금주의 법구-〈법구경〉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를 사는 최선의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3월 3일)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세계불교비구니협회의 첫 공식대회가 열린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는 12개국 비구니스님 500여 명이 참석해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다. 특히 대만대표단 스님 100여 명이 연화등을 들고 무대에 올라 '옴마니반메훔'을 합송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대만전통 공양의식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세계 비구니, 남북통일 염원하다

세계불교비구니協, 12일 한국서 '비구니평화대회' 개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만 중화불교비구니협진회를 중심으로 12개국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조직한 세계불교비구니협회가 국내서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협회 조직 후 첫 행보인 데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규모의 비구니 스님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회장 보휘)는 4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 '남북통일을 위한 세계불교 비구니 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16년 11월 창립된 세계불교비구니협회 첫 공식대회로 국내서는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한국지회(지회장 화정)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가 참여했으며, 대만 · 말레이시아 · 태국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스리랑카 · 영국 · 미국 · 베트남 등 12개국 비구니 스님 5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결집을 축하하고자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대회는 비구니 의현 스님의 평화를 위한 법고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대만 비구니 스님 100여 명은 작은 연화등을 손에 들고 무대에 올라 '옴마니반메훔'을 합송하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대회장인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한국지회장 화정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물이란 말은 물이 아니고, 통일이란 말도 말이 통일일 뿐"이라며 "분단된 세월만큼 남북은 서로 성숙했다. 우리 모두 무위의 세계를 성취한다면 남북통일은 꼭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로 단상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화엄경〉 제20 야마공중게찬품 각림보살 게송인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를 읊으면서 부처님의 성도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스님은 "세계불교비구니 평화대회 봉행이 남북통일 성취발원과 동서평화 달성 기원으로 이어져 전 인류의 성불인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회 창립 후 첫 공식대회
500여 회원 대중 서울 결집
전쟁 불식 · 세계평화 기원해

"남북 평화에 불교 앞장서야"
12개국 비구니 스님 '한마음'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치사에서 "불교 교단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각국 불교계서 평화와 복지, 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권, 여성에 대한 문제 등 비구니 스님들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비구니 스님들이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세상 모든 약자들의 든든한 친구가 돼주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건강문제로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세계불교비구니협회장 보휘 스님은 부회장 홍안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세계불교비구니협회는 새로 설립된 세계적 단체이기에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관습적 차이를 갖고 있다. 이에 승단은 화합을 원칙으로 삼아 육화를 엄격하게 준수한다"며 "말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법이 세간에 머무르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자비정신을 되살려 널리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협회 목적을 밝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오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갈등을 극복하자는 서원이 바탕이 된 까닭"이라며 "비구니 스님들이 앞장서 세계 각국에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축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제교류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남북이 전쟁의 악업을 끊고 분단의 고해를 건너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제자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는 오는 4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 역시 이를 인지하고, 타국에 비해 비구니조직이 탄탄하게 갖춰진 한국을 첫 대회지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세계불교협회장을 대리해 참석한 부회장 홍안 스님은 본지 인터뷰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구니조직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분단국가의 통일이 세계평화를 이끌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면서 "분단의 세월이 길었던 만큼 단시간에 통일이 되긴 어렵겠지만 세계 비구니들은 앞으로도 두 나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의원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

제58차 원로회의서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으로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58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서 신임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네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덕사 우송 스님은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정혜사서 인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대 중앙종회의원과 수덕사 주지, 덕숭총림 선원장 및 유나를 역임했다.

송광사 현호 스님은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상백운암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10대 중앙종회의원과 송광사 주지, 법련사 주지를 역임했다.

봉선사 일면 스님은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과 1967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9~13대 중앙종회의원과 호계원장 ·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봉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우송 스님


현호 스님


일면 스님


원행 스님

월정사 원행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월정사서 희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과 초심호계위원, 구룡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남북회담일, 광화문서 금강경 독송 울린다

날마다좋은날 27일 '2만 수보리 합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4월 27일 전국 불자 2만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금강경〉을 독송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은 4월 2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만 수보리의 합창-금강경 독송 정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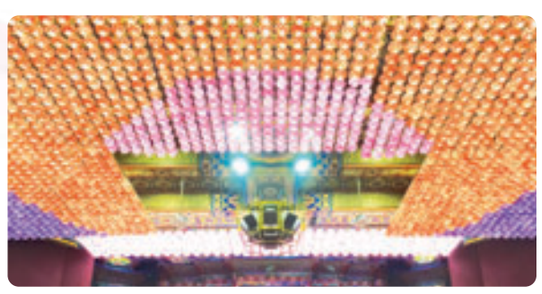
금강경 독송 정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들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대표 스님, 중앙신도회 임원진과 포교사, 정관계 인사, 포교 · 신도단체 회원 등 전국 400여 사찰에서 불자 2만여 명이 운집할 예정이다. 사전행사로 오후 4시부터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한반도 평화를 발원하는 평화의 불을 점화도 이뤄진다. 또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발원문 낭독 등도 이뤄진다. 노덕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불교 문상의례 제각각… "표준안 필요"

표준안 필요성 대다수 공감, 세부절차엔 이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문상의례 쟁점사항
- 영단에 올리는 절 횟수
- 재가불자 영단 절 여부
- 탈상 전후 영가의 위격

문상의례 공식 절차 없어
현장에서는 이현령비현령
유교문화 영향 무시 못해
"대중공의 담아 해결해야"

#비구 A스님은 지난해 어느 비구니 스님 장례에 문상을 갔다가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비구니와 재가불자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어른스님 가르침을 되새겨 합장 저두례만 하고 나오는데 뒤이어 들어온 연배 높은 비구스님이 영단에 절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혹여나 절하지 않은 자신 때문에 상주가 불쾌하게 여기진 않을까 눈치가 보였다.

#재가불자 B씨는 도반의 장례에 문상을 가면서 영단에 절을 2번할지, 3번할지 수차례 고민한 적이 있다. 도반이 신심 깊은 불자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맞을 것 같지만 유교문화가 짙은 우리나라 장례풍습을 감안하면 2배를 하는 게 무난할 것 같아서다. B씨는 공식화된 불교 문상의례 절차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불교계 내에서 표준화된 문상의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의 경우 중앙종회서 표준 문상의례에 대한 종책질의가 나오고, 대다수 스님들이 공감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태원 스님은 최근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종책질의를 통해 "불교식 문상의례가 정착되지 않아 장례식장, 분향소 등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져 진정한 종교적 위무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前종회의장인 성문 스님을 비롯해 많은 종회의원들이 공감을 표하며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태원 스님은 "문중, 사찰별로 의례가 달라 문상을 다닐 때마다 절을 몇 번 해야 하는지부터 위패 작성법의 차이 등 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종단차원의 표준 문상의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의례실무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각종 의례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표준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비해 세부절차에서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스님의 경우 문상 대상이 승가와 재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정도다. 특히 문상 대상이 스님일 때 가사 장삼을 갖추고 절을 올리는 것으로 논의 중이지만 2배와 3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또 재가자 문상서는 합장, 저두례는 하지만 절은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표준안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표준안이 생기면 대중의 관념이나 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스님들도 수륙재나 영산재에서 영단에 반드시 절을 한다. 단순히 재가자 문상이라는 이유로 스님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애매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의례실무위원인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은 〈범망경〉 보살계의 내용 등을 예로 들어 기준 설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스님은 "〈범망경〉은 대승경전이지만 '출가자는 임금 · 부모 · 친인척 ·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귀신에 망자를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재가자 영단에 대한 예가 바뀔 수 있다. 최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려다보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불교의 계율이 수범수제(隨犯隨制)이듯이 절대적 원칙은 없다. 이 시대 공의가 모여야 다수가 인정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상의례의 세부절차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의례실무위원회는 장기적인 공청회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개인이 문상 갔을 때의 약례와 단체의 광례로 나눠 구체적인 절차를 다듬는 한편, 망자에 대한 명칭을 탈상 이전 이후에 선엄부(先嚴父), 선자모(先慈母) 등으로 칭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위격은 탈상 이전에 영가(靈駕), 탈상 이후에는 연위(蓮位)로 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한 논의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현장서 겪는 혼란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율장에 근거한 문상의례는 없을까.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은 "율장에 불탑이나 불당 앞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지만 특별히 문상에 대한 내용을 찾기는 힘들다"며 "비구가 비구니 문상을 갔을 때 절을 하지 않더라도 정중하게 예를 표시할 수 있는 합의된 절차가 마련돼야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인연 연기 모든 현상 인연따라 生起

부처님이 최초로 발견
상의상관성 인과법칙
"연기보면 고집멸도 본다"

*인연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따라 생기소멸(生起消滅) 하니까요. 인연법을 바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악연이 풀어집니다. 처처가 부처님 모습이고 자비입니다. 지옥도 극락이 됩니다. 이고득락(離苦得樂)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인연(因緣) 연기(緣起)의 진리를 깨달아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원인(因)과 조건(緣)의 상호관계에 의해 삼라만상이 생겨나는 인연생기(因緣生起)를 최초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연이고 연기입니다.

부처님은 만물이 생멸변화하는 법계에 상주하는 '존재의 법칙'이 있음을 깨달으신 겁니다.

바로 인연 연기의 이치인데요, 존재의 상호의존성 또는 인과(因果)의 법칙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현상은 인과 연이 화합하면 생기(生起)하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소멸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잡아함경에 있는 연기의 기본공식입니다.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의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과 저것은 연기 관계(인과 관계)입니다.

인(因)이 연(緣)을 만나면 반드시 결과가 생깁니다. 이 '인연과'를 줄여서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다른 존재에 관여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무한히 상호의존관계를 맺으면서 인연 연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은 둘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대한 인연의 덩어리입니다.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노사(老死)의 괴로움이 있게 되는 윤회과정을 12단계의 인과(因果)관계로 설명한 것이 12인연 즉 12연기설입니다.

연기의 이해를 돕기위해 설해진 12연기설은 탐진치 삼독의 뿌리인 무명에서 시작됩니다.

무명은 어리석음이며 번뇌의 근본으로 연기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無知)를 말합니다.

12연기는 무명이 있음으로 생과



제목 · 연기-지혜 그림 · 조향숙

노사가 있다는 순관(順觀)과, 무명이 멸하면 노사도 멸한다는 역관(逆觀)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뇌가 일어나고 소멸하는 과정을 일러주는 12연기설을 꿰뚫어보면 존재의 실상을 보고 어리석음의 어둠을 밝힙니다. 무명이 멸하므로 온갖 괴로움이 소멸돼 집착할 대상이 없습니다.

인연연기는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불교의 근본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는 반드시 연기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재활용 비닐폐기물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지나치게 편하려고 과용해서 생긴 비닐쓰레기 문제를 연기법으로 보면 악연을 선연으로 푸는 해법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인과법으로 풀고, 무명이 지혜인 밝음(明)이 되고 빛(光)이 되도록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을 청정히 닦읍시다. 그리고 행복의 씨앗을 심고 가꾸세요. 인연법을 보면 능히 부처님을 보며 고집멸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시대에 부응하는 정신적 리더 되겠다"

불교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추대법회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인선)은 4월 12일 서울 통리원 총지사 3층 대법당서 '제12대 종령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령으로 추대된 법공 대종사〈사진〉는 취임법어를 통해 "한 종단의 종령이란 막중한 소임은 큰 지혜와 복덕을 겸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을 알기에 더더욱 두렵고도 가시방석 같은 좌불안석이라 생각된다"며 "생각건대 우리 종단의 앞길에도 산재한 난제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부응하려면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종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책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봉행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원종 종조님의 법통을 봉승해 밀법에 의지한 대승보살도의 역사적 실천을 영도할 법공 대종사님을 종령으로 받드는 성스러운 자리"라며 "법공 대종사는 일찍부터 진언 밀교에 뜻을 두고 총지종에 입교해 청정한 생활과 엄격한 의궤로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묘하고 신비스런 밀법의 체득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종회의장 수현 정사는 "법공 대종사님의 일생은 가히 용맹전진의 일생이었다. 철저하고 엄격한 계행이 수행 근본이라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시고, 철저한 진언 수행을 통해 종도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아온 분"이라며 "오늘 종령 추대를 통해 우리 총지종은 중생제도의 대서원을 실현하고, 세계 도처서 번뇌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세계 속의 총지종을 자리매김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힘찬 어조로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현대불교신문사 박종수 사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월 제139회 승단총회서 만장일치로 종령에 추대된 법공 대종사는 1943년 경북 포항서 출생했으며, 총기원년(1972년 1월 12일) 총지종에 입교 후 통리원 및 총지사 근무를 시작했다. 통리원장 직무대행과 통리원 재무부장과 총무부장, 학교법인 대동학원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등 종단의 주요 중책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법교화 매진 앞장"

조계종 첫 전법사 위촉

전법교화 활동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전법사가 위촉됐다. 조계종이 지난해 관련 제도를 신설한 이후 첫 위촉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4월 12일 직지사 만덕전서 2급 전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법사 위촉 대상은 4년간의 기본교육과정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받고 전법사 시험을 통과한 83명의 비구 · 비구니 스님이다.

위촉장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대신해 총무부장 정우 스님이 수여했으며, 비구 혜인 스님 · 비구니 법민 스님이 대표로 받았다. 전법사로 위촉받은 스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도선언처럼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법교화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계종의 전법사 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법원력을 실현할 스님들을 선발해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전법교화와 행복 구현에 역량 집중”

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법회

4월 11일 구인사 광명전 1만여 사부대중 참석

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천태종은 4월 11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서 1만 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18대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사진 왼쪽〉은 1951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으며,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구인사에 입산해 1975년 남대충 대종사를 계사로 수계, 득도했다. 재무부장 · 사회부장 · 총무부장 · 종정사서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대전 삼문사 · 대구 대성사 · 울산 정광사 등 여러 사찰의 주지를 맡아 불사와 전법교화에 앞장섰다. 1985년 천태종 제8대 종의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5대까지 의원 활동을 하였고, 2015년에는 종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7년 4월에는 천태종 원로의원에 임명되었으며, 지난 3월 19일 종헌종법에 따라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제18대 총무원장으로 지명받았다.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전법 교화와 함께, 시대적 가치와 행복을 구현하는 일에도 종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효율적 종무 행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 보완과 함께 시대적 사명 구현을 위해서도 지킬 것과 쇄신할 것을 명철히 판단해 종단 안팎을 두루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

대한불교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문덕 스님은 강경한 어조로 앞으로 펼칠 종무행정 계획을 이같이 피력했다. 천태종은 4월 11일 오전 11시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서 1만 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이임법회와 함께 열린 이날 법회에서 법상에 오른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큰 뜻을 받들어 앞장서서 원을 세워 정법의 기치 휘날리며 정성 다해 한층 한층 탑을 쌓듯 거룩한 불사 원만하게 성취했으니, 그 노고가 참으로 장하구나”라며 “수승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천태 일승 묘법 세상에 두루 펴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오르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18대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취임사에서 “천태종의 오랜 역사성과 정체성 위에서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행 정진과 전법교화에 매진하는 것이 천태종단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며 “전법교화와 함께 시대적 가치와 행복을 구현하는 일에 종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춘광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저에게 더없이 귀한 정진의 시간이었고 제불보살님과 종단의 은덕을 갚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제 방사(坊舍)로 돌아가 그 사무쳐 깨우친 바를 더욱 절차탁마하여 안분(安分)을 수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4년의 회고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교계 안팎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설정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문덕 스님은 오랜 수행력과 덕망으로 우리 사회에 애국불교 · 생활불교 · 대중불교의 지표를 넓게 실현하실 것이다”고 격려했다.

해외에서도 이날 법회를 축하하는 축전이 줄을 이었다. 먼저 중국불교협회장 학성 스님과 일본 천태종종무총장 도다 도유 스님,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우죠 스님, 일본 예산학원장 사카모토 코바쿠 스님도 전문을 통해 축하했다.

이날 법회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하승창 청와대사회혁신수석,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철호 단양부군수, 엄재창 충북도의회 부의장,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한 법회는 △상월원각대조사 법어(감사원장 진덕 스님) △고불문(종의회 부의장 세운 스님) △종정예하 법어 △제17대 변춘광 스님의 이임사 △제18대 총무원장 수행이력 소개 △취임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모든 중생, 함께 가자!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한달여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 봉축등이 걸렸다. 올해는 ‘함께가자! 우리’로 조계사 측은 남과 북의 평화공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성평등,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같은 표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우리 사회에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원해 본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서 장애인 정기법회부터 개설을”

‘250만 장애인 시대, 불교는’ ② 장애인 신행모임 활성화 과제

장애인의날을 맞아 본지가 전국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 내 장애인 신행모임을 조사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신행모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장애인 신행모임 구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정기법회부터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림사에서 장애인 신행모임을 운영중인 연화회 대표 해성 스님은 “장애인들의 신행활동은 결국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에서부터 시작한다”며 광림사 사례를 소개했다.

광림사의 경우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공동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성 스님은 “초창기 일반신도님들이 걱정을 했다. 장애인들이 오면 서로 힘들 것이란 우려에서였다”며 “하지만 몇 번 함께 법회를 보다보니 교류가 잦아지고, 이제는 함께 신행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해성 스님은 이어 “장애인불자들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매번 다니던 사찰만 다니려고 한다. 시각장애인불자들과 갓바위 순례를 가려고 하니 오히려 걱정을 했다”며 “가까운 사찰에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사찰에서 이들을 신도로 적극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은 불교계 장애인 특수학교 조차 전무한데서 드러난다. 장애인들이 불교관련 교육을 받을 공간도 없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장애인 이동문제 개선 △지역별 거점 사찰 지원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 △장애인 안내 포교사 등 인적 활용 △권역별 장애인불자회 구축 등 과제를 들었다.

도륜 스님은 “먼저 사찰에 신행모임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사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원활한 사찰을 중심으로 정기법회를 개설하고, 거점사찰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사찰을 거점으로 지정하기 힘들다면 장애인복지관 업무 후 대관하여 불자장애인들이 복지관 시설에서 그대로 법회를 보는 방법도 있다. 경전 연구 및 독송모임 등 신행공동체는 장소만 있다면 어디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전법단의 경우 현재 15명의 지도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불교계 장애인복지관 관장들이다.

도륜 스님은 “복지관 관장들은 지역에 흩어져 모이는데 애로점이 있다. 장애인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위해서는 결국 장애인불자회와 같은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불교계가 권역별 장애인불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청와대 미남불’ 보물 지정됐다

문화재청 12일 결정… “독창적 통일신라 조각”

청와대 미남불로 잘 알려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4월 12일 열린 제3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7호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1974년 1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지만, 부처의 머리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는 특수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이번 보물 지정으로 그간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연구와 제도적으로 보호 ·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조성 시기는 9세기경이며, 편단우견(偏袒右肩)을 걸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다. 특히 사각형 대좌는 같은 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거의 없어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1913년경 경주에서 일제에 의해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옮겨졌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과정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 불성을 믿어라

법회에서 활용하는 인성교육

공생,공심으로 생활속에서 수행하기

▶ 고정관념을 깨다! - 마음의 주인 되기
▶ 지혜를 계발하다! - 마음은 무한 에너지
▶ 자비심을 키우다! - 우리는 생명 공동체

일 정 : 2018년 6월 8일 (金) ~ 10 일 (日)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 (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edu.hansi.org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교통 약자 위한 '행복한 버스' 달린다

4월 10일, 부산성의신협 교통약자 저층버스 발차식

2억 5000만원 특수버스, 통 큰 기부
발차식 및 시승식, 지역민에게 전달
지역민 위해 환원하는 부산성의신협
각종 봉사로 불교 기관 후원도 이어



4월 10일 진행된 발차식에서 장애인 불자를 비롯한 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휠체어를 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손발이 되어줄 행복한 버스가 탄생했다. 부산성의신협이 2억5000만원 기금을 출자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층버스를 부산진구노인 ·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했다. 부산성의신협은 불교신협인 부산성의신협 범천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부산진구노인 · 장애인복지관(관장 김익현)은 4월 10일 부산 송상현광장 내 다이내믹 부산마당에서 교통약자 전용 저상버스 발차식 및 시승식을 개최했다.

부산진구노인 · 장애인복지관은 부산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버스'를 운행해왔다. 최근 해피버스 1호차의 노후로 신규버스가 필요해 지역에 후원을 요청했고, 부산성의신협이 2억5000만원 전액을 기부해 저상 버스를 전달했다.

발차식은 1부 기념식으로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경과보고 및 인사말씀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제막 및 기념촬영, 시승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윤석영 부산성의신협 이사장을 비롯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내빈과 지역 시민 및 어르신 400여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윤석영 부산성의신협 이사장은 "부산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발대식을 개최해 기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신뢰받는 신협으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겠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김익현 부산진구노인 · 장애인복지관장은 "후원 기업의 뜻을 잘 받들어 지역 사회 속에 교통약자를 위한 활동을 유지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부산성의신협이 기증한 해피버스는 장애인 승차시 경사로가 자동 설치돼 휠체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 차량이다. 출입문 발판 높이가 27cm 이내여서 휠체어뿐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도 편하게 승차 가능하다. 휠체어는 총 4대 탑재 가능하다. 해피버스는 발차식 이후 평일에는 부산진구 복지관, 관공서, 병원, 시장 등을 돌며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주말에는 부산 소재 복지단체들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부산성의신협은 매년 신협중앙회 사회공헌재단에 1000만원 기부, 지역초등학교 학교발전지원금 지원, 중 ·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금이 매년 1억원 가량 사용한다. 아울러 '작은 정성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을 시작해 매달 급여 일부를 '이웃사랑 기금'으로 조성하고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성의신협은 연지점 등 부산진구에 4개 영업점을 두고 있고 동래구1개 지점 등 5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자산액은 5252억 원으로 전국 9위이고 당기순이익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부산성의신협 불교지점(범천지점)은 1990년 12월 13일에 창립됐다. 2008년 12월 15일 부산성의신협이 합병해 운영 중이며 2017년 말 기준 자산은 945억 상당이다. 불교지점은 사찰 대출 전문지점이며 불자 우대, 지점장은 불자만 선임한다. 또, 불자를 위한 환원 사업을 펼치며 매년 팔관회 및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연등행사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포교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포교 미디어앱 리뉴얼 돌입

포교원 '마음거울 108' 앱 등 홍보 및 개선 시작

8개 앱 · 콘텐츠 사찰 홍보
SNS 등 활용해 콘텐츠 보급

조계종 포교원이 스마트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하 포교앱)의 홍보 및 리뉴얼 작업을 시작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포교원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포교앱의 운영을 전면 검토하고 보완 작업 및 홍보 전개, 유튜브 등 영상플랫폼으로의 전환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은 2012년 '어린이 마음거울 108' 앱과 '청소년 마음거울 108' 앱을 시작으로 8개의 스마트폰 포교앱 및 콘텐츠를 제작, 보급해왔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 등 연령별 마음거울 108앱은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108배라는 불교 특성이 드러나는 장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매년 제작이 진행됐다. 하지만 전체 다운로드 수는 포교원이 당초 기대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원섭 포교원 전법팀장은 "제작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각 분야 앱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교 · 신행앱이 완성된 만큼 보다 많은 불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은 1차적으로 기존 제작 앱을 주요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다운로드를 홍보하고,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를 중심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무자 모바일 교육을 통해 홍보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리뉴얼한 앱 구동 모습.

이 밖에 앱에 담았던 콘텐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 및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시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앱 개선과 별개로 사장되는 콘텐츠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포교원이 2015년 제작해 보급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의 경우 2015년 약 3700만원, 2016년 약 800만원, 2017년 약 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정도로 불자들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현재 종교관련 카카오톡 이모티콘 입점이 금지돼 신규 제작이나 리뉴얼이 막힌 상태다.

송승옥 포교원 뉴미디어 담당은 "불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비롯해 미디어 전반에 대한 기반조사도 함께 추진해 장기적으로 미디어 포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며 "유튜브를 비롯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포교 콘텐츠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⑥ 배불리 먹은 ~ 이룬다.: 氣血이 어느 한 부위로 이동할 때는 全身의 氣流通을 위해 서있는 것이 제일 좋고 다음은 무릎 꿇은 자세, 다음은 앉은 자세, 누운 상태가 氣流通에 제일 나쁘다. 그래서 옛 명의는 환자를 세워놓고 침 시술을 했으며 西歐에서 임신부는 앉은 자세로 출산한다.

어느 30代 남자가 소화불량과 두통, 불면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였다. 역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녁식사 후에는 절대 소파에 앉지 말고 방에 기대지 말고 3시간만 앉아 있으면 병은 저절로 나을 것이요." 3개월 뒤 그가 말하기를, "당일부터 모든 증상이 호전하였습니다."소파에 앉는 것은 눕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소화가 안 되고 氣血이 응체되어 百病이 생긴다. 기대지 않고 앉아서 T.V를 보면 하복부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 氣血이 모이니 자연히 火降하여 잠이 오는 것이다.

⑦ 땀이 흐르는데 ~ 돋는다. : 역자는 20代까지 祖父와 유도사범에게서 땀이 그친 뒤에 목욕하라는 훈계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다.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땀 난 채 냉수샤워를 하고나서 寒熱, 身痛, 風疹을 누차 체험하였다.

⑧ 앉거나 누워있는 곳 ~ 해당되지는 않다. :

역자는 어느 날 仙道의 調息訣의 내용 중에서 창문을 닫고 수련하라는 한 구절을 읽는 순간, 本書의 本句節에 대해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가져왔던 의문에 대한 답을 한순간에 깨달았다.

역자는 한동안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즉, 청소년기에는 20대 이전보다 의식과 생활이 단조로웠는데 그때는 왜 언제나 여름밤에는 자주 꿈을 꾸고 겨울에는 꿈을 꾸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해답은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잤기 때문이며 선풍기가 돌고 있는 중에 잠들었을 때는 예외 없이 언제나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요가와 仙道의 이론에 의하면, 호흡 수련의 목적은 감정과 정신을 조절하는 외에 氣를 섭취, 축적하여 체력증진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선풍기바람 등은 실내의 氣를 이동시켜 산란케 한다. 그리하여 실내에 있는 사람은 산란한 氣를 호흡하게 되니 체내의 氣도 저절로 산란되어 몸과 마음이 불안정해지므로 뒤숭숭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어떠한 식으로도 자주 自然風, 人工風을 맞는 사람은 단연코 장수할 수 없다. 自然風이라고 하더라도 바닷바람에는 수억 년 된 심해의 한냉한 水毒인 [illegible]風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변지역거주자의 평균수명이 내륙, 산간지역거주자보다 짧다는 것은 수많은 통계로 이미 증명되었다.

ㅇ 뇌호(腦戶) : 督脈의 要穴로 後髮際上2寸5分이다. 숨골, 호흡중추, [illegible]髓라고도 한다.

17 머리감기, 목욕과 얼굴 씻기. 沐浴洗面。

ㅇ 書云, 頻沐者, 氣壅於腦, 滯於中, 令形瘦體重, 久而經絡不通暢。

자주 머리를 감는 자는 뇌에 기(氣)가 엉키고1) 중초(中焦)에 기(氣)가 응체되어서 몸이 마르고 무겁게 느끼며 오래되면 경락(經絡)이 잘 통하지 못하게 된다.

ㅇ 書云, 飽食沐髮, 冷水洗頭, 飮水沐頭, 熱??洗頭, 冷水濯足, 皆令人頭風。

배불리 먹고서 머리를 감거나, ② 차가운 물로 머리를 씻거나, 끓였다 식힌 물로 머리를 씻거나, 뜨거운 쌀뜨물로 머리를 감거나, 차가운 물로 발을 씻는 등 ③의 모든 행위들은 두풍(頭風) ④을 생기게 한다.

ㅇ 書云, 新沐髮, 勿令當風, 勿濕[illegible], 勿濕頭臥。令人頭風, 眩眼及生白屑, 髮禿而黑齒痛, 耳聾。

머리를 감고 나서 곧바로 바람을 쐬면 안 되고⑤ 마르지 않은 상태로 상투를 틀어도 안 되며 마르지 않은 상태로 누워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두풍(頭風)이 생겨 눈이 어지럽고 흰 비듬이 생기며 머리털이 빠지며 치아가 검게 변하며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

ㅇ 書云, 女人月事來, 不可洗頭, 或因感疾, 終不可治。

여인은 월경 중에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혹시 이로 인해 질병이 생기면 평생 고치지 못한다. ⑥

ㅇ 書云, 沐浴漬水而臥, 積氣在小腹與陰, 成腎痺。

목욕할 때 물속에 몸을 담근 채 누워있으면 사기(邪氣)가 아랫배와 성기에 쌓여 이로 인해 신비(腎痺)를 이룬다. ⑦

ㅇ 書云, 炊湯經宿, 洗體成癖, 洗面無光, 作齄[illegible]瘡。

끓인 물이 하룻밤이상 경과되었는데도 그 물로 몸을 씻으면 벽질(癖疾)⑧을 이루고 얼굴을 씻으면 얼굴에서 광택이 나지 않으면서 증왜창(齄[illegible]瘡)⑨이 생긴다.

ㅇ 書云, 頻浴者, 血凝而氣散, 體雖澤而氣自損。故有癰疽之疾者, 氣不勝血, 神不勝形也。

자주 목욕하는 자는 혈액이 응체됨으로써 기(氣)가 흩어지니 몸은 윤택한 것 같으나 기(氣)는 저절로 훼손된 것이다. ⑩ 그러므로 옹저(癰疽)의 병이 있는 자는 기(氣)가 혈(血)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은 형체를 이기지 못한 소치(所致)이다.

ㅇ 書云, 時病新愈, 冷水洗浴, 損心胞。

감기가 낫자마자 냉수로 목욕하면 심포(心胞)가 손상된다.

ㅇ 書云, 因汗入水, 卽成骨痺。昔有名醫, 將入蜀, 見負薪者, 猛汗河浴。醫曰, 此人必死°隨而救之, 其人入店中, 取大蒜細切, 熱麵洗之, 食之, 汗出如雨。醫曰, 貧下人此知藥, 況於富貴乎。遂不入蜀。

땀이 났을 때 물에 들어가면 즉시 골비(骨痺)⑪를 이룬다.

옛적에 한 명의(名醫)가 촉지(蜀地)에서 개업하기 위해 길을 걷다가 한 사내가 등에 땔나무를 지고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마주 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사내는 강물에 뛰어들어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명의가 놀래어 혼자 말하기를, "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의가 그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가까이 가니 그는 벌써 물으로 올라 주막에 들어간 후 마늘을 잘게 썰어 뜨거운 국수물에 씻어서 먹으며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있었다. 명의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빈천한 자가 저토록 약을 잘 아니 부귀한 자는 어떠하랴?" 이에 따라 명의는 촉지로 가지 않았다. ⑫

ㅇ 云, 盛暑衝熱, 冷不洗手。尙令五臟乾枯, 況沐浴乎。

불볕더위로 인하여 몸 안에서 열이 치솟을 때 사람들은 흔히 찬물에 손이라도 씻는다. 그러나 이것은 5장(五臟)을 마르게 하는데 하물며 목욕이야? ⑬

ㅇ 書云, 遠行觸熱逢河, 勿洗面, 生烏[illegible]。

먼길을 가다가 더위를 느꼈을 때 강을 만나도 얼굴을 씻지 말라. 얼굴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ㅇ 閑覽云, 目疾切忌浴, 令人目盲。白彦良將歲, 常患赤目。道人曰, 但能不沐頭則不病。此彦良記之, 七十餘更無眼病。

《한람(閑覽)》에 이르기를, 눈에 병이 있을 때는 절대로 목욕하지 말라. 눈이 멀게 된다.⑭)

백언량(白彦良)이 새해를 앞두고 항상 눈이 빨갰었다. 도인(道人)이 말하기를, "머리만 감지 않는다면 병은 절로 나을 것이오." 백언량은 이를 기억하여 실천하니 70여세까지 살며 두 번 다시 눈병이 생기지 않았다.

※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771-2260

고형렬 시인 등 16회 유심작품상 수상

시조부문 박방희 · 학술부문 송준영 · 특별상 천양희 선정


고형렬 시인


박방희 시조시인


송준영 주간


천양희 시인

각 부문에 1500만원 상금
오는 8월 11일 시상식 개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 사상을 기리기 위한 유심작품상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16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로 △시 부문 고형렬 시인 △시조 부문 박방희 시조시인 △학술 부문 송준영 〈시와 세계〉 주간 △특별상 부문 천양희 시인을 선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고형렬 시인은 〈어디서 사슴의 눈도 늙어가나〉로 수상했다. 수상작 〈어디서 사슴의 눈도 늙어가나〉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부드럽고 편안한 정서의 순정성과 그 이면에서 '생의 높이'를 감당하고자 하는 시인 특유의 정신성이 처연히 교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방희 시조시인의 수상작 〈삼릉 숲에서〉는 "평등한 진리(不二),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中道)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하면서도 서로 장애가 되는 일이 없다(相卽相融)는 불교적 세계관이 배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송준영 주간은 〈禪, 발가숭이 어록〉으로 수상했으며, 저서를 통해 "선시를 해독하고 비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6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1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며,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살사상 근본도량' 금강선원 30주년

4월 8일 개포동 선원서 기념법회

'보살운동 근본도량'으로 개원한 서울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이 4월 6일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금강선원은 1988년 4월 8일 서울 개포동에 위치한 20여 평의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현재 같은 건물 3개층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자곡동에 탄허기념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세를 키워왔다. 여기에 탄허 스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탄허불교문화재단 및 전통불교문화연구원을 운영하고 금강경강송대회와 만일수행결사회 등 보살사상 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문원전강의, 참선교육, 명상지도자 양성 등 신도 지성화와 교육에 앞장서 왔다.

이날 30주년 법회는 연혁보고에 이어 공로상 시상, 화엄경 석경불사 발원문 낭독, 가가합창단의 축가,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선원장 혜거 스님은 "금강선원 신도들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신도로 불교계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는 생활이 즐거워지는 공부, 수행을 하도록 발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강선원 측은 향후 재단법인 추진 및 명상마을 건립, 전국단위의 걷기명상, 금강경강송대회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홍천군장애인福, 학생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학생들의 편견 없는 시야를 위해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나선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허종국)은 4월 11부터 27일까지 홍천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0개교를 방문해 장애인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복지관은 홍천군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박진형 기자



자비명상 회원들이 고시생들에게 전달하는 주먹밥과 책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따뜻한 온정에 길을 가던 학생들은 발길을 멈추고 잠시 마음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등명 스님이 '마음충전' 책을 전달하고 있다.



주먹밥을 시식하는 고시생들.



봉사자들이 횡단보도서 주먹밥을 전달하고 있다.

"자비의 주먹밥, 고시생활 이겨내는 힘되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비명상, 4월 10일 노량진 마음충전소 나눔 현장

검은 마스크를 끼고 책가방을 멘 한 학생이 주먹밥을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 "학생, 많이 먹고 힘내"라고 따뜻한 말을 건넨다. 주먹밥을 담은 하얀 플라스틱 용기를 맞잡은 손에서는 따뜻한 삶의 온정이 넘쳐난다.

4월 10일 고시촌이 위치한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에는 자비 훈풍이 불었다. 신록이 움트는 포근한 날씨가 추운 겨울의 끝을 알리듯, 이날 컵밥거리에서는 고시생들의 힘든 생활의 성공적인 회향을 기원하는 마음충전소(노량진점 소장 등명)의 주먹밥이 나눠졌다.

이날 주먹밥 나눔을 진행한 마음충전소는 올해 1월 25일 사단법인 자비명상(대표 마가)이 서울 노량진 고시촌의 한 귀퉁이에 청춘들을 위로하고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청년쉼터다. 마음충전소 1호점인 노량진점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1인실 텐트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 고민을 보관하는 마음보관함, 마음 집중명상, 스님과 차 한잔, 밥한 끼를 나누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주먹밥 나눔에는 사단법인 자비명상의 YES봉사단을 비롯한 각 지역의 다양한 불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다소 어색한 듯 받지 않고 길을 재촉하려던 고시생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권하는 어머니 같은 자비명상 봉사자들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주먹밥을 나누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봉사자들이 지나가는 고시생들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될 만큼 길게 줄이 생겨났다. 주먹밥 부스 한켠에서는 허기가 진 듯 바로 밥을 먹는 고시생들도 있었다.

이런 고시생들에게 마음충전소 노량진점 소장 등명 스님은 마가 스님의 '마음충전' 책에 힘이 되는 문구를 써 함께 전달했다.

스님이 고시생들에게 써주는 문구는 특이했다. 호칭을 고시생들이 되고 싶은 직책으로 써주고 있었다.

"밥이 배를 채운다면, 책은 마음을 채웁니다.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힘들 때는 책에 있는 좋은 문구를 보며 기운을 내세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공무원 시험 중인 김지영 씨에게 등명 스님은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무원님이라고 부르겠다"며 '김지영 공무원님에게'라고 정성스럽게 글을 써주며 말했다.

김 씨는 "불교 종립인 동국대를 다닐 때도 스님들을 보고 불교 학교인 것은 알았지만, 불교계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지는 몰랐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에 비타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주먹밥 나눔에는 다른 고시생들도 참여했다. 주먹밥 나눔에 동참한 마음충전소 1호 회원 송연주 씨는 이제 막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들어간 고시초년병이었다.

송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노량진에 오니 그 무엇보다 마음의 불안감이 컸다. 우연한 기회에 마음충전소를 알게 됐고, 틈틈이 충전소에 다니며 힘을 얻고 있다"며 "평소에 고마운 점을 회향하고 싶고, 또 다른 고시생들에게도 이런 마음쉼터를 알리고 싶어 오늘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씨는 "딱히 사찰에 나가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는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다. 공무원 시험 후에는 불교 공부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벽부터 이날 배포한 주먹밥을 만든 보광심 김경숙 씨는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식 같다. 허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아이들한테 밥을 짓듯이 밥을 만들었다"며 "불교를 알리는 일도 무조건 불교가 좋다고 믿으라고 하고, 불교 경전을 보라고 해서는 안된다. 불자들이 우리 이웃들이 힘들 때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일 때,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더 알리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먹밥 나눔은 30분 만에 끝이 났다. 고시생들이 너도나도 받아가 준비한 주먹밥이 금방 동이나기도 했지만,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짧은 시간에 끝마쳤기 때문이다.

멀리 수원에서 온 YES봉사단의 조성학 씨는 "새벽부터 준비를 했지만, 처음에는 미처 주변 상인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진 못했다. 다행이 구청 중재와 상인연합회 측의 양해로 이뤄질 수 있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려있지만 어려운 형편의 고시생들을 위해 조금씩 양보해줘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등명 스님과 봉사자들은 주변 상인들에게 고마움을 담은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짧은 나눔 끝에 이들은 다시 마음충전소에 모였다. 스님의 지도 아래 봉사자들은 차분히 자비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정견 최기욱 씨는 "공무원 출신으로 특히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고시생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며 "보다 많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불자들이 조금씩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10여 불자, 고시생 보살펴
주먹밥 나눔에, 책도 보시
마음충전소서 청년 힐링 전개
"힘든 고시 생활의 비타민"

"청년세대 마음 어루만질 터"

마음충전소 운영하는 마가 스님



마음충전소에는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인 마가 스님의 원력이 담겨 있다. 스님은 강남 지역에 명상센터를 알아보던 중 한 할머니의 아들이 9년간의 고시공부 끝에 자살했다는 사연을 듣고 노량진에 마음충전소를 열게 됐다. 21살에 출가한 마가 스님 역시 젊은 시절 가족을 등진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힘들어하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노량진에서 10만명의 청년들이 헤매고 있는데 그동안 불교는 무엇을 했는가, 스님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야 말로 소외된 이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충전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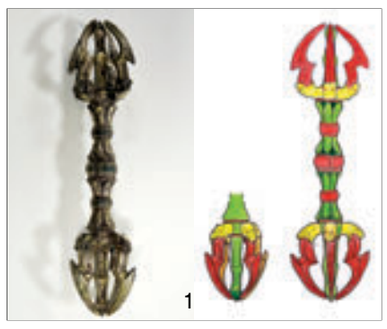
마음충전소는 앞으로 마음 트레이너 양성, 상담 매뉴얼 및 사운드 테라피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마가 스님은 "청년실업, 세대갈등 등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이들에게 한발 다가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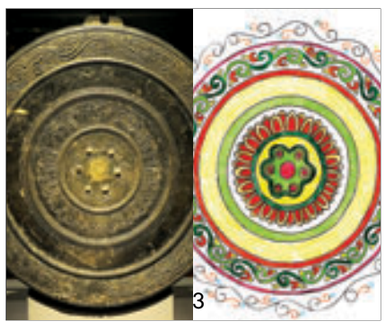
한성백제아카데미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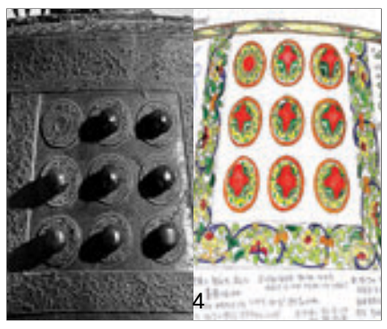
“불교공예품서 불교의 절대적 진리 보자”


1


2-1


2-2


3


4

2012년 서울 도봉서원터 발굴 현장에선 조선시대 유교서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교 용구들이 77점 발굴됐다. 그 중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금강령, 금강저와 같은 국보급 고려시대 불교 문화재들이 있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중 출토된 국보급 문화재인 금동제 금강령과 금강저를 비롯한 고려시대 불교용구 79점을 모두 선보이는 최초의 전시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 영국사와 조선시대 도봉서원’에 대한 전시 연계 강연회도 개최했다.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연구원장은 4월 3일 한성백제박물관 강당에서 ‘고려 불교 의기의 형태와 상징’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 원장은 “불교공예품에서 세계 최초로 상징을 밝혀내고자 한다”며 “공예품을 조각이나 회화보다는 낮게 보지만, 그 장르가 무관하게 불교의 절대적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주제 : 고려 불교 법구의 형태와 상징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고려시대의 금속공예는 거의 모두 불교와 관련돼 있습니다. 도봉서원과 영국사가 겹쳐진 유적에서 발굴을 통해 발견된 금속공예 일괄은 특히 큰 청동기 솥에 함께 넣었던 것으로 보아 불교 의식 때 썼던 의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괄 의기로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걸친 영국사 터 위에 조선시대의 도봉서원을 지었으므로 불교를 탄압했다고 하더라도 고려시대에 쓰였던 의기들은 신성한 것이므로 큰 청동 솥 안에 다수의 청동향완, 청동합 등을 넣어 보호한 것입니다. 옆에 청동유개호가 있었고 청동화로, 청동대야는 그 위에 거꾸로 덮인 상태로 출토 됐습니다. 오늘은 이들 가운데 몇 가지 법구들을 택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강저(金剛杵, Vajra)

승려가 수법(修法)할 때 쓰는 법구(法具)의 하나입니다. 본디 인도(印度)의 무기(武器)입니다. 밀교(密敎)에서 번뇌(煩惱)를 깨뜨리는 보리심을 뜻하므로 이를 갖지 않으면 불도 수행(修行)을 완성하기 어렵다 합니다.

금강저는 점차 무기의 성격보다는 여래의 금강과 같은 지혜로써 능히 마음속에 깃든 어리석은 망상들을 파멸시키는 보리심을 상징합니다. 주로 밀교에서 금강저를 특히 중요시하여 의식과 수행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금강저는 금강령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금강저로는 국립 중앙 박물관에 길이 22㎝의 고려시대 청동5고금강저가 가장 오래된 금강저로 소장돼 있으며, 일반 사찰에서 조선 시대의 금강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사경. 변상도에는 가장자리를 금강저문(金剛杵紋)으로 장엄한 예가 자주 나타나며, 현존 신중탱화에서는 대부분 금강저를 볼 수 있습니다.

■반자(盤子)

금속으로 만든 북의 일종으로 사찰에서 사용하는 불구의 하나입니다. 옛날 군대에서도 사용했으나 사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구(佛具)의 일종이죠. 형태는 농악기인 징과 비슷하며 금구(金口 또는 禁口)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연대가 확실한 것으로는 함통육년명금고(咸通六年銘金鼓:865년(경문왕 5))로 현존하는 금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운판

운판(雲板)은 장판(長板) 또는 판종(板鐘)이라고도 불리는 절에서 쓰이는 의식용 법구의 하나로, 철 또는 청동으로 만들어지며 외곽의 형태가 구름 모양을 하고 있어 운판이라고 했습니다. 용의 굴곡진 몸체를 운판의 외형으로 삼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한다거나 마치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불꽃의 광배형(光背形)으로 구성한 경우 등 매우 변화 있게 처리했습니다.

■범종(梵鐘)

범종의 신앙적인 의미는 종소리를 듣고 법문을 듣는 자는 오래도록 생사의 고해(苦海)를 넘어 불과(佛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범종은 불교적인 금속공예품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는 특수한 종류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으로 밝혀진 것은 오대산(五臺山)의 상원사동종(上院寺銅鐘)입니다.

한국종의 특징은 무엇보다 우아하고 안정된 외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그 소리도 매우 은은하고 맑습니다. 고려시대의 범종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천흥사 동종(天興寺銅鐘)이 있으며 1010년(현종 1)에 제작됐습니다. 고려시대의 범종으로는 1058년의 청녕4년명 동종(淸寧四年銘銅鐘)과 1222년(고종 9)에 조성된 내소사 동종(來蘇寺銅鐘) 등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금속 불교법구

우리가 불교금속공예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작품들의 본질에 이르기 위해서는 용어들의 개념을 올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여 연구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불교미술을 불교사상과 함께 거의 추구하지 않아서 더욱 법구들의 본질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용(龍)

저는 동서양의 무한히 많은 용의 조형들을 분석하여 용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용은 동물이 아니고 대우주의 기운을 동물 모양으로 압축하여 나타낸 것으로 용의 조형 일체가 다양한 영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주의 집적(集積)입니다. 그래서 보주의 입에서 무량한 보주가 생겨납니다. 또한 다양한 영기문이 생겨나서 만물생성의 근원을 이룹니다. 영기문은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연속무늬로 우리가 당초문이라고 부르는 조형들도 영기문에 포함됩니다.

■보주

보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주 또한 대우주의 기운을 압축한 것으로 모양은 역시 여러 가지이나 구체(球體)로 흔히 표현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보주는 보석이 아닙니다. 보주 안에는 무량한 보주가 들어 있으며, 보주 안에는 무한한 바다[물]가 들어가 있으며, 보주 안에는 무수한 여러 가지 영기문이 가득 차 있기도 하여 이들이 보주에서 나와 만물생성의 근원을 이룹니다.

■연꽃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연꽃은 연꽃이 아닙니다. 고구려 벽화의 천정에 있는 연화는 연화가 아닙니다. 연꽃모양에서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인 씨앗은 조형적으로 승화되어 보주가 되는데 씨앗이 보주가 된다는 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의 ‘씨앗들=보주’에서 연잎 같은 영기문이 사방으로 확산해 나가는 형상입니다. 모든 꽃은 씨앗을 품고 있어서 모든 꽃은 보주를 품고 있다는 진실을 알면 고대 미술이 모두 올바로 풀립니다.

■당초문→영기문

세계미술에는 국화 당초문, 연 당초문, 모란 당초문, 포도 당초문, 인동 당초문, 보상 당초문 등 당초문이란 모양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한 당초문이 단지 덩굴무늬가 아니고, ‘만물생명이 생성하여 가는 과정을 지닌 영기문’임을 알게 됐습니다.

■화생(化生)

화생과 탄생은 전혀 다릅니다. 탄생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생김’이고, 화생은 조형예술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초자연적 생김’입니다. 화생의 개념을 올바로 설명한 사람은 아직 없는데 저의 방대한 이론이 바로 〈영기화생론〉입니다. 미술사학에서 스스로 증명하며 정립한 이론을 제시한 경우는 아직까지 동서양에 없었습니다.

이제 작품해독법인 ‘채색분석법’으로 분석하여 가며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금강저의 채색분석〈사진 1〉

금강저는 밀교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금강저의 조형은 그 전개 원리가 있으므로 채색분석이 가능합니다. 중앙의 보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보주에서 번개가 뻗쳐나가는 것이니 ‘금강저는 바로 여래’입니다

■금강령의 채색분석〈사진 2-1〉

금강령은 위로는 용의 입에서 번개가 뻗쳐 나오는 형상이고, 아래로는 령(鈴), 방울이 생기는 형상이지만 실은 작은 범종입니다. 혀는 물고기이지만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 입에서 보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상징하므로 물에서 용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민화에 많이 나옵니다. 종소리는 부처님이 말씀으로 진리의 소리죠. 이 역시 밀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금강령에는 매우 많은 불상[五大明王]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불상마다 주변에 제1영기싹 영기문이 많아 그 영기문에서 불상과 사천왕상이 화생하는 것입니다.

■금강령 혀인 물고기의 채색분석〈사진 2-2〉

금강령의 혀인 물고기는 따로 다룹니다. 물고기는 입에서 보주가 나오려 하죠. 이것으로 보아 물고기와 용은 속성이 같습니다. ‘물’을 상징하는 물고기와 용은 그 입에서 보주와 영기문이 나오는데 모두 만물생성의 근원이죠. 물고기 입의 보주가 ‘방울=종’을 치는데, 우주의 압축인 보주가 방울을 쳐서 소리를 내므로 그 소리는 우주의 소리, 우주에 가득 찬 진리의 소리임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용이 화생합니다.

■반자 혹은 금고의 채색분석〈사진 3〉

반자는 악기의 일종으로 만병(滿甁)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가득 찬 보주기도 합니다. 반자의 중심에는 연꽃모양이 있는데 씨앗이 많은 보주로 승화하여 무량한 보주가 됩니다. 범종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좌, 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기문이 있습니다. 당초문이 절대 아닙니다. 영기문은 생명생성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자의 소리가 진리의 소리라는 것을 웅변합니다. 반자에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영기문을 베풉니다. 반자의 무량한 보주를 침으로서 우주에로 무량한 보주와 영기문이 퍼져 가득 찹니다.

■천흥사 범종의 보주곽의 채색분석〈사진 4〉

연꽃잎 모양의 씨방 자리에서 네 잎이 받쳐 든 큰 보주가 화생하고 있습니다. 씨앗들이 보주로 승화하여 발산하려는 광경입니다. 9개가 있는데 9는 양수 가운데 가장 큰 수로 무량한 보주가 발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변 띠에는 복잡한 영기문이 둘려져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되 정교한 영기문으로 범종을 만든 장인은 영기문의 전개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화시키면 제1영기싹이 연이어 전개하는 영기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생성의 근원들을 표현하는 것은 범종이 여래의 몸이며 종소리가 여래의 설법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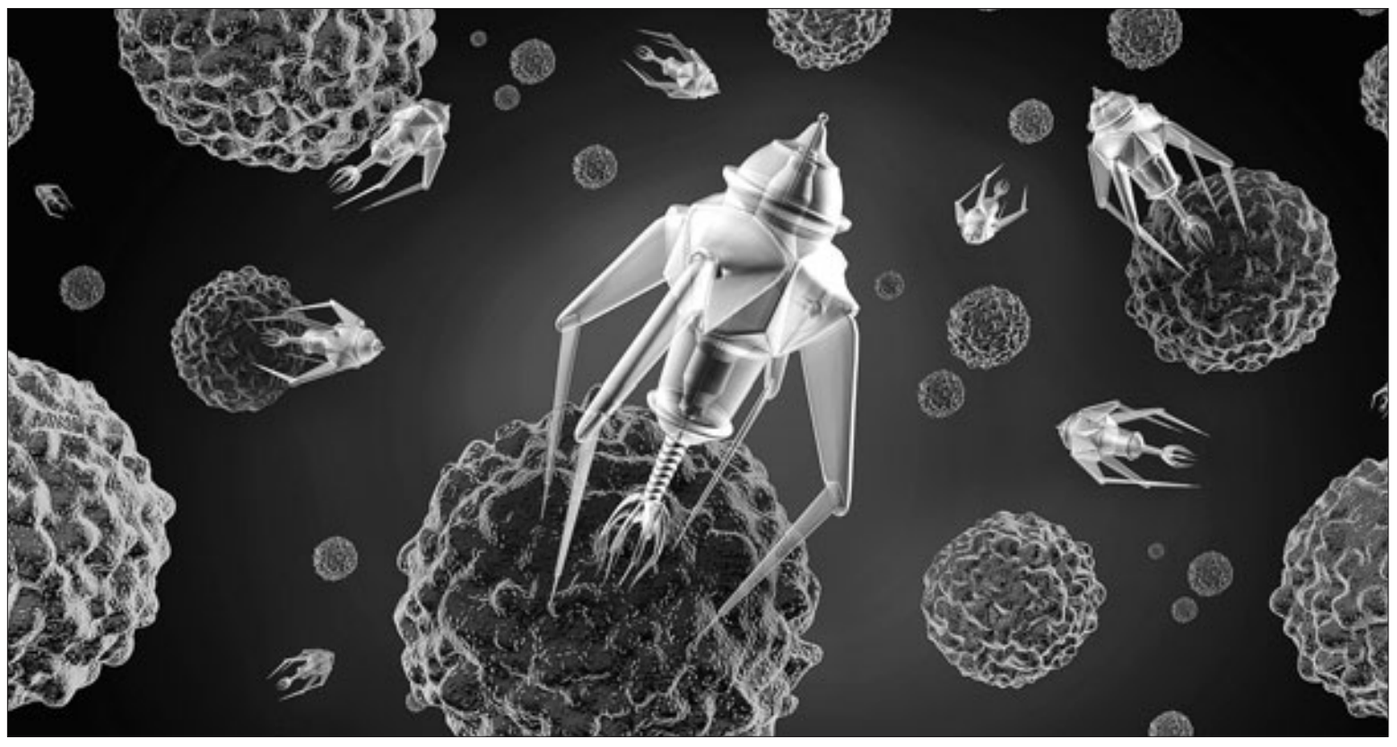


강우방 원장은… 서울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고고인류학과에서 수학했다. 일본 교토국립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에서 동양미술사를 연수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68년 이래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과 학술사, 학예연구관,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및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영원에 대한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

⑦ 나노기술과 불멸에 대한 욕망



인류의 역사상 요즘처럼 사람들이 건강과 장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그러한 투자의 보답으로 남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살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강하게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을까? 인간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종국에는 죽는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세부적인 문제들로 해체함으로써 얼마든지 늙는 것을 막고 죽음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인간 대중들은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깅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좋은 지방을 섭취하려고 애쓰고, 먹거리를 선택할 때 원산지나 성분표시를 세심히 살피고, 몸에 좋다고 하는 차를 마시고, 종합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매일 챙겨 먹고, 슈퍼푸드(superfood)에 대한 기사를 꼼꼼히 챙겨본다. 건강에 관련된 매체뿐만 아니라 어떤 매체에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난다. 이러한 정보를 접하다 보면 건강이나 죽음이 정말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불로장생에 끊임없는 추구

유사 이래 인간은 불로장생을 기대하고 불멸을 흠모하였다. 세계 각지의 신화와 종교는 거의 모두 불멸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신화와 종교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불멸이다.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기만하는 등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한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권능을 이용하여 모범적이지 않은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과 인간이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인간과 달리 불멸한다. 그래서 머리를 쪼개도 죽지 않는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Athena)는 올림푸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머리를 가르고 태어났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수메르인들의 신화 속 최고 영웅 길가메시(Gilgamesh)는 영생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길가메시 신화는 거꾸로 인간에게 불멸은 도달할 수 없는 허황된 꿈에 불과하며 죽음은 인간의 운명임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이집트 문명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피라미드와 미이라는 불멸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열망을 나타내준다. 이집트 신화의 대표적인 신화인 오시리스(Osiris) 신화는 영생에 대한 갈망의 표현인 미라의 기원을 설명해준다. 미이라는 죽은 자가 저승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은 의식이다.

중국의 진나라 황제가 불로초를 얻기 위해 사방으로 선남선녀를 파견한 이야기는 나무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가면 정방폭포 암벽에 새겨진 서불과지(徐市過之)라는 글귀를 볼 수 있다.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찾아 제주에 왔던 서복(서불)이 다녀간 기록이라고 한다. 서귀포라는 지명도 서복이 글귀를 새겨 놓고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생겨난 명칭이라고 한다. 중국의 도교에는 불로불사의 영약인 금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불멸에 관한 인간의 욕망은 수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불로장생과 불멸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높다. 2005년 개봉된 영화 〈아일랜드〉는 인간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소재로 했다.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셀프리스〉에서는 노쇠한 몸을 건강한 사람의 몸으로 교체함으로써 불로장생할 수 있는 기술을 상상적으로 보여준다. SF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서는 인간의 몸을 기계 몸으로 교체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걱정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이보그가 됨으로써 거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노기술을 통한 불멸의 추구

최근에 등장한 과학기술 가운데 불멸성에 대한 추구와 가장 관련이 깊어 보이는 것은 역시 나노기술(nanotechnology)이다. 나노기술은 불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기술은 아니지만 나노기술에 대한 미래적 전망 속에 불멸을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나노기술은 1-100나노미터(10-9미터)의 극미세 단위의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는 개인용 컴퓨터의 탄생을 가져온 마이크로 칩이다. 칩은 마이크로 수준에서 물질을 다루는 기술의 산물이다. 나노 기술은 이보다 1000분의 1 작은 규모에서, 이른바 분자 이하의 단위에서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다. 이렇게 초미세 수준에서 물질을 다룸으로써 우리는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물질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중세 시대 연금술사들의 꿈이 일부 과학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영생위한 마음이 기술발전 이뤄
육체적 젊음 외 정신의 젊음 필요
'무상' 알 때 새로운 자유 열려

나노기술은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물질보다도 강도가 높고, 탄성이 월등히 크고,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훨씬 더 가벼운 물질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표적인 나노구조물인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는 인장력이 매우 뛰어나서 이것을 이용하면 지상과 우주정거장을 잇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까지 가능케 한다. 또 스마트 나노물질로 표면 처리되어 청소가 따로 필요 없는 마룻바닥이나 벽면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나노기술이 응용되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 의료, 군사,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매우 다양하다.

의료 분야는 나노기술의 최대 성과가 기대되는 영역이다. 이른바 나노의학은 의료 분야의 혁신을 불러 오고, 장기적으로 의료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약이 필요한 곳에만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게 약물전달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약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정밀 진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경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나노의학의 마지막 단계는 분자 수준에서 세포를 치료하는 나노봇이다. 오래 전에 파인만(Richard Feynman)이 한 연설에서 '기계 외과의사' 처럼 작동하는 '미세 기계' 를 언급함으로써 나노봇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는 '모세관을 따라 이동해서 살아있는 세포로 들어가 치료하는 극소 기기' 를 드렉슬러의 접근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드렉슬러의 기대대로 된다면, '질병을 치유하고, 노화를 되돌리고, 우리 신체를 과거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노의학' 의 저자인 로버트 프레이타스(Robert Freitas)는 적혈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공적혈구, 인체에 침입한 병원체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보다 더 잘 발견하고 파괴하는 인공 대식세포, 신체 안에서 수술을 하는 수술용 나노봇, 필요한 세포에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하는 인공제약세포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노의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프레이타스의 예상대로 세포를 수복하는 나노봇이 등장한다면 인류는 불멸을 얻게 될 것이다. 나노봇 덕분에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질병이 없게 되며, 웬만한 신체적 손상은 손쉽게 회복될 것이다. 세포를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서 끝없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기술을 통한 불멸 추구에 대한 불교적 반성

최근 이른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거론하고 있는 기술을 통한 불로장생과 불멸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공학적으로 접근한 결과에 의존한다. 죽음을 과거처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술적 혁신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믿음에 암암리에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라이너스 폴링이 생명을 분자들 간의 관계로 본 견해를 생각나게 한다. 이런 사고는 인간의 몸을 기계라고 이해한 데카르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콩도르세 또한 과학의 진보를 통해 인간의 수명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노기술을 활용해 불멸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먼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양의 근대적 사고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사고의 바탕에는 삶의 일회성에 대한 기독교적 가정이 깔려 있다. 불교적 사고는 죽음을 일회적 모순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사윤회의 한 고리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완전한 소멸로서의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무상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으며,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생과 사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모든 존재는 생과 사를 거듭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고 죽는 것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본성이다. 그래서 생과 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무상성을 이해한다면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불멸에 대한 욕망도 사라질 것이다.

나노기술을 통해 추구하는 불멸은 무엇의 불멸인가? 그것은 신체의 불멸이다. 육신의 생명을 끝없이 이어가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다. 신체의 불멸은 곧 욕망의 불멸을 뜻한다. 권력이건 돈이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진시황이 다리 밑에 기거하며 하루에 한 끼니를 먹기 어려운 처지였다면 불로초를 구했겠는가? 그런데 불교에서 최고의 목표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 번뇌와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는 해탈에 있다. 불교는 끝없이 변화하고 생멸하는 생의 연속성에서 해방되고,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원토록 오래오래 육신을 유지하고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불멸에 대한 욕망은 지금, 여기를 영속적으로 붙잡으려는 것이다. 연기하는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어, 불생불멸(不生不滅) 불상부단(不常不斷) 불일불이(不一不異) 불래불거(不來不去)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극단의 어느 하나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불멸에 대한 추구는 무상한 인생에서 한 상태를 붙잡으려는 무모한 시도이다. 모든 존재는 그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인데,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여 현재의 상태, 혹은 가장 선호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고정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취될 수도 없을 듯하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한 한 순간의 상태나 형태를 붙잡으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제법무아(諸法無我), 흔히 나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하여 고정불변의 실체란 없다. 불멸에 대한 추구는 바로 없는 그것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이상헌(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제118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 재 : 2018년 4월 29일 (음 3.14) 일 오전 10시
회 향 : 2018년 4월 30일 (음 3.15) 월 오전 10시
장 소 : 범어사 금강계단
동참금 : 3만원
접수 및 문의 : 원주실 051)508-3636

金剛戒壇

전쟁 피했지만 도굴 대상된 불화·불상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⑦ 구례 천은사의 도난 성보들





1988년 도난된 구례 천은사 지장보살도(사진 왼쪽). 동일로 추정되는 불화가 서울의 한 대학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사진 오른쪽 참조) 현재 대학 박물관 소장 지장도는 화기가 지워져있다. 하지만 동국대 소장본 재산대장에 해당 불화를 그린 불화승이 색민 스님으로 기록돼 있어, 동일 불화임이 확인된다면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높다.

한국전쟁 피했던 구례 천은사
1970~2000년대 도굴로 몸살
지장보살도 등 4건 도난 신고

지장도, 불화승 색민 스님 조성
동일 불화 대학 박물관서 소장
근대 재산목록 비교 연구 필요

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은 인적이나 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역사적 사건이다. 특히, 지리산이나 태백산 등지의 사찰이 북한군이나 빨치산들에게 이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상당히 많은 사찰이 우리 군에 의해 파괴되었고, 북쪽에 있던 사찰들은 미국의 폭격으로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정부와 군부의 판단이 결국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 사례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평창 월정사, 남양주 봉선사, 구례 연곡사, 양평 용문사 등은 불교문화재의 보고였던 사찰이지만 전쟁 중에 폭격을 당하거나 화마로 인해 귀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진 대표적인 사찰들이다. 이는 사찰이나 성보들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부정한 것이고,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던 군인이나 민병대들이 실제적인 파괴의 주범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빨치산들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 하동 쌍계사 등이 소실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전쟁의 포화에서 살아남은 사찰의 성보들은 1970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도굴범들이 성보를 훔치는 공간이 되었음이 이 땅의 아픈 역사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보를 지키려는 많은 스님들이나 신도들의 노력으로 현재 한국미술사에서 불교문화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산 3대 사찰의 하나인 천은사는 한국전쟁 중에 피해를 입지 않은 사찰이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성보들이 도난당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에서 2016년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는 목조나한상(도난 일시 1988.2.23), 지장보살도(1762년 作, 1988.7.14), 목조아미타여래좌상(1991.4.11), 신중도(2000.9.31) 밖에 없다. 문화재청에 신고된 도난문화재 품목에는 이외에도 위폐 2점과 인폐 2점이 적혀 있다. 위폐와 인폐는 나무로 만들어진 불패와 원패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3건의 재산대장을 상호 비교해 보면 없어진 성보의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천은사는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 서남쪽에 있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다. 사찰은 828년에 인도 승려 덕운(德雲) 스님이 창건하였는데, 정원에 정신이 맑아지는 샘물이 있어서 처음에는 감로사(甘露寺)로 불리었다. 875년에 도선국사(道詵國師, 827~898)가 중건하고, 고려시대 충렬왕대에 '남방제일선찰(南方第一禪刹)'로 승격되었지만, 여말선초의 사찰 연혁에 관한 문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연혁은 알 수 없다.

임진왜란으로 사찰이 모두 전소되고, 전쟁이 끝난 1610년에 혜정(惠淨) 스님이 중창을 시작하고, 1679년에 단유(袒裕) 스님이 전각을 중건한 후에 천은사라고 사찰 이름을 바꾸었다. 1774년에 혜암(惠庵) 스님이 화재로 소실된 전각을 남원부사 이경륜(李敬倫) 등의 도움을 얻어 중창하였다. 현존하는 전각은 18세기 후반에 중건된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팔상전, 응진당, 칠성각, 삼성전 등이 남아있다.

1988년 7월 14일에 사찰에서 도난당한 지장보살도는 1762년에 제작된 불화로,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을 삼존으로 배치하고, 옆으로 육광보살(六光菩薩)을 각 3위씩 그린 간단한 구도의 작품이다. 지장보살은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한 자세이고, 스님과 같이 머리는 민머리에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채 보주를 들고 있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으며, 그 옆으로 육환장이 세워져 있다. 설채법은 적색, 군청, 녹색을 주조색으로 본존의 신광과 천의에 하엽(荷葉) 계통의 문양을 그린 것이 특징적이다.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백색으로 안면을 칠하고, 먹 등을 사용하여 음영을 나타낸 반면, 지장보살과 육광보살은 황색조의 안료로 칠을 하였다. 지장보살의 복식에만 금박을 사용하고 그밖에 황색은 석자황 계통의 안료를 혼용하여 마치 금을 사용한듯 한 효과를 냈다. 복식의 외면부를 장식하는 다양한 패턴의 문양 표현이 특이하고, 얼굴의 표현, 문양과 안료의 조합, 채색 구름 등이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한 불화승들의 양식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불화가 서울의 모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불화는 '조선시대 불화전'(1990년)과 '내세에의 염원'(2013년)에 개최된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 두 작품은 지장보살의 오른손 뒤쪽의 신광 일부에 물이 흘러내려 오염된 상태가 동일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재산대장 3건 중에 1932년 11월 30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소장품 목록에 "지장정(地藏幀) 1점 견제(絹製) 괘도(掛圖) 세로 7척5촌, 가로 8척7촌",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본에 "지장보살상정(地藏菩薩像幀) 1점 견지(絹地) 집합(集合) 세로 7척5촌, 가로 8척7촌 색민(色旻) 천은사"라고 적혀 있어 규격은 가로 8척7, 세로 7척5촌(가로 263.6㎝, 세로 227.35㎝)이라 서울 모 대학박물관 소장 지장보살도(가로 278.5㎝ 세로 231.5㎝)와 크기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존상들의 자세와 옷에 그려져 있는 문양이나 설채법 등이 동일하다. 그러나 대학박물관 소장 지장보살도는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정도로 유물 설명을 쓴 것으로 보아 화기(畵記)가 지워졌거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이 동국대 소장 재산대장에 필서된 내용과 같이 불화승 색민 스님이 조성한 작품이라면 그 문화재적 가치는 아주 높아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이 가능하다.

불화승 색민은 1741년에 전남 곡성 도림사 불화부터 1775년 장성 백양사 불화까지 34년 동안 21점의 불화를 그린 스님이다. 색민 스님은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승(畵僧) 의겸(義謙) 스님의 화풍을 계승한 인물로, 1745년부터 의겸 밑에서 나주 다보사 괘불도(1745년), 부안 개암사 괘불도(1749년), 화엄사 삼신불도(1757년)를 조성하였고, 1749년에 구례 천은사 칠성도에서 의겸 다음으로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인연으로 1762년에 천은사 지장보살도를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색민 스님은 1764년에 해남 대흥사 불화 조성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였고, 1755년에는 〈순회세자상시봉원도감의궤〉 비석소 화승(畵僧)과 1761년에 장흥 보림사 신법당 단청 조성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천은사 지장보살도는 작품성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 불교회화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천은사에서 도난당한 목조나한상(1988년 2월 23일)은 1693년에 조성된 작품으로, 17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색난이 만든 강진 정수사, 구례 화엄사, 고성 옥천사 등에 소장된 목조나한상과 양식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조성 작가의 추정이 가능하다. 도난 신고된 나한상의 숫자가 달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들이 도난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는 해당 사찰에서 지금이라도 사진을 구해 문화재청에 보완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1991년 4월 11일에 도난당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도난 신고된 자료에 사진조차 없어서 어떤 유물인지 특정할 수 없다. 또 2000년 9월 31일에 도난당한 신중도는 작년에 간행된 도난백서에 처음으로 사진이 공개되었다. 천은사에 소장된 신중도는 1930년대 작성된 재산대장에 2점이 적혀 있는데, 동국대본 재산대장에는 "신중정(神衆幀) 1점 포본(布本) 종 6척4촌 횡 6척4촌 금암"과 "신중정(神衆幀) 1점 견본(絹本) 종 5척 횡 2척7촌 민휘"로 적혀 있고, 현존하는 신중도 화기를 살펴보면 "道光十三年癸巳五月日」敬造神衆幀于七佛寺奉安于泉隱大法堂」證明 退隱大禪師 鳳儀 別座 晶倫」金魚 錦庵片手天如」圓潭乃元」定旺」禹贊」益贊…持殿 斗民」太淵」時住持 永俊」前啣秩…"으로 1833년에 칠불사에서 조성되어 천은사 대법당에 봉안하기 위해 금어(金魚) 금암(錦庵), 편수(片手) 천여(天如) 등이 제작했다는 화기가 남아있어 도난당한 신중도는 불화승 민휘가 조성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재산대장에 '종(縱) 5척, 횡(橫) 2척7촌(세로 151.5㎝×가로81.8㎝)'인 신중도는 화면을 네 단으로 나뉘어 하단과 중단 중앙에서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걸친 위태천이 양손으로 무기를 잡고 있다. 2단과 3단에는 신장과 천녀 등이 서 있고, 가장 상단에 제석과 범천이 서 있는 구도로 19세기에 주로 그려진 전형적인 신중도의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불화승 민휘는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작가라서 그런지 양식적으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3건의 재산대장 중에 가장 자료적 가치가 큰 것은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현재 도난신고된 성보문화재에 관련된 내용은 표로 정리했다.

따라서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사찰의 재산대장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면서 개별 성보를 비교한다면 한국전쟁 이후 도난된 성보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역사학 또는 미술사를 전공했던 선학(先學)들이 사찰을 조사하면서 촬영한 1970~80년대 사진이라도 공개된다면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의 출처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천은사 재산대장, 일제강점기,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명 칭	수량	품질	형상	촌 법	작가와 전래	적요
神衆幀	1	布本	集合	縱 6尺4寸 幅 6尺4寸	錦庵 泉隱寺 傳來	
地藏菩薩像幀	1	絹地	集合	7寸5分 8尺7寸	色敏 泉隱寺	
十王幀	10	絹地	集合	4尺8寸 橫 2尺8寸	〃	
童子像	4	木彫粉粧	立像	高 2尺	未詳	
羅漢	16	木彫粉粧	坐像	高 3尺 寸	〃	
神衆幀	1	絹地	集合	縱 5尺 橫 2尺7寸	敏徽 泉隱寺	



세계불교도의 정법수호연대 발족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 최고 고승 및 지도자
대종사. 종사들의 법석



한국불교 지도자들 중에 종단을 불문하고 대종사. 종사 품수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불교 최고 지도자들의 법석을 통해 서로 상호간에 상견례와 대의를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천하며,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는 뜻 깊은 법석에 큰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고 중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명예총재 : 금산 큰스님. 총재 : 목탁 대승정
재가자국제교류불자회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준비위원 : 혜승. 혜선. 성각. 정오. 청운. 심오. 법산. 상운. 대공. 법운. 송운. 송몽. 묵하
봉행위원장 혜정 대종사
대 회 장 인경 대종사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10시 30분 정각 ■ 장 소 : 용산 백범기념관

주최 : 한국불교정법수호연대. 한국불교 대종사, 종사 연합협의회 | 후원 : 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 02)733-5665. 010-3618-6061 / 팩스 02)733-5615

※ 자리 배석 관계로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 및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새 신도 관리, 초심자 안내부터 시작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⑦ 신도관리 혁신



사찰로 들어가는 불자들의 모습. 친절한 안내와 신행모임 소개 등이 필요하다.

수학여행 혹은 관광 이외에는 사찰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에게 종교에 의존할 일이 있어서 혹은 누군가의 권유로 인하여 "오늘 절에 한번 나가보고 절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라고 결심하였다면, 이것을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아니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만일 그가 기독교 신자라면 불자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을 해보려는 시도일 수 있다. 다른 사찰에 다니던 불자가 이사를 비롯한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찰을 찾는 경우라도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다닐 사찰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누군가 어떤 사찰에 다니고자 마음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작 각 사찰에서는 새 신도를 맞이하는데 대한 고민과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대부분의 사찰은 새 신도에 대해 무관심하다. 특히 기존 불자가 아닌 초심자는 혼자서 물어물어 법회시간을 알아내고, 법회장소를 찾아내고, 눈치로 주위 사람들을 따라서 법회의식을 치루고, 내용도 잘 모른 채 어려운 법문을 들어야만 한다. 때로는 주변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데서 오는 불편함에 대중공양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기도 한다. 그렇게 산문을 나서 집으로 가는 초심자의 마음속에는 불교에 대한 어려움과 사찰에 대한 어색함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사찰을 찾아올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지금까지의 기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새 신도는 새로 특정 사찰의 신도가 된 사람으로 초심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찰의 기존 신도일 수도 있다. 초심자란 불교에 입문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찰의 기존 신도가 특정 사찰의 새 신도가 되는 것은 이사에 의하여 사찰을 옮기는 경우와 특정 사찰 및 스님에 대한 선호로 인해서 사찰을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찰은 이들 모두를 사찰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관리'라는 용어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사찰에서 신도를 대하는 것은 기업에서 이윤을 위하여 고객을 대하는 행위, 조직에서 사람을 지휘 · 감독하는 행위, 혹은 시설이나 물건을 보존 · 개량하는 행위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며, 이에 본고의 신도 관리란 진정한 돌봄, 그리고 개인적 돌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량으로 신도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적 행위가 아니라 각 사찰이 손길과 땀방울 그리고 헌신을 기울여 불자로 키워내는 인간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새 신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그 목적을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새 신도를 위한 관리는 불교와 사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사찰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불교와 사찰에 대한 이해란 새 신도가 불교와 사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불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불교교리와 불교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찰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찰 역사와 사찰 예절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불교교리와 불교사에 대한 이해는 기복불교(祈福佛敎)를 벗어나 수행불교(修行佛敎)를 하도록 도와 줄 것이며, 사찰 역사와 사찰 예절에 대한 이해는 사찰에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법한 불자가 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사찰에 대한 적응 지원이란 새 신도가 사찰에서 소외감 · 거리감 없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초심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찰에 다니던 신도라도 사찰을 바꾸어 참석하면 소외감과 거리감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새 신도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신도는 법회 등 사찰 행사에 몇 번 참석하다가 심리적 불편함으로 인해 불자가 되기를 포기하곤 한다. 새 신도가 사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찰에 적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찰이 신도 사이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제 새 신도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자. 새 신도 관리 방안으로 신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우리나라 불교신도는 가족의 건강, 경제적 풍요 등을 부처님에게 기원하기 위한 기복을 위하여 사찰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풍토는 자기가 수행을 하여 깨달음에 이르러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새 신도에 있어서 불교가 기복불교가 아닌 수행불교임을 교육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 신행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지만 기복불교를 수행불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도 교육은 불교대학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위사찰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사찰의 여건상 불교대학 운영이 어렵다면 법회에서 일정시간을 불교교리 공부에 배정하거나 불교교리 공부모임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심자 응대부터 변화해야
친절한 신도교육 · 지속관리
신도모임 안내로 애정↑

하지만 불교교리 교육을 바로 실시하는 것은 새 신도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사찰을 나오기 싫어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 신도가 법회에 매번 참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친교적 만남과 지속적인 애정을 통해 적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찰생활에 서툴기 마련인 새 신도는 우선 기존 신도들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에 마음이 끌리고 이를 통해 적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이 새 신도 소개 및 신도모임 안내와 사찰활동 참여권장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면 심리적 불편함과 거리감을 갖게 된다. 발심(發心)하여 사찰에 나온 새 신도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없거나 기존 신도와의 교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대중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사찰에서의 소외감이 심해지면 새 신도는 더 이상 사찰에 나오지 않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회 시간에 새 신도를 소개해 주는 시간을 정례화하거나 사찰의 신도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안내 등을 해야 한다. 사찰에서는 일반적으로 새 신도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신도모임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 신도는 기존 신도와 친분을 쌓거나 신도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만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새 신도를 사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행심을 제고하고 사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사찰에는 경전공부모임 · 수행단체 · 자원봉사단체 · 동호회 등 신도로 구성된 각종 모임이 있다. 신도모임은 주로 신행의 제고와 친목의 도모를 위해 구성된다. 새 신도는 다른 신도와 함께 수행함으로써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도 간에 자연스럽게 교류가 형성되어 사찰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행을 위해 사찰을 다니기도 하지만 교류를 위해 사찰을 다니기도 한다. 사찰은 수행의 장소이자 교류의 장소이다. 사찰활동은 사찰을 수행의 장소이자 교류의 장소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찰활동은 불교의 수행과 사찰의 교류에 익숙하지 않은 새 신도를 정규신도가 되도록 이끌어 준다.

사찰은 새 신도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성장한다. 사찰과 새 신도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새 신도는 다음번에는 사찰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기존 신도도 다른 사람을 사찰에 데려오는 일에 주저하게 될 것이다. 새 신도에게 두 번째 방문을 섣부르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대개 새 신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새 신도가 사찰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그만큼 고민을 하여야 한다.

우선, 자발적으로 찾아온 새 신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새 신도가 겪게 되는 고충을 생각해보라. 새 신도에게 안내를 잘 하고 있는가? 기존 신도들은 새 신도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새 신도의 감정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초심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움을 시도하지도 않고 다음번에는 사찰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사찰을 찾아 떠날 것이다.

다음으로, 새 신도와 더불어 기존 신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존 신도가 주변 사람들을 사찰로 데려오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 주변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에 망설인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 기존 신도가 주변 사람들을 데려 오는 일, 즉 포교에 대하여 아예 무관심하지는 않은가?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관점으로는, 사찰이 새 신도를 더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찰이 지역사회와 잘 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법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찰과 법회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여야 한다. 사찰에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다시 오지 않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가치'이다.

그러면 그 가치란 무엇인가? 너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찰의 법회나 제반 요소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다. 사람들이 법회에 오지 않으려 하는 것은 법회보다 다른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회 때면 집에 있는 것보다 법회를 봉행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회의 가치가 높아지면, 사찰에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도가 법회를 보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적용할 것이 많을수록, 그 법회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이다. 그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사찰을 찾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새 신도가 사찰에 와서 불교가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찰은 포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사찰에 가서라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가치는 기존 신도나 새 신도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찰이 창조하는 가치의 수준을 높일 때, 다른 곳에서 보다 사찰에서 더 귀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찰이 시간을 들여 그 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떠나거나 찾아오지 않음을 책망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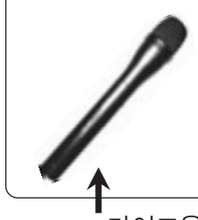
새 신도 개개인이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찰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사찰이 가치를 줄 수 있을 때, 새 신도는 다음번에도 사찰에 나올 것이고, 다른 이웃들도 데리고 올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30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고난 속에 힘 불어넣는 부처님 가르침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⑭ 지장십륜경1 – 지장보살과 츰부다라니

어느 날 나는 부처님의 가호와 가피가 너무나 간절했다. 내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정진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물러날 힘도 없었다. 그 무렵 벌판에 있는 논에 붉은 흙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농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진흙에 가까운 흙이 있는 논을 밭을 만들기 위해선 흙을 바꿔주거나 땅을 깊이 파서 흙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땅이 그 힘을 잃어 좋은 작물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힘을 북돋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땅도 변화하려 할 때나 혹은 힘을 잃으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데 중생이 이런 상황이면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르침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대장경을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특별히 그런 내용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책상위에 둔 일과수행집에서 〈십륜경〉, 서품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벅찬 환희가 차올랐다. 무지개 찾아 떠난 소년이 집에 돌아와 보니 무지개는 거기 있더라는 얘기처럼 나도 그 가르침이 언제나 책상에 있었는데 멀리서 찾느라 애쓰고 돌아다닌 것이다. 거기 그 책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지친 영혼들을 위한 힘을 돋우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다. 평소에 진언독송에 관심조차 없었던 내게 도반들이 열심히 외던 〈츰부다라니〉를 품고서 말이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 줄여서 〈십륜경〉이라 부른다. 당 현장이 번역했고 한글대장경 54권 p288에 수록되어 있다. 전체가 8품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수나라 신행(540~594)이 일으킨 삼계교의 소의경전이다.

〈십륜경〉에서 지장보살은 부처님께 험난한 말세인 오탁악세에서 정법을 전하는 부처님의 법륜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질문한다. 부처님은 관정왕의 십륜(十輪)을 비유로 들어 열 가지 부처님의 힘(十力 - 佛輪)으로 말세의 중생들의 악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사찰의 주지로서 중생교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이 경에 모두 있다. 정치하는 모든 이들은 한 번쯤 이 경을 읽고 지도자가 가야할 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상과 철학을 담은 내용보다 오히려 삶에 힘을 주는 가르침이 더 그립다. 사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처음 불교를 만난 이에게는 다정하게 고민을 해결해주고, 공부와 수행을 하는 이들에게는 한 단계 높아진 가르침을 통해 수행력이 높여주고, 지도자가 될 이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와 그리고 권리에 대해 냉엄한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대기설법의 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살아갈 희망을 잃은 이들에겐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십륜경〉 서품에 등장한다.

부처님께서 거라제야산에서 월장경을 설해 마치실 때, 하늘에서 법의 음성과 함께 아름다운 꽃과 보배장식과 의복이 비처럼 내려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저절로 다 입혀졌고 손에는 각기 여의주가 들려져 있었다. 대중은 너무 놀라 여의주에서 나오는 광명을 바라보니 온 세상 부처님들이 다 모이시고 한량없는 대중들이 공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명으로 인해 모든 병든 이들이 다 나았고, 옥에 갇힌 이들은 풀려나고,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때, 무구생 제석천이 부처님께 누가 이런 신통을 보이는지 그 까닭을 물었다.

"지장보살이지, 그는 과거 무량겁동안 부처님 안 계신 오탁악세에서 중생들을 언제나 돌보았다. 지금도 여래를 공양하려고 왔다가 너무 환희심이 나서 그대들에게 신통력으로 공양한 것이다. 이 보살은 여의주와 같아서 온갖 재물과 보배를 비처럼 내려 중생들이 구하는 바를 따라 그 모두를 만족시켜 준다. 마치 선근을 키워주는 기름진 밭과 같단다. 자, 지장이여, 이제 여기로 나오시라."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수행은 새옹지마 아는데서부터 시작

〈塞翁之馬〉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⑬ 금강경 제 16분의 응용 2

중국의 고사성어(古事成語)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새옹이라는 말은 변방(邊方국경지대)에 사는 노인(翁)이라는 뜻인데, 새옹지마란 인생의 길흉화복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중국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가장 애지중지하여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말이 집을 나가 버렸다. 그러나 이 노인은 그리 실망하지 않았다. 주위사람들이 위로 하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도 있지"하며 낙관하였다. 과연 이 노인의 낙관대로 집을 나간 말은 또 한 마리의 말을 끌고 들어온 것이었다.

노인은 별 반응 없이 "인생의 길흉화복은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아야 알게 되겠지요"라고 대답할 뿐 전혀 들뜨지 않았다. 정말 노인의 말대로 새로 들어온 말은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노인의 아들이 새 말을 타다 낙마하여 다리가 골절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참 아니 되었네요"라고 위로하였다. 이 위로에도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길흉화복은 알 수 없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후 나라에서 큰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로 징집되었는데, 전화위복이라 할지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은 용케 징집에서 면제됐다.

이런 사실을 두고 삶의 길흉화복은 알 수 없다 하여 새옹지마라는 말이 탄생된 것이다. 새옹지마라는 고사성어와 금강경 16분을 같이 연관지어서 살펴 본다면 길한 일, 흉한 일이란 것이 본래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 길(吉)이 흉(凶)으로 변하기도 하고 흉이 길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변방에 있는 노인은 역경이 있을 때 역경이라 이름 짓지 아니하였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강경 제 16분의 말씀을 활용한 것이었다.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 〈금강경〉을 수지독송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기고 천대를 받게 된다면 노인이 애지중지하던 말을 잃어 버려 괴로운 심정을 금강경 16분의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에 비유할 수 있다.

노인은 주위사람들의 위로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도 있지"하며 낙관하였는데, 이러한 낙관을 〈금강경〉에서는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으로 표현하였다. 수지독송하는 마음, 즉 늘 부처님 향하는 마음이 나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관하게 만든 것이다. 이 낙관은 결국 좋은 일을 불러 오게 하였다.

일찍이 선지식께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하신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도 일본사람을 무시하며 또 증오한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은 항상 일본에 피해를 준 적이 없음은 물론 늘 우수한 문화를 전달하여 왔는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를 괴롭혔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일본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원인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 조상이 일본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을 어떤 원인을 제공했음을 알게 된다. 우리 조상이 일본을 침략하지 않았고 훌륭한 문화를 전달하여 도와준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사람을 형편없이 무시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금세인(以今世人) 경천고(輕賤故) 선세죄업(先世罪業) 즉위소멸(則爲消滅)'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기고 천대를 받는 연고로 전생의 죄업이 바로 소멸된다. 그러나 금강경의 말씀처럼 들뜨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 내리막길을 가게 하는 원인임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아들은, 낙마의 역경에 남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선세죄업으로 알고 즐겁게 받아들였기에 다시 좋은 일을 불러왔다고 하겠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生死의 일은 크며 無常은 신속하다

생사어시(生死於是) 시무생사(是無生死)라, 죽고 사는 것은 마음에서 나왔으니 시심마의 시(是)에는 생사가 없는 것이다. 가고 옴이 없는 생사가 일여(一如)한 본성(本性)에 주(住)함이 여래(如來)의 참모습이며 망상(妄想)을 벗어난 우리의 본래 자성(自性)자리 이다.

〈신심명〉에 보면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망상(妄想)이고, 일심불생(一心不生)이면 만법무구(萬法無垢)요 무구무법(無垢無法)이면 불생불심(不生不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생각도 난 바가 없으면 만법(萬法)에 허물이 없고, 마음이 오염서 벗어나면 법도 없고, 난 바가 없으면 마음 또한 없는 것이며, 만법을 대하되 자기 욕심을 내지 않음이니 탐심(貪心)과 진심(嗔心)을 떠났다는 것이다. 좋다 싫다는 마음이 없고, 너도 나도 없고, 없다는 생각까지도 다 떨어지고 없으면 그것이 바로 생사해탈(生死解脫)인 것이다.

대주혜혜선사에게 스님은 공덕(功德)을 어떻게 드리십니까? 하고 묻자, 기래끽반(飢來喫飯) 곤래면(困來眠)이라고 답했다, 즉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잠잔자는 의미이다.

그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재차 묻자 선사는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 잘 때는 잠만 자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밥 먹을 때 욕심(慾心)으로 먹고, 잠잘 때는 꿈(夢) 속에서 온갖 생각을 일으킨다네"라고 답했다. 그래서 자나 깨나 시시비비에 휩 쌓이고 생각이 분별심을 항상 따라 가는 것이 중생병(衆生病)인데, 한 생각이 날 때 바로 알아 차리고, 그 뿌리를 잘라 버리고 그 경계로부터 내 안의 자성(自性)자리로 되돌려

연기의 이치를 '이 뭣고'로 관(觀)해 깨달았을 때
생사고락 벗어난 진정한 열반의 경지에 들 수 있다

놓는 극약처방 약(藥)이 바로 '시심마 이 뭣고'인 것이다.

우리가 삶속에서 거짓 나인 가아(假我)를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생을 보호하고 만족시키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는 뜬구름 같은 허망한 환영(幻影)임을 깨닫는다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목숨을 뒤로 하고 헛된 그림자를 위하여 순간을 투자하며 헛되이 일생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현각 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가 여쭈었다. "생사(生死)의 일이 크며, 무상(無常)은 신속합니다" "어째서 무생(無生)을 체득(體得)해 빠름이 없음을 요달(了達)하지 않는가?"

"체득한 즉 생(生)이 없고, 요달한 즉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하니, 육조스님이 "옳고도 옳도다"고 하셨다. 어떻게 체득하고 요달할 수 있겠는가?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떠오르는 허망한 한 생각을 시심마 이 뭣고로 그 뿌리를 짤라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을 공(空)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진여의 성품은 허공과 같아서 거기엔 생도 없고 사도 없으며 있음도 없음도 없고 동정간에 티끌만한 법도 붙을 수가 없는 시인 우리의 본고향이다. 내가 본래불(本來佛)이라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은 그 시(是)자리는 본래 생사가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생사는 꿈속에 있는 것이지 꿈을 깬 진여실상(眞如實相)에는 없는 것이다. 그 꿈을 깨는 유일한 최신 무기가 또한 '이 뭣고' 인 것이다.

죽음이란 존재(存在)를 형성한 조건 변화에 따라 화합(化合)되었다 흩어지는 것이니 본래 텅 빈 하늘에 뜬 구름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푸른 하늘 그 자체의 여여한 참성품은 나고 죽음을 따르지 않으며, 그 당처가 열반 적정인 참나(眞我)이며, 나(我)라고 집착(執着)하는 육신이 조건 따라 잠시 일어난 뜬구름과 같음을 통찰(洞察)해 여실히 볼 때, 즉 연기(緣起)의 이치(理致)를 '이 뭣고'로 관(觀)해 깨달았을 때 생사를 벗어난 열반인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띠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따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 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 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신화 종합 불사 안내

■ 전통한옥 신축 철거 전문
■ 사찰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인등, 연등 설치
■ 9평 산신각, 요사채, 특 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A급. 요사채 가능 (1천 2백만원)
■ 14평 요사채. 상태좋음, 가격저렴 (1천 2백만원)
■ 60평 법당, 대중간. 가격저렴 (1억 2천만원)
■ 석탑 5~7층 다수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1천만원 세 있음)
■ 다수의 사찰 매물 있음
■ 이동식 주택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010-6545-2020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 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총사 010-6560-911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능인학원 제23대 이사장에 도진 스님

4월 4일 취임법회… "소통으로 학교발전"



대구지역 불교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능인학원 제23대 이사장에 직지사 중암 회주 도진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은 4월 4일 능인중·고등학교 법당에서 제23대 이사장 도진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취임법회에는 능인학원 이사 법광 스님(도덕암 주지)과 철산 스님(보경사 주지), 감사 성효 스님(분황사 주지)과 덕유 스님(동화사 자비원장)을 비롯한 스님과 김원술 능인고교장, 김상만 능인중학교장, 김인수 총동창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진 스님은 "능인학원은 80년 전 어려운 시절에 선각자 스님들께서 불교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종립학교로,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뜻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불타정신 구현에 걸맞은 참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교과목의 범주를 벗어나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것이 불타 정신의 구현"이라며 "인사의 공정성, 엄격한 상벌제, 운영의 투명성을 기조로 기강을 확립하고, 구성원간 소통 면학 분위기 확산을 바탕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울산불교환경연대 대표에 능행 스님



새로 창립된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에 정토마을 이사장인 능행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능행 스님은 4월 10일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서 열린 울산불교환경연대 창립식에서 상임대표로 임명됐다. 능행 스님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불살생 사상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살려내는 울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편 울산불교환경연대는 능행 스님을 비롯해 울산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 등 9명의 공동대표단을 꾸렸다. 또 운영위원 11명 등 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박진형 기자

최승천 조계종출판사 사장에 임명



조계종출판사 부문사장에 최승천 출판사업부장〈사진〉이 4월 9일 임명됐다.

이에 앞서 조계종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는 3월 28일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도반HC의 도서출판, 총판, 서점 운영을 일원화하고 부문사장을 선임키로 결의했다.

최승천 부문사장은 1985년 주간불교 기자로 불교계 언론사에 입문해 법보신문·금강신문·미디어붓다에서 활동했으며, 도서출판 명상·설법연구원·조계종출판사 편집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영화 만들려고 불교소설 펴냈죠"

Interview

영화제작 앞서 〈공유〉 펴낸 김행수 감독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영화 제작비 마련 위해 집필
진공묘유 속 구법여행 중심
"불교영화에 대중 관심 절실"

"오래 전부터 불교영화를 만들기 위해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들기 위한 제작투자자를 구하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더군요.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작비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로 펴냈습니다.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불교계 관심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1985년 영화 '단(丹)'으로 데뷔한 김행수 영화감독이 구법 장편 불교소설 〈공유〉(도서출판 말벗)를 펴냈다. 그가 이 소설을 펴낸 이유는 단 하나. 불교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는 10년 가까이 불교를 주제로 한 작품 시나리오를 품고 다녔다. 하지만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작비 마련을 위해 직접 소설을 썼다.

"유구한 역사의 불교문화는 전통의 보존이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 맞춘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탈종교화에 따른 종교인구 감소를 막을 순 없지만 적어도 문화로 접근하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현재 불교계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낮습니다. 영화감독들이 불교를 주제로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김 감독이 쓴 소설 〈공유〉는 진공묘유(眞空妙有)에서 가져온 것으로 산중 노선사인 묵계 스님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묵계 스님은 과거 어느 노보살의 부탁으로 받아들인 어린 상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들이 갑작스레 떠나버려 약속을 지키지 못해 늘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결국 대중법회를 통해 진리의 골수를 전하고 열반에 들려 했으나 폐인이 돼 나타난 상좌로 인해 법회가 무산된다. 누더기 차림의 상좌는 묵계 스님에게 "사기 그만 치라"고 소리를 내지를 정도로 변해 있었다. 이에 묵계 스님은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고자 변해버린 상좌를 데리고 사계절을 보내며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이 소설의 스토리라인이다.

김 감독의 이 같은 시나리오는 최근 정통 불교영화가 전무한 상황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내용이다. 특히 불심 깊은 원로 배우인 전무송 씨도 출연을 자처하고 크랭크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조계종 전국 선원수좌회도 김 감독의 책을 읽고 후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 김 감독은 초기 제작비가 마련되는 대로 주연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불교전통의 삭발식을 실시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관건은 제작비 마련이다.

"개신교인이 개신교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주위의 성원이 뒤따르고 영화도 어느 정도의 흥행이 보장되죠. 하지만 불교인이 불교영화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대중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에 도전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교계가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 콘텐츠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교의 문화콘텐츠 생산은 소비가 뒤따를 때 커질 수 있습니다."

김행수 영화감독은 다큐멘터리 '신라승 김교각' '재일동포 아! 나는 누구인가' 등의 기획 제작 시나리오 감독으로 참여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학교 밀짚모자'를 만들고, 교장으로서 재능기부 봉사도 꾸준히 펼쳤다.

"서산대사 남북 합동추계제향 추진"

해남 대흥사, 4월 7일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호국명승장 서산대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탄신 497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가 열렸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4월 7일 경내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관계기관, 불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지휘했던 팔도선교도총섭 승군장이자 대선사인 서산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제향행사를 열었다.〈사진〉

서산대제는 예제관 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국가제향 제현과 법어, 헌다, 헌화 등 법요식이 함께 열렸다.

이날 설정 스님은 법문에서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신 애국애족의 뜻은 충심이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것이요, 심이라는 것은 말에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충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주지 월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때 스님이 사용했던 갑옷, 모자 등이 북한 묘향산 수충사에 보관돼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좋지 못해서 가지 못했는데 오는 10월 추계대제향은 묘향산 수충사에서 봉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흥사 측은 "조계종과 대흥사는 올 가을 서산대사가 입적한 북한 묘향산에서 남북 합동추계 제향을 봉행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흥사 보현전 인근에 호국대전이 250평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조대왕 때부터 해남, 순천 등 전라도 5개 마을이 합동으로 주관해 매년 봄·가을 국가제향으로 봉행되던 서산대제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여 년 전부터 불교식 제향을 실시해 왔다. 이후 대흥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옛 문헌 〈표충사 향례홀기〉와 〈진설도〉 등의 기록을 근거로 2012년 유교식 국가제향을 복원해 매년 봄에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

난정2 A팀 우승… 105개팀 참가



강화도 전등사(주지 승석)는 4월 9일 강화군 길상면 공설운동장서 '제13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105개팀 750여 명의 선수와 노인회 회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서는 교동면 난정2 A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교동면 지석 A팀은 준우승, 교동면 난정2 C팀과 서한 A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윤호섭 기자

무심사, 제11회 수륙용암대재

4월 8일, 대중 300명 방생법회도



대구 달성군 무심사(주지 무심)는 제11회 수륙용암대재 및 방생대법회를 4월 8일 봉행했다.

주지 무심 스님은 "수륙용암대재는 지수화풍 4대 신에게 마음의 작용으로 가정의 안락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이라며 "사부대중은 닦은 대로 거두는 불교의 교리를 바로 알아 우주의 근본자리인 주인공, 참 나를 발견해 영혼을 밝혀 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임제조계종, 창종 11주년 행사

여수 청암사 인근서 경로위안잔치



임제불교조계종(종정 지암)은 3월 31일 여수 청암사 인근서 창종 1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 행사에는 종정 지암 스님, 불교정중종 총무원장 법만 스님,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 스님을 비롯해 2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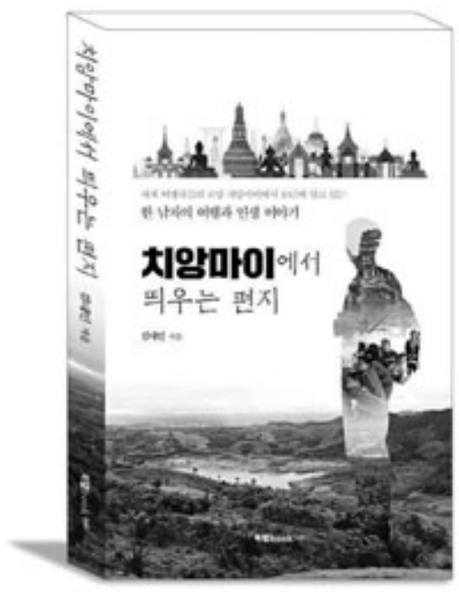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 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참당암 1000일 지장기도 회향

4월 8일 회향법회… 새 1000일 기도 다시 시작

고창 선운사, 도솔암과 함께 지장기도성지인 참당암이 1000일간에 걸친 지장기도를 회향하고 새로운 1000기도를 입재했다.

참당암은 4월 8일 경내에서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여 스님, 재연 스님, 참당암 선원장 법만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초기불교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불교연수원장 재안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국에서 모인 불자 5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0일 지장기도 회향 법회와 참회정진 10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사진〉

이날 참당암 선원장 법만 스님은 회향법회 인사말을 통해 "참당암은 지장기도 도량이자 참회기도 도량이며 매안거 때마다 납자들이 방부를 들이는 참선수행도량"이라며 "여기 모인 대중은 참당암에서 참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 참 행복을 체험하는 참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선운산에는 참당암의 인장지장보살, 도솔암의 천장지장보살, 선운사 지장보궁의 지지지장 보살님이 상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삼장지장기도 도량"이라고 밝히며 "선운사 주지소임을 마치고 참당암으로 돌아와 대중과 함께 진행한 1000일 기도가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게 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장기도정진에 동참한 주승희 불자는 "기도하는 순간순간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새로운 1000일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참당암 1000일 지장기도는 삼독을 없애고 과거 모든 죄업이 소멸되기를 발원하며 지난 2015년 7월 5일 시작됐다. 또 100일마다 선망영가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문화재활용사업 'START'

금구중학교 대상 올해 첫 프로그램 시행



금산사 전통산사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와 김제 금구중학교(교장 김판용)는 4월 11일 지역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재 역사를 배우는 전통산사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마음쉬는 수요일'을 실시했다. 〈사진〉

금구중학교 전교생 83명과 교사 등 100여 명이 동참한 행사는 금산사 소개, 금산사 문화유산 바로알기, 전북불교회관 세심다회의 다식만들기 체험, 보물 솟을 책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김제시 지원사업으로 전통산사에 깃든 역사문화를 향유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재해석된 가치를 전달하고자 기획된 금산사 문화재활용사업은 4월 11일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이어진다. 특히 미륵전 설화를 배경으로 젊은 소리꾼들이 모여 현대적인 언어로 새롭게 구성한 '창작 판소리극'이 프로그램에 추가됐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국보62호인 미륵전이 담고 있는 유식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오직 알 뿐이라는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하며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살의 계율'로 불제자임을 다진다

통도사 · 범어사 · 쌍계사, 보살계 수계산림 잇달아

통도사, 수계자 격려방편 마련
범어사, 불자 2000여 명 동참
쌍계사, 보물 지정 괘불도 공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보살계는 불도를 실천하는 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계율이다. 부처를 이루겠다는 불도를 서원하며 청정계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보살계 수계산림법회가 영남지역서 일제히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4월 20~22일 설법전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개최한다. 입재는 오전 9시 30분 입재불공을 시작으로 10시 30분에 입재식이 진행된다. 3일에 걸쳐 열리는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마지막 날 계첩 배부와 장학금 수여 그리고 수계식으로 회향된다.

통도사는 자장율사가 금강계단이라는 수계 단을 만들어 창건한 지계 근본 도량이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가 보살계 수계를 열어 온 이후 매년 음력 3월에 꾸준히 수계산림법석을 열고 있다. 그 전통을 자랑하듯 매년 보살계 수계산림법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보살계 수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통도사는 10회 수계자들에게 기념 매달, 15회와 20회 수계자에게는 금색가사, 25회 · 30회 · 35회 수계자들에게는 성만패와 금색가사를 증정하고 있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에는 전계대화상에 율주 혜남 스님, 갈마아사리에 지안 스님, 교수아사리에 수진 스님이 맡는다. 스님들은 3일 동안 〈범망경〉에 근거해 10중 48경계를 설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업력에 가려서 알지 못했던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고, 출가와 재가에 관계없이 불성의 자리에서 '수계공동체'가 된다는 뜻"이라며 "금강불변한 계율의 몸으로 궁극에는 부처를 이루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길 바란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055)382-7182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29~30일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보살계 법석으로 매년 부산불자 2천여 명이 찾아 계를 받고 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1904년 성월 스님이 범어사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보살계 산림을 일으킨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봉행되고 있으며 올해 118회를 맞는다.

전계대화상은 경선 스님, 갈마아사리는 정한 스님, 교수아사리는 영명 스님이 각각 맡는다.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입재식을 열고 예식을 진행, 이튿날 오전 10시 수계식을 끝으로 회향한다. 접수는 범어사 원주실 및 범어사 말사 혹은 암자로 하면 된다.

범어사는 "계를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완쾌하는 것과 같다"며 "무술년 좋은 시절인연으로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한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성불의 인연 맺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508-3636

쌍계총림 쌍계사는 4월 20~22일 금강계단(팔영루)과 대웅전 등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쌍계사 수계산림은 20일 오전 10시 보살계 입재식이 진행되며 입재법문은 오후 2시에 열린다. 21일에는 보살계 말사 수계식 및 육조봉찬회가 개최된다. 22일에는 장경 정대불사를 진행한다. 이날 쌍계사는 보물 제1695호로 지정된 괘불도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쌍계사는 1년 중 보살계 회향일인 마지막 날에만 쌍계사 괘불도를 공개하고 있다.

쌍계사는 1,200여 년 전 진감국사가 창건한 이래 계맥의 중흥조인 대은 · 금담율사가 전통적인 계법을 전하던 전법 도량이다.

이 사찰은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2018년도 정기 보살계 대법회를 겸해 대장경 정대불사, 육조봉찬회 총회를 연다. 쌍계사는 보살계 수계산림 증명법사로 고산 스님, 전계대화상 성주 스님, 갈마아사리 법융 스님, 교수아사리 덕민 스님이 맡는다. (055)883-1901

佛音 하모니로 밝힌 봉축燈

부산 영도구불교 연합회 합창제로 봉축 의미 다져



내빈과 참가합창단들이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를 함께 외치는 모습.

부산 영도구 불자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봉축등을 밝혔다.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4월 7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영도구 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영도구불교합창제는 화합의 화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고 마음을 모아 봉축을 기뻐하는 자리로 처음 기획됐다.

합창제는 한마음 부산선법합창단이 먼저 무대에 올랐으며, 미룡사 바라밀합창단과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이 차례로 올라 찬불가로 부처님을 찬탄했다. 이어 자유곡 공연과 BTN불교TV 남성중창단 게스트가 무대를 꾸며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회향의 무대에서는 승 · 재가 내빈이 차례로 연등을 들고 무대로 올라 헌등했다. 스님들이 먼저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지혜와 자비로'를 먼저 선창하자 대중이 '세상을 아름답게'를 함께 힘차게 외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무대 가운데는 영도구불교연합회 스님들과 내빈들이 작성한 소원등이 장식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은 "합창단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불교합창제'를 함께 한 것은, 화합을 보여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합창단의 모습을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축하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여러분들의 싱그러운 음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환희로운 봄날이 다가온 것 같다"며 "합창을 통해 부처님께 더욱 다가가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합창제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대원사 주지 담화림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불자 어머니들 "행복한 청소년 되길"

부산여성불자회, 장학금 전달

부산 불자 어머니들의 모임, 부산여성불자회가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행복한 청소년이 되길 기원했다.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4월 11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장학금 전달식 및 제1회 부산불교전법대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스님과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의장 안국 스님, 백명숙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사)부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불교활동에 앞장서는 청소년 20명을 선정, 각 3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현익채 前금정중 교장에게 부산불교전법대상을 수여했다.

왕선자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전달하는 장학금이다. 학생들이 불교를 더욱 깊이 알고 실천하며 행복하길 기원한다"며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전법활동을 펼쳐온 분을 선정해 상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기자**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공연히 망상에 젓지 말며, 오직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지어다.

- 금강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비법전수 사주 강의
3개월 완성(주1회)으로 구성
비법 역학을 공개 강의합니다
장소 : 충남 논산
시외버스터미널옆 2층 /
회비 : 월 50만원
010-6473-1569 남전

밀법 체험
불보살의 가피, 불광에
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예약필수)
禪 마음공부, 화두타파 검증
053-652-2714
010-9616-2477 우송 스님
묘진사 우송 합장 (대구 내당동 소재)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9년
수량 14000사이(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010-2294-4747

범음범패 학인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범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도깨비를 마음대로 부린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포교원 안내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에서 창업할 스님 찾음
(최고의 좋은 조건임)
내용은 상담하세요.
부전, 공양주 안내합니다
010-5381-1419

경상도가 고향인
참신한 30대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경남 함안군)
010-6893-5040

조용한 암자입니다.
절에서 살고 싶은 보살님
이나 수행처를 찾는 비구
니 스님은 연락 바랍니다.
(충청도)
010-7423-3333

함께 기도수행 할
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9421-0730
010-8620-4303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경전, 철학 배우면서 사
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35-45세 차후 사찰을
무료로 인도해줍니다.
010-6536-012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6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사찰 화재 보험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010-7344-1881
010-4510-3663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 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
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
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
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의 샘나 효모 밥죽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조직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이메일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유일한 진실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는 자, 저 세상을 포기한 자에게는 행해지지 않을 악이 없다.

– 법구경 –



안성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요사채 1채. 법당 건물 1채. 토지 1.000㎡
- 주변이 산, 주차장 보유. 사찰이용하던 건물.시내 근접함.
- 양도 : 2억 7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서울사찰(급)안내
- 뒷편 산사찰
- 토지 120㎡. 이층법당. 1층 요사채
- 전망좋은기도사찰. 산책로입구
- 깨끗하고 30년된사찰
- 양도 : 5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8709-5813
02)941-4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사찰부지 ◎ 위치 : 서울북한산
◎ 대지 : 70평,부지 400평 ◎ 부지 : 100평 사용
◎ 합 470평 ◎ 인법당 : 약 60평
◎ 산및바다조망 ◎ 산속, 무허가건물
◎ 양도가 : 1억 1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지내동 전철역 5분거리
- 3층 건물 80평 중
- 법당 40평, 공양간 4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세금 60만원 시설비 : 5천만원
- 법당 전체 단청 공양간
- 시설완벽(몸만 오시면 됨)

010-8500-0051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용전전화국 옆
- 제반시설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개, 60평
- 2층건물 2층,옥상 60평 사용가능
- 교통요지,터미털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3452-1123

사찰(포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 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찰(토굴) 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8백만원

010-8525-1959

별장같은 토굴
- 위치: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 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안심뉴타운지역
- 4년째 운영중인 포교원
- 4층 70평과 옥상사용
- 주차장 및 내부시설 최상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0-9805-0345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토 지 안 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산하
- 전체부지 1,100평 주택 1동 심야전기 보일러
- 임법당 24평, 산신각
- 종교부지 300평포함 700평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5억 5천만원 (은행융자 2억 포함)

010-9113-001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북삼
- 평수 : 21평
- 3층 상가 건물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 시설비 300만원

010-7592-05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5억 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포교원 안내
인수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 서울 불암산 아래
- 총평수 70여평(법당30평,종무소(사무실)20평, 주지실 및 공양간10평,세면장,보일러실,창고10평
- 별도 옥탑방 있음
- 보증금 :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 법당 및 모든 시설물 설치되어 있으니,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3659-707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21평, 법당 20평, 삼성각 4평, 용왕당 3평
- 호신불당 : 소불600불 봉안
- 공양실 : 15평,종무소,주지실
- 주차장 : 3대 주차
- 창건 : 120년
- 가액 : 4억 2천만원

010-2720-158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속의 계곡과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에 대지 328평 1층 60평 중 30평은 명상홀 다음 30평은
- 요사채 2층 법당 25평 삼성각 4.5평
-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농지에는 사과나무와 호두나무
- 석물 수월관음, 연화탑, 원통문 포대화상 • 가액 : 6억

010-4895-205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150년된 암자 3,000평
- 인법당, 요사채, 산신각
- 예당 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
- 가액 : 6억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 3평, 기와집, 산신각 5평 요사채 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동)
- 가액 : 3억

010-2591-473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5-10
- 법당 : 30평 3층 건물 중 2층
- 방 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7257-4242

포교원 안내
- 위치 :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 2층(법당), 4층(거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전세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

010-6473-1569

양평 불교 동호인 마을분양
- 위치 : 양평
- 평수 : 396㎡(120평)
- 불교공부와 참선 정진하고 싶으신 분
- 제일 저렴한 땅
- 선착순 : 8명
- 양도가 : 3,700만원

010-2215-3657
(주인 직접)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동현중학교 윗길
- 평수 : 대지 50평
- 건물 : 30평(등기필)
- 모든 제반 시설 완벽함
- 가액 : 2,700만원
- 주인 직접 거래(부동산 사절)
- 입주와 동시 법회가능

010-7744-835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 대지:110평,2층법당29평,1층요사채35평 외 약 5평 정도 공양간 시설되었음
- 신도로와 구도로 교차로변(근처) 국민관광지역. 절 앞까지 서울시내 좌석버스 30분간격 운행중
- 가액 : 3억7천만원(융자1억 포함)
-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건물,법당, 사진,메시지나 카톡으로 전송하겠습니다

010-9259-0108번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1동 아양교지하철역 2분거리
- 3층 상가 건물 2층. 약 50평
- 아미타삼존불 모셔져있음
- 보증금 3백만원, 월35만원 (가금 2천 절충 가능)
- 계약 즉시 입주 가능

010-9823-58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 평수 265㎡(80평) 2층 법당 15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채 27평, 아랫체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1억 5천만원 (대출 4천안고 1억1천만원)

010-8794-1257
010-6222-5835

포교원 안내
인수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 서울 불암산 아래
- 총평수 70여평(법당30평,종무소(사무실)20평, 주지실 및 공양간10평,세면장,보일러실,창고10평
- 별도 옥탑방 있음
- 보증금 :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 법당 및 모든 시설물 설치되어 있으니, 몸만 오셔도 됩니다.

스님 010-3540-6549
010-7169-13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철역에서 5분 대구시내
- 대지 300평 법당 200평 요사채 20평, 산신각 10평
- 기타 약초, 아로니아 블루베리 밭

010-8861-17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 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상담후 결정)

010-3262-1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
- 종교부지 570평, 주차장 44평 텃밭 278평, 임법당 32평, 삼성각 10평, 창고 겸 요사채 17평
- 가액 : 이억 칠천만원 (급양도) 정남향

011-369-3859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네비게이션 전화 033)744-3859번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소방서 앞 (100년 넘은 사찰 대지 187평,종교시설임) 이외 주차공간 넓음
- 법당20평 5년전 신축 불사하였음 산신각,칠성각,용왕당(9평), 요사채 2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881-640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백양산 밑 전망 좋은 곳
- 대지 45평
- 4층 건물
- 총 92평
- 가액: 5억 5천

010-9881-736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세 놓습니다
- 위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 방사, 산신각
- 가액 : 1억 1천 5백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평수 : 50평
- 가액 : 전세 1,000만원 달세 40만원
- 비품비 이사비만 받습니다

010-7734-943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춘천
- 법당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왕보살님, 신중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모셔져 있음
- 산신각 별도 텃밭약간 단독주택
- 가액 : 2천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010-6321-1242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약 25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체 및 공양간 : 약 35평
- 요사체슬라브 공양간 판넬-대지총면적 : 약 43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5천만원(약간의 절충가능)

연락처 0505-308-2111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흙집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1길 28-1 대원사
- 토지 : 대지 91평, 건평 23평
- 법당 칠보 삼존불, 소불, 방 2, 주방, 수세식화장실
- 산밑, 교통 좋으며, 주차장 시설완벽 집기 일체 제공
- 가액 : 4,500만원

010-3911-3646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투자가치도좋음(대한방직 150m거리 143층 초고층타워와아파트 신축예정)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 전북경찰청. 도청.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공원. 천변산책로
- 대지 61평. 뒷마당있음. 건평90평. 각30평. 3층건물
- 1층. 방3개해우소 / 2층. 법당. 수미단원목조성. 소불300불. 연등. 700. 인등. 영가인등. 해우소 3층. 주택. 방3개. 화장실2개. 외부. 내부 뼈대외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3천만원(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불가촉천민’에게 부처님 자비를

사망자만 10명 넘어… “불교계서 국제적 관심 가져야”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천년 넘게 카스트 제도속에 차별과 억압속에 고통받던 인도의 달리트(최하층 계급인 불가촉천민)들이 최근 평등과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를 앞세워 인도 사회에 맞서고 있어 화제다.

인도 사회는 지금 계급갈등으로 들끓고 있다. 인도 대법원이 ‘불가촉천민보호법’을 완화하는 취지의 명령을 내리자 달리트 출신 시민들이 거센 저항에 나선 것이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인도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인도 전역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반대하는 수만명의 달리트들이 시위를 벌였다. 도로와 철도를 막아선 시위대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달리트들의 격한 반응에 인도 연방 정부는 뒤늦게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다. 대법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3일 심리를 열고 정부의 주장을 청취하기로 했지만 앞선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법원의 재심 결정은 인도 계급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폐지한 후에도 최하층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끊이지 않자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계급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달리트와 불교

달리트와 불교의 역사는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로부터 시작된다. 불가촉천민 출신 최초로 법무장관까지 된 암베드카르는 차별을 불법화하는 인도 헌법 구성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힌두교리 내에서는 카스트제도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느끼고 1955년에 ‘인도불교협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1956년 약50만 명의 동료 달리트와 함께 인도 나그푸르에서 의식을 치르고 불교도가 됐다. 신불교운동을 통한 인도불교 부활의 시발점이었다. 이후 달리트들은 부처님이 2천 5백년 전부터 강조한 ‘평등’에 입각해 차별 금지를 부르짖어왔다.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달리트들이 인도 현지 경찰관들과 대립하고 있다. 사진출처=Aljazeera.com

암베드카르는 1956년에 사망했지만, 수많은 달리트가 그 뜻을 이어받았다. 그러다 보호법이 완화된다고 하자 다시 평등을 부르짖으며 행동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특히 암베드카르의 정신을 앞세웠다.

◇달리트 열 받게 한 불가촉천민보호법 완화 명령

‘CNN’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인도 대법원은 ‘지정 카스트·지정 부족 보호법(불가촉천민보호법)’에서 상층계급이 달리트를 학대할 경우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도록 하는 조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신고 사례 중 15~16%는 허위인 경우도 있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은 1989년 상층계급의 학대와 억압으로부터 하층계급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1947년 카스트 제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인도 사회에서는 하층계급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돼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하층계급을 억압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며 보석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포함돼있다.

카스트제도 최하계급 ‘달리트’
‘천민보호법’ 완화 개정에 분노
신불교운동 암베드카르 정신계승
‘평등’ ‘자비’ 佛法으로 맞서 싸워

달리트 측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달리트를 비롯한 억압받는 소수 계층을 보호하는 수단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 법은 상위계층의 무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인데, 유죄 선고율 마저 매우 낮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달리트 출신의 한 사회운동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이 달리트에 대한 보호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힌두근본주의 성향의 BJP가 집권한 이후 힌두근본주의자들은 달리트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역차별 논란 불러온 하층민 우대제도

인도가 1950년에 카스트 제도를 폐지한 이후 계급 갈등은 인도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카스트 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하층민 우대 제도를 도입하자 일부 계층에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하층민에 대한 관습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하층민에 속하는 카스트 계급에는 공무원직의 절반과 대학 입학 정원의 일부를 할당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카스트 세부 계층 중 하나인 ‘파텔(Patel)’은 자신들이 하층민 특혜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거리에 나와 돌을 던지고 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일으켰다. 카스트는 크게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로 구분하고, 성(姓)과 직업에 따라 3000여 계급으로 세분화되는데 파텔은 중상급으로 평가받는다.

달리트는 카스트 제도에 포함 조차 되지 않는 최하층민인데 최근 이들에 대한 공격도 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젊은 달리트들이 예전보다 향상된 삶을 누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층민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달리트 출신 남성이 부유계층의 상징인 말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명의 상대 절에서 찾아요!”

일본 사찰서 결혼중개 ‘인기’
25세~45세 까지 가입 가능

2010년부터 진행돼 지금까지
130쌍 이상 부부 중개성공해

스님들 자원봉사로 진행돼
참가비 외 입회료 등 없어



사찰서진행되는 결혼중개모임 ‘길연회’의 모습. 사진출처=파우치

‘절이란 다양한 만남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일념 하에 일본 사찰서 결혼중개를 해줘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인터넷 매체 ‘파우치’ ‘프레스릴리즈’ 등은 현재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와중, 사찰에서 결혼중개를 해주며 수많은 커플을 탄생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중개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일본의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浜松市)의 료운지(龍雲寺)의 부주지 키미야 코시(木宮行志)스님이다. 스님은 2010년 3월 결혼중개 모임으로 ‘길연회’를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회원수 1만 3천 500명을 보유중이며 성혼된 커플만 130쌍이다.

당시 결혼중개업소, 사이트 등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코시 스님은 당시 지인에게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상대를 만나는데 수십만 엔이 든다는 고충을 들었다고 한다. 코시 스님은 “원래 절이란 곳은 다양한 만남으로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 도반 스님들의 협력을 얻어 절에서 결혼중개를 해보자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스님은 ‘길연회’라는 결혼중개 모임을 만들었다. 25세에서 45세까지 독신남녀라면 신도나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회원으로 받았다. 모임과 상담 장소는 사찰이었다.

이 모임은 시작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몰고 왔다. 처음 시작된 2010년 3월에는 남녀 60명을 모집했지만, 200명이 지원했고, 동년 10월에는 길연회 인연의 첫 부부가 탄생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지원자가 늘면서 한 기수당 200명으로 정원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1천명이 넘는다.

코시 스님은 “절에서 결혼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 같다. 비용적으로도 사실상 스님들의 자원봉사로 결혼중개를 하고 있기에 입회료나 소개료 등의 비용이 없다. 지원자들을 스님들이 면담한 후 회원으로 받기 때문에 결혼에 진지한 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 모임은 참가비 명목으로 회당 3천 엔(한화 약 3만원)을 받을 뿐 일체의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

길연회는 현재 시즈오카현을 넘어 일본 전국에 6개 지구가 있고, 연간 평균 4~6회 가량 회원 모임을 진행한다. 법당에 모여 스님이 좋은 인연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진행한 후 임의로 조를 편성, 조원을 바꿔가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시 스님은 “길연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길상한 인연이다. 꼭 결혼이나 연인을 만들기 보다는 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벗과의 인연, 부처님과의 인연, 절집과의 인연이 넓어져 모든 인연이 길상하길 바란다”며 웃어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정부, 까르마빠의 시킴 방문허용

주석사원인 룸텍(Rumtek)사원은 불허

티베트 불교지도자 17대 까르마빠(Karmapa) 오갠 틴래 도르제(Ogyen Trinley Dorje)의 시킴주(州) 방문을 인도정부 안보각료회의가 허가했다고 ‘티베트 선’이 4월 1일 보도했다.

까르마빠는 티베트 불교 내에서 까르마 까규(Karma Kagyu) 종단을 이끄는 수장으로 지난 2000년 1월 5일 극비리에 티베트를 탈출, 인도로 망명했다. 당시 인도정부는 까르마빠의 망명을 받아들였지만, 티베트 망명정부과 중국정부 양측이 공인한 환생자라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주석사찰인 시킴의 룸텍사원에서의 거주는 불허했다. 또 해당 종단의 고위 승려인 샤마르 린포체(Shamar rinpoche)가 내세운 또 다른 17대 까르마빠가 존재한다는 종교적 민감성도 불허의 이유로 꼽혔다.

오갠 틴래 도르제는 달라이라마가 머무는 다람살라 근교의 규뙤(Gyuto)사원에 임시로 머물고 있으며 인도내의 이동과, 해외방문에 인도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등의 이동에 제한이 있었다.

까르마빠의 복귀를 원하는 시킴주의 까르마 까규파 소속 스님들의 릴레이 단식투쟁은 630일 가까이 이어졌다. 지난 3월 20일에는 시킴주지사 파완 쿠마르 참링(Pawan Kumar Chamling)이 공식적으로 인도 외무부에 까르마빠의 시킴 방문과 룸텍사원으로의 이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까르마빠의 공식 대변인 까르마 충얠빠(Karma Chungyalpa)는 “이번 허용에 대한 결과를 온라인 발표와 부속 공문을 통해 통지받았다. 이번 방문은 까르마빠를 따르는 시킴의 불자들 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지역의 불자들에게도 큰 선연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이번 방문을 시킴주에만 한정하며 원래의 주석사원인 룸텍사원의 방문은 허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까르마빠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마인드풀니스
조셉 골드스타인

〈3〉 법에 대한 마음챙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苦集滅道' 4성제가 진리인 이유

붓다가 〈염처경〉, 즉 깨달음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네 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 관찰 명상하는 것은 그렇게 놀랍지 않다. 4성제는 붓다의 깨달음의 정수이다. 여러 불교 전통들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통은 한결같이 4성제가 불교의 이해와 깨달음의 기초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붓다의 수제자인 사리뿟따는 여러 승려들에게 4성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걸어 다니는 어떤 생명체의 발자국도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 모든 선한 상태는 그렇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안에 포함됩니다."

4성제에 대한 관찰 명상은 우리의 삶과 수행에서 선한 것 모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이다. 붓다는 이런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만약 누군가 '나는 집을 지을 때 아래층을 짓지 않고 위층을 지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구들이여, 누군가 '고성제 · 집성제 · 멸성제 · 도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지 않고, 고통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둑카(dukkha)의 의미

우리가 이 가르침을 읽고 적용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도전은 빨리어의 둑카(dukkha, 苦)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이 둑카라는 용어는 전체 수행의 도정을 규정한다. 붓다는 모든 조건화된 현상들은 둑카이며, 붓다 자신이 간직한 드넓고 무한한 지식에서 단지 이것, 즉 둑카와 그 종식만을 가르친다고 종종 말하였다.

문제는 둑카가 갖는 의미 전체를 완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에 딱 맞는 적절한 단어가 영어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흔히 둑카를 영어로 'suffering(고통)' 이라고 번역한다. 어떤 맥락에서는 이 번역 용어가 어느 정도 통하지만,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붓다는 어느 가르침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모두 다 둑카에 포함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느낌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

둑카라는 단어는 접두사 du와 어근 kha로 이루어져 있다. du가 의미하는 것은 '나쁘다' 또는 '어렵다' 이다. kha의 의미는 '비어 있다' 는 것이다. 여기서 '비어 있다' 는 것은 어떤 경우는 특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일반적이기도 한 여러 사실을 지칭하고 있다.

특별한 의미 중 하나는 바퀴의 차축 구멍이 비어 있는 것을 말한다. 차축이 중앙의 구멍에 잘못 끼워져 있으면 마차를 탈 때 매우 덜컹거린다. 이것은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고 있는 우리에게 잘 맞는 비유이다.



불교 이해 · 깨달음 기초 사성제
모든 조건화된 현상은 苦 되고
갈망은 또 다른 갈망을 낳는다
팔정도 수행으로 깨달음 도달을

좀 더 일반적이면서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면, '비어 있음' 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과 현상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자아가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는 둑카라는 용어가 갖는 또 다른, 그러면서도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포착하기 시작한다. 불만족스럽고 믿을 수 없고 편치 않고 스트레스에 가득 찬,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체험하는 둑카의 보편적인 측면을 모두 전달하고 있다. 아날라요는 이런 모든 번역들을 고려하여 하나의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통' 은 '불만족스러움' 과는 달리 현상계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깨닫지 못한 마음이 그것들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4성제 전체의 근원적 주제이다. 즉 집착과 갈망을 원인으로 하는 고는 깨달음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의 불만족스러운 본성은 아라한에게 더 이상 고통을 일으키지 못한다."

갈망의 위험성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명상하면서 우리는 둑카의 원인을 탐구한다. 그 원인은 갈망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선한 요소들 중에서 붓다가 둑카를 야기하는 이 하나의 특별한 에너지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윤회, 조건화된 존재의 전체 바퀴가 굴러가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바로 이 강력한 힘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갈망이라는 족쇄 말고 중생을 속박해서 오랜 세월 윤회하며 헤매게 하는 다른 족쇄를 생각할 수 없다."

무엇이 갈망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수행에서 이것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갈망은 빨리어 '땅하(愛)' 의 번역어다. 이것은 '목마름' 또는 '만족되지 않은 기대의 열기' 이다. 땅하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아주 강렬한 성질을 갖는다는 느낌을 준다. 이것은 우리 존재 속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원초적인 에너지이다. 만족되지 않은 기대의 이런 열기는 바로 평화의 대척점에 있다.

우리는 대개 갈망의 열기 속에서 감각적 즐거움의 열병에 불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달콤함에 매혹되어서 그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붓다가 말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갖는 위험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감각적 즐거움은 결국 약속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우리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적 즐거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일시적인 행복감을 주기는 한다. 문제는 즐거운 느낌은 아주 무상하고 때로는 순간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위험은 갈망이 마음에서 강력한 힘이 될 때, 이것은 우리를 불선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갈망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 때문에 존재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불법 수행에서 직접 갈망의 세 번째 단점 또는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다. 즉 새롭고 즐거운 체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그대로 머물러 버리고 싶거나, 또는 이전에 했던 체험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적이 있는가? 여기서 위험성은 기대, 원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갈망을 버리다

명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모든 대상이 사라지고, 오로지 남는 것이라고는 의식, 아는 마음만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미묘하게 집착하게 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와의 동일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 즉 의식과의 이런 미묘한 동일화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다양한 전통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마하시 사야도는 이런 상태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수행자들에게 아는 마음에 이름을 붙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아는 것 그것조차 넘어설 때까지 행한다.

어떤 티벳 불교와 선불교 전통에서는 마음 그 자체를 찾으라고 가르친다.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맛볼 수 있는가, 만질 수 있는가? 찾을 수 없음의 그 순간을 인식할 때 마음의 공함과 공하고 무아인 성질이 드러난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강력한 선문답이 있다. 5~6세기 경 중국에 불교를 전래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달마 대사와 그의 후계자가 되었던 혜가 대사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이다. 전설에 의하면 보리달마가 9년간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 혜가가 그의 가르침을 구하러 왔다.

혜가가 보리달마에게 말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디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보리달마는 "내게 네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편안케 해 주마"라고 대답했다. 혜가가 말했다. "마음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보리달마가 대답했다. "그럼,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안케 해 주었다."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4성제 가르침의 마지막 절인,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를 다루는 부분에서 붓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가르침과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수행의 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여덟 가지의 길이다. 즉,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선정이다."

경전의 이 구절은 〈대념처경〉에서 인용한 것인데, 〈대념처경〉은 장부 경전에 속해 있다. 이 구절이 중부 경전에 있는 〈염처경〉과 다른 점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더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수행의 여덟 단계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도덕성 그룹은 바른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이다. 집중 그룹은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선정이다. 지혜 그룹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이다. 빨리어로 이 그룹들을 각각 '실라(戒)' '사마디(定)' '빤냐(慧)' 라고 부른다.

계율, 즉 도덕에 대한 훈련이 다른 것들의 토대라고 하면, 붓다는 왜 8정도의 첫 두 가지를 지혜에 해당하는 요소로 시작하고 있는가? 붓다의 가르침에서 흥미롭고 독특한 점은 가르침의 첫 출발이 교리 또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라는 점이다. 이런 이해가 비록 개념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수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4성제의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깨달음의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혜 요소는 8정도의 처음이자 끝이다.

붓다가 4성제의 마지막을 '길' 이라고 부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이런 여덟 가지 연속적인 과정이 최종 목표가 있는 어딘가로 이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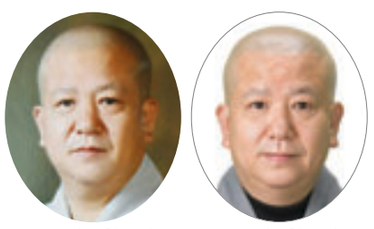
이 글은 깨달음으로 가는 실용적인 마음수행 안내서 〈마인드풀니스〉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몰입해서 오직, 오로지 놓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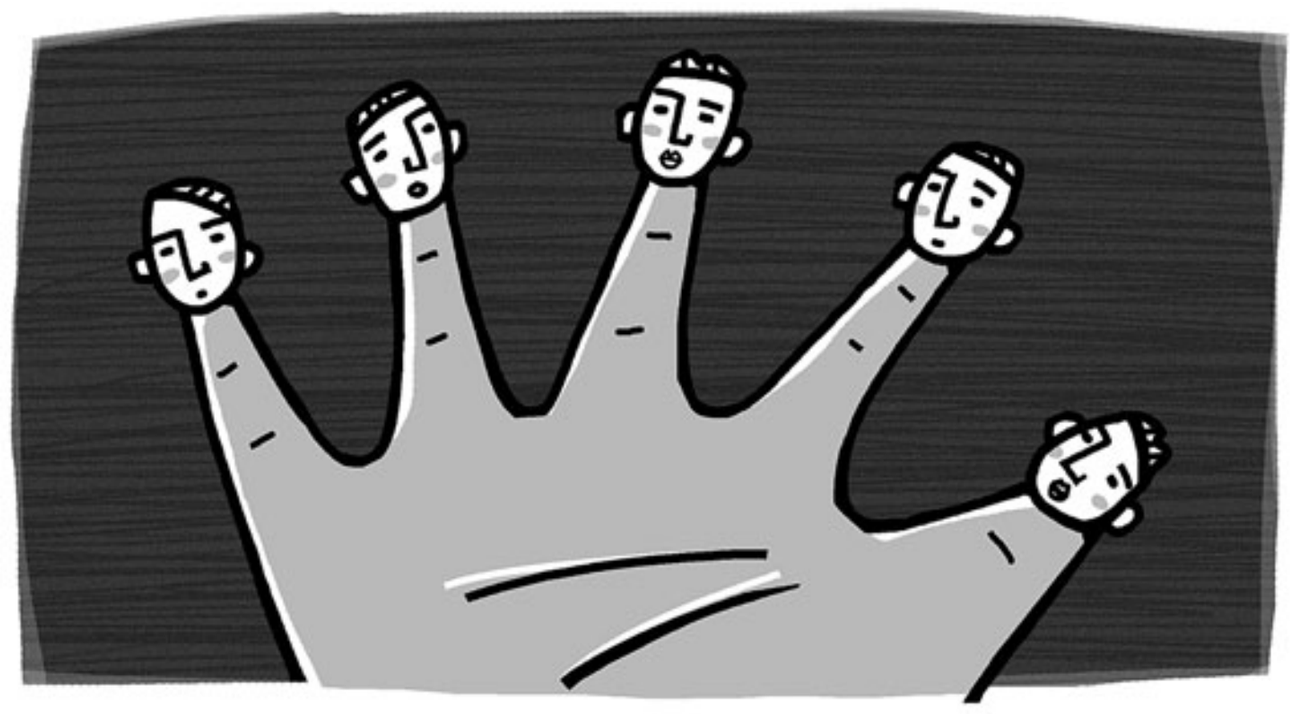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문 활짝 열려면

질문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안의 심봉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청년입니다. 내 안의 근본에 모든 것을 맡겨 놓는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의 근본을 발견하고 싶은데 저의 근본과 저 사이의 칸막이를 활짝 젖히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주인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허공이라 하면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모를 텐데 아무리 비어서 허공이라 할지라도, 허공 같다 할지라도 그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크고 작다, 짜고 싱겁다 하고 사계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있다는 생각, 또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없다는 생각이라든가 있다는 생각이 다 동일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수없는 생각을 해내는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때와 용도가 생기면 그냥 나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용도가 닥치면, 예를 들어 누가 찾으면, "여보!" 하고 부르든가 "아버지!" 하고 부르든가 하면서 찾는다면 아주 여여하게 해내는 그 자체가, 찰나찰나 해내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우주를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소립니다.

우리가 하루 이십사 시간 살아나갈 때에 '한다,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한다, 안 한다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다 닥치면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해내고 합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친구로서 여여하게 해내고, 거기서 그냥 상대방 사람의 용도를 보고 그 사람의 과정을 벌써 익힌 사람이라 그냥그냥 여여하게 나오죠,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찾는다,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찾는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의 그림자를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찾고 하나는 찾는 사람에게 보여 줘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찾는다가 아니라 그냥 "놔라" 이랬습니다.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는 놈이, 보는 놈이, 듣는 놈이 바로 그놈이니까요. 한 놈이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몰입해서 오직, 오로지 놓아라." 이러는 겁니다. 오로지 거기에다 몰입해서 놓으라는 겁니다.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스스로 들고 나는 것이 그대로, 들고 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면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해내듯이 스스로 들어오고 스스로 또 내는 거죠. 그렇게 여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했죠. "고정됨이 없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요. 바로 여러분이 공했기 때문에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차를 타는 거….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니까 종점도 없는 거를 알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하나로 한 군데서, 한 군데라고도 할 수 없는 데서,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데서 그 많은 모두가 나온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젖힐 칸막이가 따로 없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선장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과 내가 상봉을 해야만 자리가 잡히는데 자리가 잡히려면 심봉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서 자꾸 입력을 해야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실천에 옮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쩌다 한번 실천을 하게 되고, 어쩌다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문이 활짝 열리게끔 됩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사람들은 살면서 가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들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날 저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기독교 신자인 지인으로부터 경멸의 눈초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지 누군 누구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답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다섯 개의 손가락이 모두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독립된 개체라고 할 수 없이 한 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제각기 생겼고 제각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대한 한 뿌리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늘 말을 합니다만, 우리 육신을 끌고 다니는 장본인은 나무뿌리와 같습니다. 나무뿌리에서 수분, 철분을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나무를 성장시킵니다. 푸르르게 살도록 말입니다.

또 비유컨대 콩을 심어서 콩나무가 됐다면 콩씨로 있던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겠죠? 콩씨가 콩나무로 화했으니까요. 여러분 모습이 콩싹이라면 그 콩싹은 또 콩씨를 열리게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도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는다면 아마 백 년이 걸려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콩나무가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거사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질 않았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성 원리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종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태어나 살면서 고정되게 보고만 있으면 목석이라고 하고 고정되게 듣고만 있으면 귀머거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대로 내가 한 바가 없이 여여하구나.' 하는 거죠.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데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집착과 관습과 모든 얽힘을 붙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방이 다 터졌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놈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하고 밀어 넣으세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수억겁을 거쳐서 이끌어 온 장본인, 주인공만이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내 마음 안에서 들고 나는 모든 생각들은 주인공이라는 용광로에 다 집어넣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희심이 며칠 안 가고 사라져요

질문 스님 법문을 들을 때면 환희심이 넘치고 그 충만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며칠이 지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다시 망상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 법회 때 법문을 들었을 때도 다른 불자님들의 질문이 모두 저의 질문인 것처럼 절실하게 느껴졌지만, 해답을 알고도 그때뿐이고 답답함은 여전하니 어떻게 하여야 제대로 관하는 것인지 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걸까요?

답변 인간에게는 이미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허락이 돼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자유자재권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이것은 한다, 저것은 못한다, 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미리 지어 버리고 맙니다. 생각이 그렇게 붙어 돌아가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에너지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담아 가지고 있는 통과 같습니다. 그 통은 마음을 내게 하되 마음을 어떻게 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마음은 자기 몸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몸을 다스리는 데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구족하게 다 그렇게 있으니까 진실하게 통신이 되게 해야

☞ A17면에서 계속

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있는 팔만사천의 자생중생들이 내 마음의 신하가 돼서 움죽거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대로 나오는 것에 속아서 자꾸 떠밀려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보는 거와 듣는 거와 냄새 맡는 거와 감각, 지각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잘된 건가, 안 되는 건가.' 하고 안팎을 다 보고서는 '잘못된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다시 맡긴다면 그것이 정신계로 직접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명도 업보도 다 제거하는 직결의 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편안한 살림살이를 가져오는 문입니다. 생명의 수명을 좀 길게 한다거나 짧게 한다거나,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거기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결문을 두고도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뭐가 어떻고, 안되고, 이런 거는 되고…'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의 살아온 관습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에도 한 찰나에 갔다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이 지구 바깥을 못 벗어납니까. 우리가 연못 속에서, 우물 속에서 여기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바다로 못 나가는 것뿐입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움죽거리는 대로 한계가 있지만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에너지 주머니, 마음 내는 거, 마음 내게 하는 거,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낼 때에 잘못된 거라면 현재 의식의 나는 모르지만 '당신만이 올바르고 잘되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아서 새 물로 바꿔 쓰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거는 구정물과 같지만 체가 없는 거고, 되는 것도 체가 없어서 그것이 훌떡 돌아서 현실에 새 물로 바꿔 쓰게끔 나온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왜 자기 주인공을 믿지 못합니까? 근본을 믿어야 마음을 내 주고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면서 지혜를 넓히고 다스리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저러니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당신만이 지혜를 넓혀 가고 이 심부름꾼을 밝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관하신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경제적 발원은 결국 기복인지요

질문 진정 원하는 것을 바라며 기도를 하는데, 내 주관적인 판단으론 절실하지만 남이 볼 땐 경제적인 바람으로만 보이는 발원이라면 결국 기복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기복으로만은 발원하지 않으려고, 그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하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절실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주인공에게 많이도 말을 하지만, 닥쳐 있는 현실에 거짓말도 하고 내가 나를 속인 적도 많아서 주인공 찾기가 너무 민망할 뿐입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제게 길을 좀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원심을 낸다고 하죠. 즉 말하자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마음으로 구성해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공부하는 거 같지만, 이거는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 천문학이기도 하고, 심성 천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원을 낸다는 말은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한마음을 내 가지고 보니깐 바깥 경계도 한마음으로 돌아가더란 얘기예요. 안에서 한마음이 다 한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자에서 입자로 화해서 한마음으로 다 조절을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음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는 겁니까? 내 마음 속으로 하는 거는 비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찾고 비는 것이 기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공에 관하는 거는 한마음으로 중심에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을 세운 그 마음 한 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즉 말하자면 통신이 되면, 첫째 한 찰나에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제각기 또 벌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야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야 하고…, 제각기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해서 될 일이면 그렇게 하고, 물질로 갖추어져야 될 일이면 또 그렇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죽거려야 될 일이면 또 그렇게 해서 전부 각각 나가서 소임을 마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즉 얼른 쉽게 말하자면 마음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보살 응신이 나가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 둘이 아니게 또 들어와야 될 텐데 마음이 불안하고 못 미덥고 하니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궁리를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살 양으로 애쓰지 말고 죽으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천부적으로 일체를 다 구족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족하게 가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족한 것을 알고서 여러분한테 일러 드리는 겁니다. "구족하게 다 그렇게 있으니까 통신이 되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자신 안으로 진실하게 말입니다.

영가가 보이고 대화도 나눈다는데

질문 저의 도반 중 어떤 사람은 영가들이 자주 보이고 영가와 대화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부를 아주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가가 들어 몹시 괴로워하던 중 선원과 연결이 되어 마음공부를 하고 이젠 괜찮다고 합니다. 과연 영가를 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직 마음공부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영가가 들어와 괴롭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어떤 사람은 영가들과 계속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영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데 그런 공부가 왠지 저는 진짜 마음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말씀 청하옵니다.

답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별다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이 세상에 사는 게 공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佛)이요,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敎)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요. 내가 움죽거리는 것이 다 공부니까요. 참선이고요. 마음을 가라앉히면,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그냥 좌선이 되고요, 누워서 보면은 와선이 되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고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으로 들여서,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여서 믿고 거기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 잘 안됐으면 '안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고, 이렇게 굴려가다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여기서 감응이 되고 좀 지나고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 말이 하고 싶을 때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느냐? 남이 물어보면 관하는 도리만 얘기해 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를 말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며, 안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내세운 게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없는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그러다가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잘됐다, 못됐다 이런다면 공부는 꽝입니다.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면서 가다 보면, 그만 자기는 빈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고 바깥으로 끄달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 영계성으로 인해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무슨 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몸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몸도 바깥이거든요. 물질계거든요. 그렇게 바깥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영계가 들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상기가 돼서 귀로 들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를 못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이리저리 떨어지게 되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무슨 부처님, 무슨 부처님을 부르면서 바깥으로 끄달리는 사람들이 특히 영계성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집 저집 떠다니면서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 몸에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은 그냥 아주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돼 버리고 맙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되는 것도 뭐한데 가정이 다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좋다, 믿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말이 모두 업이 돼서, 말을 하면 구업(口業)이 되고, 마음으로 지으면 의업(意業)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깥에서 닥치는 거, 미운 거 고운 거를 밉다 곱다 하질 말고 안에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에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모든 업이 녹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자꾸 관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 해 주니까 어느 날부터 그냥 술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렇게 밉고 그냥 악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또 자식들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이 녹아지기를 지극하게 관한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겁니다. 길고 짧고 더디고 좀 빠르고는 있을지언정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녹음기에 녹음을 했더니 자동 녹음이 됐는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고 항상 말해 드렸죠. 그러니까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됩니다. 업을 끊으려고 해 봤자 칼로 물 베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첫째에 이 공부하는 데에 도로아미타불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잘됐다, 못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그 업식이 녹고, 그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습을 떼어 가면서 모든 거를 같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다음에 또 나와서 또 고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서 우리가 요다음 생에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도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도 염주가 항상 같이 꿰어 있듯이 그렇게 연관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놈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고 밀어 넣으세요.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빙의(귀신들림) 치유 상담 환영!!

몸 안에 들어온 영가 빼내는(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 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 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목매어,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문의처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 현불 논단 |

스몸비와 조고각하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스마트폰 좀비' 사회문제 대두
좁은 시야 인해 안전사고 야기
지난해 117건… 5년 간 증가세

경찰청 '바닥 신호등' 시범운영
효과 입증되면 9월부터 도입돼

절집 디딤돌에 '조고각하' 문구
자리 정갈 · 현재 상황 점검 의미
스마트폰에 삶을 저당 잡혀서야

스마트폰으로 인해 야기된 건강 문제는 크게 몸 문제, 마음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보면 근시가 될 수도 있고, 눈 깜박임이 줄어들어 안구건조증도 생긴다. 거기에 잘못된 자세로 인한 '거북목', 손목이 저리고 감각이 저하되는 '근육 이상 손목', 그리고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닮은 뇌'로 몸살을 앓게 된다. 좀 더 심해지면, 감정교감 저하로 인해 타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 장애로 인한 피로도 증가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보태어, '스마트폰 좀비(Smartphone Zombie)' 즉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로 지칭되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여 주위를 보지 않거나 좀비처럼 자기 마음대로 걷는 보행자들이 스마트 폰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로 등장했다. 스마트폰에 얼굴을 고정한 보행자는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좁은 시야 각도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길을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다가 차 앞까지 걸어가는 스몸비들과 이에 놀라 울리는 경적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과 부딪치거나 보도 위의 기물들과 충돌하는 광경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5년 사이 1.5배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안'을 통과시키고, 여러 곳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범 운영에서 '바닥 신호등'의 효과가 입증되면 올해 9월쯤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신호 장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절집에서도 바닥을 제대로 못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지 신발을 벗어 놓는 자리에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글귀를 써 놓았다. "발밑을 똑 바로 보라"는 뜻으로, 신발 벗은 자리를 정갈히 하라는 의미와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대중 생활 중에 무언가에 정신이 팔리면 신발이 어지럽다. 고무신 한 짝이 날아간 만큼 정신도 먼 곳을 헤맨다. 그러면 무언가에 부딪치고 다치고 대중들에게도 날카로움을 드러낸다. 신발의 상태가 거울이 되어 마음의 현 주소를 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스님들이 행각이나 탁발에 나설 때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늘 자기를 살펴 조심하라'는 경계의 뜻으로 삿갓을 썼다고 한다. 또한 스님들이 지팡이에 작은 고리를 달아 소리가 나도록 해서 들고 다닌 이유가 길을 갈 때 미물이라도 혹여 밟힐까 염려해서였다고 하고, 산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났을 때 부축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안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밖으로 나로 인해 누구라도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된다는 친절과 배려의 마음이 스님들의 소지품을 통해 드러난다.

〈연소경(S35.26)〉에서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과 마음이 불타고 있으니 일체가 불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스마트폰에 눈이 불타서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정신은 이미 마비가 되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리 저리 부딪치며 온 세상의 민폐로 등극한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지금 바로 발밑을 챙겨 "마음 바탕인 성품을 자금 이곳에서 바로 확인"하지는 못할지언정 스마트폰의 종이 되어 눈을 저당 잡히고 마음을 볼모잡히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겠다.

독자 투고

안성 영평사의 혜진 스님과 인천 호불사의 붕원 스님이 자신의 시작(詩作)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짧은 해설과 함께 게재한다. 앞으로도 독자 제호의 많은 문예 작품 투고를 바란다. 〈편집자 주〉

永坪寺

잔바람에
솔가지 부딪는 소리가
은은한 향기로 전해온다.

스님!
염불 소린
산새들 잠들게 하고

스님!
법문 소리에
山 짐승들은
걸음을 멈추고
人間으로의 환생을
꿈꾸는
그곳!
수미산문 永坪寺

수묵화 한 폭처럼
허허롭고 아름답다.
누가 그린 그림일까?

正林스님!
신심으로 이룬 도량
포클레인을 몰고
땅을 파고, 고르고, 다듬
는다.
설계하고, 짓고,
못질하고
行으로 무진법문 하는 듯
고고하다.

통일신라 화랑들이
무예를 연마하던 곳
춘추공과 김유신의 얼이
깃든
이곳!
경기도 안성땅
수미산문 永坪寺



혜진 스님 안성 영평사

안성 영평사는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역으로 신라 화랑들이 무예를 연마하던 곳이다.
눈 오는 날 사찰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하다. 대체 누가 그린 그림이기에 이리도 허허롭고 아름답단 말인가.

심전(心田)에 씨앗을 뿌리시오

님의 말씀이 생고(生苦)이고 고멸(苦滅)이니
삼라만상이 무상인 것을…
그리도 망상을 쌓고 헤매이는
너의 자견심(自見心)은 어디로 가고 있는고?
차라리
마음 밭에 씨 뿌리고 오려! 오려 오려!
어미 소 몰고 밭갈이나 하려무나.
정성껏 가꾸면 푸르고 푸른 들녘은
금빛 나는 황야가 되고
광명의 씨앗을 거두게 될 걸세
그 씨앗으로 오복지심(五福之心) 만들어
천석꾼이 되면 불국토(佛國土)에
씨앗을 뿌려나 보시구려!



붕원 스님 인천 호불사

부처님은 '고집멸도(苦集滅道)'를 요체로 한 사성제를 통해 '삶은 고통임을 알고, 수행을 통해 번뇌를 끊어 자유로워지라'고 하셨다. 마음 밭에 선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社說

문상의례 통일할 공청회 열자

불교 문상의례 절차가 공식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스님과 재가불자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많은 교단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쉬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편함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영단에 절을 2번 해야 하는지, 3번 해야 하는지부터 스님들이 재가불자 영단에 절을 해야 하는지, 또 탈상 전후의 영가 위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공의를 모아 해결해야할 난제가 쌓여 있다.

불자라면 으레 영단에 3번을 절하는 것이 마땅해보인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례는 유교적 관습을 따르고 있고, 불교의 3배 의미가 영가에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몇몇 경전서 볼 수 있는 비구와 비구니, 재가불자의 자격에 대한 차이까지 두드러져 한 목소리로 절차를 정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조계종 의례실무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다만 위원회 내에서도 의견 합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마련해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역시 한 번의 공청회로 해결될 순 없다. 꾸준히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관혼상제와 같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필수적으로 거치는 의례의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의 절차가 완성되면 사람의 관념과 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중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부디 불교계 문상 현장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불교적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관습을 잘 아울러 통일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N포세대 관심, 포교의 시작

한때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시대 흐름을 혁신했던 세대가 이젠 취업과 연애, 결혼과 출산, 내집마련, 심지어 대인관계까지 포기한 'N포 세대'가 됐다. 한 세대 진단 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1990년대 청년세대는 대중문화를 이끄는 신세력이었다. 이런 청년세대가 어느새 '좌절의 아이콘'이 된 것이다. 꿈꿀 자격조차 박탈당한 이들에게 불교는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취업을 위한 청년세대들의 모습은 노량진을 비롯한 고시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최근 사단법인 자비명상에서 노량진 고시촌에 마음충전소를 개소하고 고시생들에게 주먹밥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마음챙김에 나서고 있다.

고시촌 골목에서 불안감 속에 기본적인 삶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이들이 처한 상황이다. 자비명상과 같이 이른바 N포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들의 고민, 그리고 고통을 공감할 때 이들은 부처님 법 아래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음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다가가야 한다. '혼밥족'들을 위한 간편한 음식 개발, 젊은 세대를 위한 카페 및 사찰쉼터 운영, 각종 불교계 아르바이트 알선, 불교명상을 통한 위로, 장학재단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희망과 열정의 이미지가 무색하게 그 어느 세대보다도 생활고에 허덕이며 낙담하는 세대가 됐다.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지만,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작지만 다양한 실천이 필요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세계최초 부처님 일대기 장편 드라마!

55부작 드라마 붓다

Drama Buddha



방송 시간 월·화 13:30 수·목 01:00 / 토·일 22: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불교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일평생 유마의 삶을 꿈꿔온 한 재가 수행자의 공부처!

숫타니파타 독후감 '청년 붓다'를 만나다

부처님의 원음이 가장 온전히 담겨 있는 초기 경전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숫타니파타』에는 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수행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재가자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 김광하 저/국판/256쪽/값13,800원

자기 안의 선지식

선은 방석 위에 가둘 수 없다!
선이 존재해야 하는 곳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일상의 시공간이다. 禪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현실 속의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옛 선사들의 삶과 일화를 오늘에 투영시켜, 선의 참된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 김광하 저/국판/312쪽/값14,8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부 경전 중 가장 오래되어, 대승불교의 근본이 되는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 박이오 역/신국판 양장/368쪽/값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참회기도가 이끈 시한부환자 洗髮봉사

〈세발 · 머리를 감음〉



그대는 자비보살

인하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오정순(64) 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거동 어려운 환자 위한 봉사

1년 365일 중 320일 봉사 매진

인하대병원서만 14년째 자비행

한 주에 만나는 환자만 120명

"환자의 마지막을 씻겨드리는 일"

불교 찾는 환자가 너무 많다

수십 년 신행한 불자도 입원하면

"절은 나를 안 찾더라" 한 목소리

타종교의 끊임없는 환자 위문에

외로운 불자들 개종 수없이 경험

'죽음'은 삶과 분리되는 경험이기에 산 자에겐 늘 생경한 단어다. 하지만 적어도 죽음의 문턱에 선 이들에겐 눈앞의 현실이자 두려움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그 문턱을 의사의 시한부 선고로 마주하게 됐을 때 찾아오는 허탈감은 설령 피붙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공감하기 어려울 만큼 절망적이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들은 버킷리스트를 쓰고 죽기 전 해야 할 일을 하나둘씩 해나간다.

한편으론 이를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몸짓으로 볼 수도 있겠다. 어디까지나 신체활동에 제약 없는 이들의 시선에서는 말이다. 여러 이유로 침대에서 거동조차 못하는 와상(臥牀)환자들에게 버킷리스트는 사치에 가깝다. 이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서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한 대학병원에서 14년째 환자 머리 감기기 봉사를 하는 이가 있다. 인하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오정순(64, 법명 무량심) 씨다.

"호스피스환자도 나에겐 부처"

4월 4일, 오 씨를 만나기 위해 인천 인하대병원을 찾았다. 오전 내내 환자들의 머리 감기기 봉사를 마치고 직원식당 앞에서 만난 그는 아담한 체구에 검은 법복바지를 입은 평범한 겉모습의 불자였다. 봉사하느라 땀깨나 흘렸을 법한 그에게 힘들진 않은지 묻자 오 씨는 "오늘은 세발(洗髮)봉사 대상자가 20명밖에 되지 않아 수월했다"면서 환하게 웃어보였다. 그와 대화는 2평 남짓한 병동 지하 법당서 나눴다. 먼저 오 씨의 하루 일과를 물어봤다.

"우선 아침 7시 40분쯤 병원에 도착해서 법당에서 3배 올리고, 샴푸와 도구를 챙깁니다. 공식적으로는 9시부터 봉사시간이지만 8시부터 시작해야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어요. 제가 시간에 쫓기면 환자들도 그 손길을 느끼고 불안해하거든요. 그날그날 간호사실에서 정리한 명단을 받아서 점심까지 봉사를 하고요. 집에 돌아가면 쉬다가 집안일도 하고, 불교용품 살 일이 있으면 서울에 가고 합니다."

오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의 허리 높이쯤 되는 이동식 세발도구를 끌고 병실을 순회한다. 환자의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옮기고 머리를 감긴 뒤 제자리로 옮기는 것까지 모든 세발과정이 그의 몫이다. 이렇게 병원 9층부터 17층까지 오가며 오 씨가 1주일동안 만나는 환자는 120명 정도. 그는 이 생활을 1년 365일 중 320일가량 이어가고 있다. 그가 쉬는 날은 매주 월요일뿐. 이마저도 체력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며 보내는 오 씨다. 주로 다른 봉사자와 짝을 이뤄 봉사를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하는 사람은 오 씨밖에 없다. 그래서 동료가 일이 생겨 봉사를 나오지 못할 때는 환자 머리 감기기를 그가 홀로 도맡아 한다.

세발봉사가 필요한 이는 거동이 불편한 준중환자부터 호스피스환자까지 와상환자들이기 때문에 60대 여성이 매일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 그것도 1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동안 말이다. 무엇이 오 씨를 이토록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하게 하는 걸까.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환자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호스피스병동 봉사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환자분의 마지막을 잘 씻겨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 중환자들도 의식이 있어서 머리를 감기며 희망찬 얘기를 전하다보면 미세하지만 변화된 모습이 느껴져요."

오 씨에겐 환자들도 부처다. 비록 환자들의 몸 상태는 온전치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감겨주며 그들이 편안하게 내생으로 떠나길 기원한다. 신심 깊은 불자면서도 누군가 "어디서 봉사를 나오셨느냐"고 물을 땐 '병원 봉사자'라고만 설명하는 오 씨. 자칫 종교가 다른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지 몰라 배려하는 것이다.

참회 끝에 건진 육신

오 씨가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40대에 겪은 건강악화가 계기가 됐다. 당시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병원을 옆구리에 끼고 살 정도로 자주 다닌 탓에 정작 자신은 병원을 멀리해 정확한 병명도 몰랐다는 오 씨. 그는 몸이 아픈 와중에 자신이 죽고 난 뒤 남을 짐을 고민해봤다. 평소 화장법이나 유흥에 관심이 없고, 미용실도 가기 싫어 직접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깎던 그였기에 살림살이는 별로 없었지만 막상 하나둘 세어보니 버릴 것이 넘쳐났다.

'내가 죽은 뒤 모든 짐은 남은 사람들이 버려야겠구나. 이 또한 수고가 아닐까.'

그렇게 오 씨는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식구들과 함께 쓸 그릇과 수저 5개…. 지금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오래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리해야할 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제가 가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최대한 줄이고 또 줄였죠. 그러면서 점차 육신에 집착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는 병치레를 하며 문득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사찰에 다니던 시절을 떠올렸다. 기복신앙이 깊은 어머니였지만 그때 사찰에 들어서며 느낀 출세간의 고즈넉함이 생각난 것. 그 길로 오 씨는 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새벽예불과 108배를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고, 집안 거실에는 촛대와 불단을 만들어 기도했다. 안거기간엔 선방까지 다니며 참선공부도 했다. 건강이 조금 나아졌을 땐 5대 적멸보궁과 봉정암을 삼보일배로 올랐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고, 밤새 기도한 뒤 밥 한 숟갈만 먹고 내려오기도 일쑤. 이런 그는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회기도만 올리고 있다.

B2면에 계속

오정숙 씨는…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14년째 활동하고 있다. 1년 365일 중 320일을 와상환자 머리 감겨주는 데 보낸다. 1주일동안 만나는 환자만 120명 정도.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허리 높이쯤 되는 이동식 세발도구를 끌고 병원 9층부터 17층까지 순회하며 환자들의 머리를 감겨준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그에겐 호스피스환자도 부처다.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 동사(東司)와 정두(淨頭)

B5 문화 —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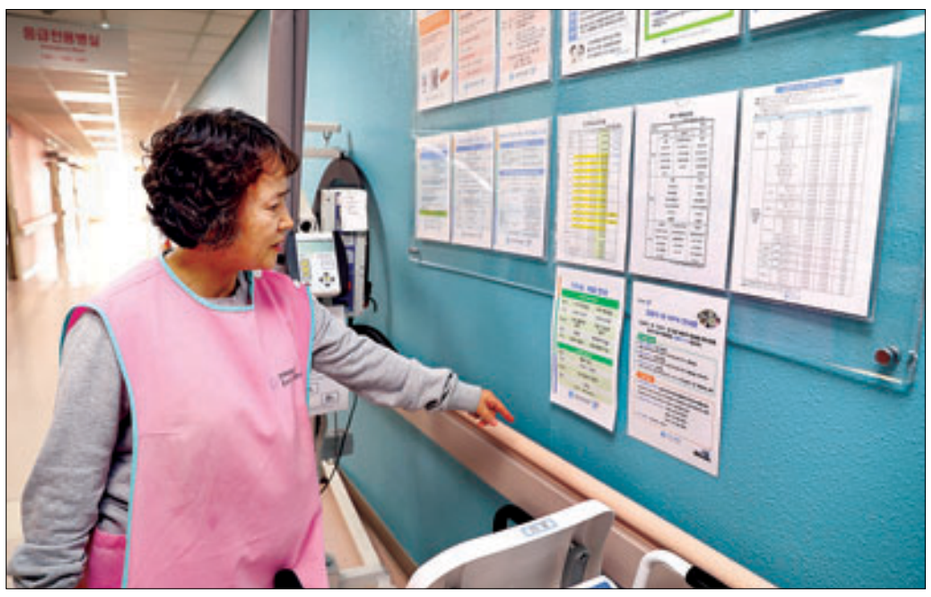
B6 학술 · 문화재 — 산둥성 금동불 비교 연구

입원 후 불자는 외톨이… “불교는 어디에”

‘오정순 자원봉사자’ B1면에서 계속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나 죄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회기도만 올렸고, 죽을 때까지도 그럴 거예요. 아들이 고3 수험생일 때도 입시 기도는 안 올렸죠.(웃음) 전생에 내가 지은 죄와 현생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싶었습니다.”

수년간의 참회기도는 그에게 곧 가피로 이어졌다. 꿈에서 병이 자신의 몸 밖으로 나가는 걸 느낀 것이다. 그렇게 오 씨는 건강을 다시 되찾았다. 그리곤 밥만 축내다 이생을 마감하지 않고, 봉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죽음을 앞두고 번민하는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된 계기다.



오정숙 씨가 병원 복도에 게시된 환자 이미용 · 세발 안내문을 가리키며 하루 일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환자들의 세발을 돕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지난해 인하대 직원불자회와 함께한 연등 만들기 체험행사. 병원직원을 비롯해 환자와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자신만의 연등을 만들고 즐긴다.

죽음 앞 외톨이 된 불자들

불교엔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2000년대 초, 오 씨는 기독교회관을 찾아가 호스피스 봉사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을 수료한 뒤 모 병원에서 처음 세발봉사를 하려던 오 씨는 불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했다. 이미 병원의 모든 봉사자들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의 텃세는 그가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봉사자 1명이 빠져 빈자리가 생기면서 오 씨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어느 날 환자의 머리를 감겨주던 오 씨는 환자 베개 밑에 염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환자에게 왜 베개 밑에 염주를 숨겨놓았는지 묻자 “기독교인 봉사자들이 머리를 감겨주면서 자꾸만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요해서 그랬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환자의 이 말은 오 씨의 가슴을 쿡쿡 쑤셨다. 그 때 오 씨는 불교호스피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되새길 수 있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기독교인이 40명이었어요. 불자는 저 포함 3명뿐이었죠. 불자들이 호스피스 봉사에서 인정받기까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힘들다고 돌아설 때 불자들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죠. 결국 종교가 다르던 환자들도 덕분에 편안하게 떠난다고 얘기해요. 불자 환자들은 끝까지 불교를 믿을 수 있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고요. 다만 아쉬운 건 병원에서 불자 환자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불교계는 관심 없다는 사실이죠.”

오 씨는 병원에서 봉사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개종하는 불자들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만났다. 그들의 개종 이유는 단순했다. 절은 제 발로 찾아가는 곳일 뿐 절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30년 그리고 50년을 절에 다니며 신행을 한 불자들도 병원에 입원한 그 순간부터 외톨이가 됐다. 교회에서는 교인 환자를 위해 수시로 음식과 반찬을 해주고, 성당에서는 함께 기도하러 사람들이 몰려왔다. 죽음 앞에서 외톨이가 된 불자들이 마치 도를 깨친 선사들처럼 꼿꼿하게 버틸 순 없는 일이었다.

“평생을 불자로 살다가 삶의 끝에서 개종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환자 한 사람이 개종하면 식구들도 따라 개종하거든요. 불교계가 포교대상이다 뭐다 하면서 상을 뿌릴 게 아니라 포교국장이든 총무원 스님이든 병원만이라도 돌면서 법회해주면 그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신부 · 목사 · 수녀님들이 교인에게 영향력이 크듯이 불자 환자들에겐 스님들이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재가불자들의 활동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욕심 없는 스님 없나요?”

오 씨는 지금의 인하대병원에 앞서 다른 병원서도 봉사를 했다. 그 경력을 더하면 20년에 조금 못 미치지만 이처럼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인 황광연(65) 거사의 지지 덕분이다. 개신교 집안서 자란 황 씨는 결혼식 주례를 목사에게 부탁할 정도로 오래된 교인이었다. 그는 오 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절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워 따라 나섰다가 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황 씨는 시간이 흐른 뒤 하루도 빠짐없이 호스피스 봉사에 매진하는 아내를 보면서 ‘내 부인이지만 부처님의 행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결국 자신도 함께 봉사에 나섰고, 이는 불교대학을 다니며 불심에 싹을 틔우는 계기로 이어졌다. 황 씨는 매주 토요일에 환자들 발마사지 봉사를 하고, 일요일엔 병원법회를 주관하며 집전까지 맡고 있다.

“제가 이렇게까지 봉사할 수 있었던 건 다 남편과 자식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봉사를 하다 보니 환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에 맞춰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얼마 전 사달만 없었더라면….”

병치레가 일깨워준 佛心

40대 큰 병 앓은 뒤 참회기도만

죽음 앞둔 이들 위한 봉사 결심

‘응무소주이생기심’ 가르침 새겨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 씨의 말끝이 흐려졌다. 최근 좋지 않은 일을 겪은 모양새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에게 서너 번을 더 물은 뒤에야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몇몇 스님들이 병원법당이 돈이 되는 곳이라 생각해 탐을 내고, 결국에는 병원서 행패까지 부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스님은 오 씨가 병원법당 시줏돈으로 호의호식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조계종 총무원에 배포했다. 또 다른 스님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를 지내라고 종용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법당에 스님이 없어 늘 아쉬워하던 오 씨에게 접근한 대다수의 스님들은 환자보다 돈에 관심을 뒀다. 결국 논란이 확대되고 실제 병원 내에서 스님과 봉사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병원법당은 지난해 4월 임시 폐쇄됐다. 다행히 법당의 완전 폐쇄는 막을 수 있었지만 봉사자들에게 생긴 마음의 상처는 제대로 아물지 못했다.

“욕심 없는 좋은 스님 모셔보려고 한 일들이 안 좋게 끝났죠. 전 시줏돈이 얼마가 됐든 전부 환자를 위해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돈이니까요. 심지어 시줏돈이 부족할 땐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법회 비용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조계종 호법부까지 찾아가 해명하게 되니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오 씨는 이후 한동안 봉사를 마친 뒤 도망가듯이 곧바로 집에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 창피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가 봉사를 그만두거나 병원법당이 폐쇄되지 않도록 노력한 이유는 분명했다. 한 번 법당 문을 닫으면 다시 여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럼에도 홍역에 따른 피해는 만만치 않았다. 불자 봉사자들이 절반은 줄었고, 인하대병원 직원불자회 활동 위축이 뒤따랐다.

“성모병원서 봉사할 때 미사에 참석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봉사자를 위해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해주더군요. ‘당신은 최고의 사람이다’ ‘봉사는 가장 좋은 일이다’ 말하며 지지해주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불교계에 뭐라고 지적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기 꺾는 일만 없도록 해줬으면 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윤회를 안 믿으니까 그런 못된 행위를 하는 거라고. 저도 계속 나이가 들고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봉사할 순 없어요. 정말 공심으로 병원법당을 맡아주실 스님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2시간 넘도록 오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놓친 게 생각났다. 바로 그가 마음에 새기고 사는 부처님 가르침이었다. 오 씨는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꼽았다. 이 가르침 덕분에 난치병어린이 돕기 성금모금 3000배 행사에 참여하고, 안 거기간엔 100일간 매일 1000배를 올릴 수 있었다는 오 씨. 자신을 내려놓고, 다스리고, 담금질하기까지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의 삶 전반에 깔려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게 환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비환자입니다. 다만 언제 발병하고,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라는 차이만 있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곤 하지만 죽음 앞에 직접 섰을 땐 평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듯하게 잘 살아야 하고, 이것은 곧 잘 죽는 일로 이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만 한 저도 언젠가 이생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때도 머리를 어루만져주는 손길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제법 찬 바람이 불면서 영화 버킷리스트(2007)의 대사가 떠올랐다. ‘죽으면서 눈은 감겼지만 가슴은 열렸다.’ 오 씨의 손길은 환자가 눈을 감은 이후엔 닿지 않지만 적어도 마음의 빗장을 푸는 자비가 아니었을까.



깨끗함과 더러움의 분별심 버려라

〈淨〉 〈汚〉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⑧ 동사(東司)와 정두(淨頭)



중국 선종사원에서는 화장실을 '동사'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우소'라 한다. 사진은 순천 선암사 해우소.

선종사원에서 화장실을 '동사(東司)'라고 한다. 중국 발음으로는 '토우스'라고 한다. 동사는 7당 가람의 하나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건물이다. 위치는 주로 납자들이 집중해 있는 승당 밑에 있는데,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화장실처럼 사찰 여러 곳에 있다.

동사에 대한 이칭도 매우 많다. 동정(東淨) · 서정(西淨) · 등사(登司) · 설은(雪隱)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임제종 사찰에서는 화장실을 '설은(雪隱)'이라고 하고, 조동종 사찰에서는 '동사'라고 한다. 이것을 보면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각 파마다 달리 불렀던 것 같다.

동사나 동정(東淨)은 동쪽에 있는 화장실을 가리키고, 서정(西淨)은 서쪽에 있는 화장실을, 등사(登司)는 남쪽 화장실, 설은(雪隱)은 북쪽 화장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다. '등사'라는 명칭은 화장실 귀신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 '설은(雪隱)'이라는 말은 설두송고로 유명한 설두중현(明覺 화상) 선사가 영은사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한 이후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이야기는 이렇다.

(1) 동사(東司)와 설두중현

〈설두송고(雪竇頌古)〉로 유명한 설두중현(雪竇重顯 · 980~1052, 시호 · 明覺禪師) 화상이 항주 영은사(일설에는 설보사라고 하나 영은사가 맞다)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남몰래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다. 그래서 그에게 '설은(雪隱)'이라는 미칭(美稱)이 붙었다고 하는데, 설은(雪隱)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정식으로 불렀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계기고 임시로 부르던 것이 정식 명칭처럼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설은(雪隱)'에 대해서 세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①화장실을 눈[雪]처럼 하얗게 가려[隱] 깨끗하게 한다. ②설두(雪竇)의 앞 글자 '설(雪)'과 영은사(靈隱寺)의 가운데 글자인 '은(隱)'을 따서 '설은'이라고 했다. ③설두[雪]의 숨[隱]은 공덕행. 어떤 자료에는 설두가 아니고 설봉의존(822~908)이 매일같이 자발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오도(悟道)했기 때문에 '설은(雪隱)'이라고 했다고 하나, 설봉은 설두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근사치는 ②의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또 동정(東淨)은 동서(東序, 감원 등 6知事)들이, 서정(西淨)은 서서(西序, 수좌 등 6頭首)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 역시 맞다고는 할 수 없다. 남송 때 항주 영은사 화장실 현판은 위치와 관계없이 '설은(雪隱)'이라고 붙였기 때문이다. 후대에는 모두 '동사(東司)'로 통일했다. 복잡하고 골이 아파서가 아닐까?

화장실은 왜 '동사(東司)'라고 불렸을까? 중국 남부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화장실을 '동사'라고 부른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종사원이 남쪽, 즉 강남지역에서 번창했기 때문에 '동사'라고 쓴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모로하시 데츠지 선생의 〈대한화사전〉에는 "측간의 귀신을 '등사(登司)'라고 하는데, 동사(東司)는 그 전와(轉訛)다."라고 밝히고 있다.

동사(東司) 소임을 '정두(淨頭)' 또는 '지정(持淨)'이라고 한다. 정두는 총림의 소임 가운데서도 하급 소임이다. 그래서 납자들이 가장 맡기 싫어하는 소임 가운데 하나가 정두이다. 설두 화상과 같은 경우엔 그 일을 자청했는데, 간화선의 대성자 대혜 선사(1089~1163)도 9개월 동안이나 자청해서 정두 소임을 맡았다. 하심(下心) 공부는 뒷간 청소만한 것이 없다. 더러움과 깨끗함(染淨)의 분별심을 버리는 데에도 정두 소임만한 것이 없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6권 '대소변리(大小便利 · 화장실 사용법)' 편에는 화장실 사용법과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도겐(道元, 1200~1253)의 〈정법안장〉 7권 '세정(洗淨)' 편이다.

동사는 화장실, 정두는 소임
여러 이칭 후대에 '동사'로 통일
설두 · 대혜 정두소임 자청
下心 공부에 정두소임이 최고
〈선원청규〉 '대소변리' 편 기술
간시궐 – 씻어 말린 깨끗한 막대기
출입시 입측오주(入厠五呪) 해야
'해우소' 이름 경봉 스님이 붙여

"동사에 갈 때는 반드시 수건을 가지고 가라. 편삼(偏衫 · 중국 스님들이 입는 장삼 같은 겉옷)을 벗어서 수건과 함께 동사 밖에 있는 횃대(=衣架)에 건 다음, 정통(淨桶 · 뒤를 씻는 물통)에 물을 담아 가지고 들어가라. (……) 용변을 다 본 후에는 반드시 먼저 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해서 닦아내라. 종이를 사용할 때는 더러운 종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막대기는 삼각형으로 길이는 8촌(8×3cm=24cm)이며 두께는 엄지손가락 크기만 하다. 더러운 막대기(사용한 것)는 통에 넣고 깨끗한 막대는 선반 위에 있다. (……)막대기나 종이를 사용한 후에는 오른 손으로는 정통(淨桶)을 들고 왼손으로 물을 떠서 씻어야 한다. 먼저 소변을 3번 씻고 다음에 대변을 씻는다. 여법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정법안장〉 7권, '세정(洗淨)'. 한보광 역주, 〈역주 정법안장강의〉 제1권).

동사(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먼저 숟가락으로 재(灰)를 조금 떠서 물과 섞어서 기왓장에 문질러 세 번 씻는다. 다음에는 흙에 물을 조금 섞어 세 번 씻는다. 그 다음에는 조협조두(皁莢藻豆 · 세정제)를 사용하여 씻되 팔꿈치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재로 세 번, 흙으로 세 번, 조두로 한 번, 모두 일곱 번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양치질은 양지(楊枝 · 버드나무 가지)를 입 안에 넣고 씹어서 문지른다.(조협은 쥐엄나무 열매인데, 콩(荳)과에 속해서 비누를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 씨는 약용으로 쓴다고 함. 조두는 콩가루인데 여기에 조협 등 약품을 섞어서 비누를 만듦. 조협, 조두는 모두 콩이나 녹두, 팥 등으로 만든 비누로서 율장에도 나온다. 인도와 중국, 한국에서도 예부터 사용해 왔다. 조협, 조두는 욕실에서도 비누로 쓰였다).

(2) 동사(東司)와 간시궐 화두

동사(東司)에서 대변을 본 후 1차적으로 닦아내는 막대기를 측주(厠籌), 측궐(厠橛), 측비(厠 , 는 빗치개), 측간자(厠簡子)라고 한다. 또 '간시궐(乾屎橛)'이라고도 하는데 별칭이 아닌가 생각한다.

'간시궐'은 화두로 유명하다.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 · 864~949)선사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如何是佛]"라고 묻자 "간시궐!"이라고 대답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다. 일반적으로 간시궐은 '마른 똥 막대기'로 번역된다. 그러나 간시궐은 '마른 똥 막대기'도 아니고 또 '똥이 말라 막대기처럼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용변 후 대변을 1차적으로 닦아내는 측주(厠籌) · 측궐(厠橛)을 가리킨다.

측주는 삼각형 모양으로 두께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1.5센티 가량)에 길이는 8촌(24cm) 정도 되는 대나무 쪽이다.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은 다음 말려서 또 사용하는데, 그 건조된 측주 · 측궐을 바로 '간시궐'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대변을 닦아내는 마른 막대기'인 것이다.

율장에도 '측주(厠籌)'가 나온다. 측주는 고대 인도 일반에서 널리 사용했던 것으로, 중국 선원총림에서도 율장의 규정에 따라 대변을 본 후에 사용한 것이다. 이미 사용한 것은 '촉주(觸籌)', 아직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것은 '정주(淨籌)', '정목(淨木)'이라고 한다. 즉 사용하지 않은 건조된 깨끗한 정주(淨籌)가 바로 간시궐(乾屎橛)이다. 사용한 촉주를 세척하여 건조시키는 것은 화장실 담당인 정두(淨頭)가 한다.

선원총림에서는 화장실을 매우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변기 양쪽을 더럽히면 안 된다. 말을 하거나 웃거나 노래를 불러서도 안 되고, 코를 풀거나 침을 뱉어서도 안 된다. 측주(厠籌) 막대기로 바닥을 그어서도 안 된다. 물로 뒤를 씻을 때는 더운 물로 씻지 말라(오래도록 더운 물을 사용하면 항문이 탈장, 출혈하는 병을 얻게 된다고 함). 용변을 본 후에 손을 씻지 않고 불전이나 법당, 승당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등이 있다.

또 화장실에서는 다섯 개의 진언을 외워야 한다. 이것을 입측오주(入厠五呪)라고 하는데, 먼저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는 입측진언(入厠眞言)인 "옴 하로다야 사바하"를 3번 외운다. 다음에는 용변 후에 왼손으로 뒷물 하고 나서 세정진언(洗淨眞言)을 외운다. "옴 하나마리제 사바하"(3번). 그 다음에는 손을 씻으면서 세수진언(洗手眞言)인 "옴 주가라야사바하"를 3번 외운다. 이어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예진언(去穢眞言)을 외운다. "옴시리예바혜 사바하"(3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인 정신진언(淨身眞言)을 세 번 외운다. "옴 바아라 뇌가닥 사바하"(3번)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대소변리' 편은 내용이 한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지만 도겐(道元)의 〈정법안장〉 '세정(洗淨)' 편에는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선종사원에서 위생관념이 매우 철저했음을 알 수 있다.

교토(京都) 동복사(東福寺)에는 400년이나 된 동사(東司)가 있다. 내부 구조는 남송시대 중국 선종사원의 동사와 같다. 400년 된 화장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니, 일본인들의 문화사랑은 남다르다. 쉴 새 없이 헐어버리고 새로 짓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정서와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사찰 화장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강원도 영월 보덕사에 있다. 1882년에 지어졌다고 하니 130년가량 된 것이다. 그 밖에 선암사 화장실과 통도사 극락암 해우소(화장실)도 유명하다. 화장실 편액을 '동사(東司)'라고 붙인 곳은 봉암사 선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찰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부른다.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라는 뜻이다. 갑자기 배탈이 났을 때 찾는 해우소는 그야말로 극락세계이다. 처음으로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이름을 붙인 분은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하셨던 경봉(1892~1982) 스님이라고 한다.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등



위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양자역학, 불교에게 길을 묻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

김성구 지음/불광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대 과학의 요구에 부합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불교가 될 것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한 시간마저 조건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밝혀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을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했다. 또한, 한 쌍의 수레바퀴처럼 종교가 과학과 짝을 이루려면 그 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영감을 주는 종교를 아인슈타인은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라고 명명했다. 우주적 종교란 '우주 종교적 감정(cosmic religious feeling)'에 바탕을 둔 종교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는 감정'을 말한다. 그릇된 욕망과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감정이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말한 우주적 종교에 가장 근접한 종교로 불교를 꼽았다.

현대물리학이 규명하려는 세계관과 불교의 가르침서 많은 유사성을 찾을 수 있고, 물리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는 이 같은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검증함과 동시에 최신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접점을 탐구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이화여대 물리학과 김성구 명예교수는 왜 불교가 우주적 종교일 수밖에 없는지를 해박한 물리학 지식과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했다. 물리학의 최전선인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설명하고, 불교의 연기(緣起), 공(空), 일심(一心)사상으로 물리학 이론을 비춰본다. 고전물리학에서 현대물리학에 걸친 물리학 역사와 불교 교리의 개론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와 과학에 대한 통념을 단숨에 변화시켜 준다. 물리학 박사이면서, 오랜 세월 불교학에 천착해 온 저자의 깊은 통찰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적 영감을 불어넣는다.

물리학의 역사는 크게 뉴턴을 중심으로 한 고전물리학과 20세기 이후 등장한 상대성이론 및 양자역학을 다루는 현대물리학으로 나뉜다. 고전물리학의 세계서 과학 지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성격을 띠었다. 인간이 발견한 자연법칙은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케 해주었고,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한번 발견한 물리법칙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불변의 진리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존의 고전물리학 법칙들을 뒤집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성립하면서 과학은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지식의 모임'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고전물리학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의 발견으로 진리라 믿던 법칙이 무너지자 과학적 지식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물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 것으로 다시 재정립되었다. 이런 변화의 문을 활짝 연 인물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의 연구로 그동안 파동이라 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지닌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뉴턴조차 몰랐던 새로운 물리학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이다. 입자는 아주 작은 독립된 개체의 단위이다. 하지만 파동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파동이 생기려면 매개체가 필요한데, 물과 물결의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물이 매개체이고 물결이 파동이다. 그런데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입자이기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현상을 토대로 성립한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은 입자 단위의 작은 미시 세계 속에서 일어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로 양극단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 세계 중 하나이다. 마치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있음과 없음이 서로 얽혀 있는 미지의 세상과도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불교의 '연기(緣起) 공(空)사상'과 많은 점이 유사하다. 연기법이란 '세상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며, 실체가 있는 고정불변의 존재는 없다'는 붓다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만물의 실체없음'을 불교에서는 공성(空性)이라고 말한다. 최첨단 물리학 이론이 2,500여 년 전 탄생한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사유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서양의 많은 물리학자들이 불교에 관심 갖게 된 이유이다.

저자인 김성구 박사는 이점이 바로 불교가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적 종교가 되는 증거라고 말한다. 많은 난제로 가로막혀 있는 양자역학의 매듭을 푸는 데 불교의 연기법과 공사상이 물리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실체없음'을 이해하는 데 불교는 분명 큰 도움이 된다. 빛이 실체가 있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실체가 없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물리학자들이 받은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마치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물질과 맞닥뜨린 느낌이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존재-비존재, 삶-죽음과 같은 양극단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분별심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알려주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하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아인슈타인 주장 검증 및 현대물리학과 불교 접점 탐구

불교의 연기, 공, 일심사상으로 물리학 이론을 비춰봐

바로 이 부분이 양자역학이 연구하는 미시세계의 개념과 합치한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양자역학은 불교의 공과 중도의 물리학이라고 주장한다. 양자역학에서 물질계의 모습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이 불교에서 일반 사물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과 무척 비슷하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은 양극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미시세계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어려운 과학용어로 설명하자면 '불확정성원리'의 세계이며, '이중성(duality)'의 세계이다. 이러한 현상을 과학자들은 '허깨비(ghost)'라고도 부른다. 모든 사물에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인 불교의 공성(空性)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허깨비와 같은 미시세계가 모여 우리가 인식하는 거시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물건에 집착하고, 네 것 내 것을 구분한다.

저자는 양자역학의 이론을 제시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허깨비'의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독자들을 인도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연기 · 공사상과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에서는 불교와 현대물리학이 한 쌍의 조화를 이루는 수레바퀴임을 밝히고, 불교가 우주적 종교이자 미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부처님 말씀 빌린 '妄說'

〈망설〉



니 혼자 부처되면 뭐하노

월암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7천원

"괴로움과 즐거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 지나가는 구름에 손만 흔들어라"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는 스님이 출가해 지금까지, 강산이 다섯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상좌들과 불자들께 보낸 편지, 엽서, 문자 등을 모아 엮은 책이다. 주로 성현들의 말씀에 사족을 붙인 내용과 직접 쓴 글 모음집이다. 그동안 간화선의 대가로서, 학술서 위주의 책을 내온 월암 스님의 첫 에세이집이라 할 수 있다.

스님은 이 책을 '망상집'이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조의 언설과 고덕의 행실이 그 속에 녹아 있기에 눈과 귀에 스치는 인연만으로도 불법의 종자를 심어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책머리서 밝힌다. 부제인 '금구망설'이란 불조의 금구성언(金口聖言), 즉 '부처님의 말씀을 빌린 망설(妄說)'이라는 스님의 겸손한 표현이다. 부제대로, 이 책의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과 거기에 붙인 스님의 사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엽서처럼 짤막한 글귀 안에 무릎을 치게 하는 단박의 깨달음이 들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고사(古事)와 고시 인용, 스님이 직접 지은 한시와 우리말 시가 어우러져,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선수행자만의 담백한 정신을 맛볼 수 있다. 출가한 지 50년 된 노승에게 하시는 어머니 말씀.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스님은 자신을 산승이라고 표현하며, 사람관계와 자연 속에서 느끼는 깨달음을 때로는 산문처럼 풀어내고, 때로는 시처럼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선문답처럼 알쏭달쏭하지만 곱씹고 싶어지는 문장도 섞여 있다. 먼저, 책의 표제가 왜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인지를 알려주는 1번 꼭지〈모정단절〉에서는 스님 자신의 사연이 드러난다. 자식이 출가한 지 50여 년이 되었는데도 가끔 전화를 걸어와 "한 중생도 제도 못 하면서 무슨 만중생을 제도할 끼고. 한 중생 다 죽고 난 뒤에 제도해라"라는 어머니. 글에는 여전히 자식을 놓지 못하는 모정에 대한 애틋하면서도 묘한 심경이 담겨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좌절과 절망에도 담담히 일어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개망초〉 그리고 "눈썹에 허공 하나 매달고 그냥 살다 그냥 간다"는 〈복수초〉는 각기 한 편의 시다. 이처럼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는 선수행자만의 시각과 깨달음의 정수를 다양한 갈래로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에세이이다. 김주일 기자

〈증도가〉 대표적 주석서 4권 모아 번역



증도가 합주

남명 법천 외 지음
철우 역주
운주사 펴냄
2만 5천원

〈증도가〉는 영가현각 대사의 깨달음의 경계를 운문 형식으로 노래한 책이다. 현각 대사는 육조 혜능 선사를 참알한 인연으로 '일숙각'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더욱이 혜능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아 〈증도가〉를 찬술했다고 한다. 특히 이 책은 서역으로 전해져 유행하면서 이른바 〈증도경〉 〈동토대승경〉으로도 칭송됐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증도가〉는 조사선의 종전으로 추앙받는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의 '이부경전'으로 평가된다. 이는 후기 조사선에서 출현한 대부분의 선적에 〈증도가〉가 인용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증도가〉는 운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승찬의 〈신심명〉과 함께 선가에서 널리 읽히는 대표적인 선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증도가〉는 역대로 수많은 고승대덕들에 의해 주석서가 쓰였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해설서와 번역서들이 출판된다. 본서는 선가에서 이렇듯 중요시되는 〈증도가〉에 대한 대표적 주석서 4가지를 한 권에 모아 전체를 번역하고 주석한 책이다.

〈증도가〉에 대한 대표적인 4종의 주석서로는 송대 묘공지눌과 범천언기의 〈증도가주〉, 남명법천의 〈증도가송〉, 원대 축원영성의 〈증도가주송〉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범천언기와 남명법천의 주석서는 이미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됐지만, 묘공지눌의 〈증도가주〉와 축원영성의 〈증도가주송〉은 이번에 처음 우리말로 번역 소개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들 4종의 주석서를 모두 완역하여 원문과 함께 실음으로써 〈증도가〉가 각각의 선사들에 의해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4종의 주석들은 〈증도가〉가 본래 지니는 사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이들 주석들을 서로 비교하며 읽는다면 〈증도가〉가 지닌 선사상, 나아가 저자 현각의 사상을 한층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본서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은, 본문 말미에 부록으로 '〈증도가〉의 선사상'이란 이름으로 영가 현각의 생애와 저술, 그리고 〈증도가〉의 선사상을 소개한다는 점이다. 특히 광범위한 〈증도가〉의 선사상 가운데서도 핵심인 주제들을 모아 '불성과 돈오', '수증론', 그리고 구도의 길에 있어서의 '경계와 질책'으로 요약 정리해 체계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증도가〉의 내용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증도가〉는 영가현각이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시의 형식으로 노래한 것으로, 상당히 압축적이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원문 자체로만 봐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다양한 자의적인 해석들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대 고승들의 안목과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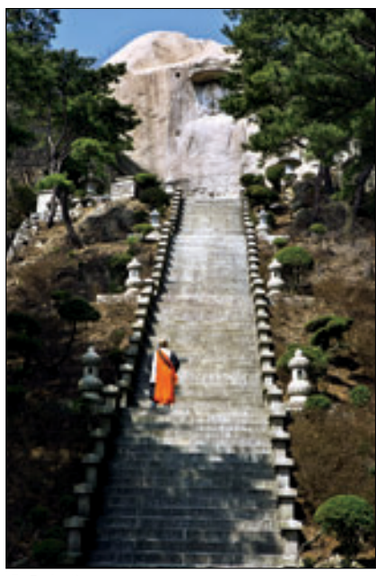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佛家의 시간을 담은 사진들


김승재 作


홍효숙 作


김세중 作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및 제12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법련사 불일미술관 4월 26일~5월 3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진은 '복제'라는 기능을 통해 같은 대상을 수많은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무상(無常)'을 증명하듯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대체 가능케 한다. 그래서 잘 찍은 사진 한 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다. 더구나 그 사진이 불가(佛家)의 시간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전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눈으로만 찾아낼 수 있는 바위틈의 석불, 먼 시간으로 와서 먼 시간으로 가야하는 미륵불의 무량한 표정. 사진이기에 가능한 전법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불가의 시간과 언어를 담은 사진전이 대중을 찾는다.

한국불교사진가협회(회장 최우성)는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4월 26일(목) 개막식과 시상식을 시작으로 5월 3일(목)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관장 여서)에서 제23회 한국불교사진가협회 회원전 및 제12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들이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최하는 전시이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사진 영상에 원력을 가진 사진가들의 모임이다. 1995년 창립된 이래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을 순례하며 부처님의 법향을 사진에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바위에 나투신 부처님'이란 주제로 촬영한 사진 60여 점과 '청소년의 눈으로 보고 느낀 불교'라는 주제로 공모된 청소년 작품 10여 점이 함께 전시된다.

서울 전시에 이어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풍경소리'의 그림작가 박준수 개인전

2000년부터 약 10여 년간 지하철 역사의 '풍경소리' 그림작가로 활동해 온 동양화가 박준수 씨가 5월 6일까지 한국문화정품관 갤러리에서 기획초대개인전 '소 · 확 · 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행복에 대한 단상들의 표현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과 그것을 둘러싼 작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작품으로 그려내고 있다.

꽃이 피고 새가 상념에 잠겨 있는 순간을 지켜보거나, 물고기가 개울가 물속을 헤엄치는 장면, 그리고 무심히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나를 발견하는 시간, 봄날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 자연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과 빨간 자동차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길을 드라이브하는 장면 등 작가가 자연에서 느끼고 경험한 세계가 수묵의 동양적 회화 속에서 경쾌하면서도 소박하게 그려지고 있다.

행복은 작은 주변의 것들과 나누며 찾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그 동안의 추상적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던 작가의 예술세계 이면에 자연과 더불어 보낸 시간들을 문인화풍의 그림을 통해서 소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파릇파릇 잎사귀 싱그러운 햇살아래 봄노래를 부른다'


'달 밝은 밤 봄노래는 어디선가 들려온다'

'PBM(대중불교음악)' 장르로 탄생

PBM 대중불교음악회
동국대 중강당 4.21 오후 5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한 찬불가 콘서트가 열린다. 불교문화 후원단체인 도솔회는 4월 21일 오후 5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PBM 대중불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제1회 도솔전국불교합창대회(이하 도솔합창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도솔회'가 올 10월에 개최하는 제2회 도솔합창대회에서 선보일 찬불가를 앞서 발표하는 쇼케이스 형식의 콘서트이다. 이번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새로운 이름과 좀 더 구체적인 노력으로,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공연이라는 점이다.

우선, 공연의 제목으로 'PBM'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PBM'은 Popular Buddhism Music의 줄임말로 대중불교음악을 지칭하는 동시에 불교음악을 하나의 장르로 정착시키고 대중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번의 이런 시도는 이미 오래 전에 타종교에서 종교음악을 장르화하고 대중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인 불교음악은 범패나 영산회상 등의 특정한 의식을 위해서 발전, 보존되어진 전통불교 음악과 근대화되면서 일반 신도들에 의한 의식곡과 부처님을 예경 찬탄하는 찬불가를 나누어 말한다. 이렇듯 불교음악은 전통과 의식에 국한되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어져 왔다. 그 동안 많은 불교음악인들의 노력으로 대중화를 위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어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진정한 대중화의 길을 열지 못했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음악들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PBM'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불교음악(찬불가)의 신곡들이다. 'PBM'이란 이름으로 선보이는 이번 음악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창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음원, 방송으로 대중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불교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곡들은 불교적인 가사에 새롭게 곡을 붙인 것으로 팝페라, 발라드,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졌다. 작사엔 함현 스님 등이 참여했으며, 대중음악 작곡가 정재환 등이 작곡에 참여했다.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콘서트에는 소리꾼 이봉근, 트로트 가수 김선경, 팝페라 가수 이보은 · 박정환과 카루나여성합창단 등 5개 합창단으로 구성된 70여 명의 연합합창단이 출연해, 함연 스님 작사의 '강녕하소서' 등 새롭게 만들어진 찬불가와 '인연' 등 우리 귀에 익은 대중가요를 섞어 총 16곡을 부른다.

이번 공연은 대중불교음악, 즉 'PBM'이라는 장르의 탄생을 알리는 쇼케이스, 제작발표회 개념의 공연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사전에 초대권이 배포되었지만 공연 당일 현장에서 좌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문의 (02)597-9328

박재완 기자

BTN 다큐 '다비' 휴스턴영화제 수상작 선정

한국불교 관련 다큐 중 처음… 서원 등 문화유산채널 작품도

북미권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한국불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BTN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다비(THE BUDDHIST CREMATION, 茶毘: 최동철 연출)'가 제51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4월 6일 밝혔다.

1961년 시작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뉴욕 영화제,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와 함께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한국불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2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다비'는 1여 년간 '다비' 현장 곳곳을 누빈 끝에 만들어졌다. 1부 '생사불이(生死不二)'에서는 다비의식에 담긴 불교의 생사관을 정리했으며, 2부 '스님, 불들어갑니다'에서는 죽음의 순간조차 해탈의 기회로 맞이하는 한국 승가의 철저한 수행정신을 아름다운 영상언어로 기록했다.

51회 휴스턴국제 영화제는 오는 4월 29일까지 개최되며, 시상식은 현지시간으로 열린다. 또한 BTN 다큐멘터리 '다비'는 이번 영화제에서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들과 레미상을 놓고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연출을 담당한 최동철 PD는 "한국불교전통문화인 다비식은 가슴깊이 고여드는 무상법문이고 해탈법문이었고, 그리고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울림이었다"면서 "꼭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다비영상과 다비문화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자연과 철학을 담은 한국의 정원'과 '서원, 500년 전 인문학을 탐하다' 등도 제51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에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법장엄일체
미단 달집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고대 한반도·中 산둥, 불교 교류 활발”

國博, 산둥성 금동불상 비교 연구 보고서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가 한반도에 처음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는 비교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중국 산둥박물관과 공동으로 〈중국 산둥성 금동불상 조사 보고 -불교 미술의 교차로, 산둥의 금동불〉을 발간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중국 산둥성에서 출토돼 산둥박물관·보싱현박물관·타이안시박물관에 소장된 금동불상 25점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는 한국의 고대불교 조각과의 비교 연구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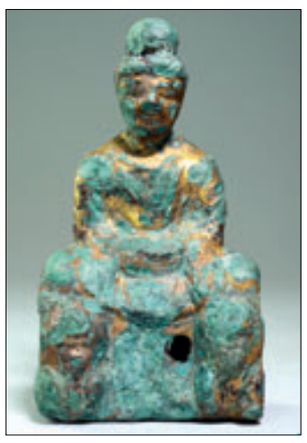
중국 산둥 지역에서 출토되는 불교조각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조각과 유사성을 보여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간 자료가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아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산둥성 출토 주요 금동불상 25점은 중국 십육국시기(304~439)부터 수대(581~618)까지 제작된 상으로 한국의 삼국시대에 해당된다. 그 가운데 11점은 명문이 새겨져 있어 향후 삼국시대 금동불상의 연대 추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고대 한반도와 중국 산둥 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실려 눈길을 끈다.

보싱현박물관 소장 금동불좌상은 서울 뚝섬 출토 금동불좌상과 매우 유사한 도상을 보여준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보고서에서 “서울 뚝섬 출토 금동불좌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상이며, 이 상과 유사한 상이 산둥성에서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는 초기부터 산둥지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뚝섬 출토 금동불좌상〈사진 왼쪽〉과 산둥성 보싱현 릉화사지 출토 금동불좌상〈사진 오른쪽〉. 유사한 모습의 불상을 통해 고대 한반도와 중국 산둥성이 활발히 교류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산둥 출토 금동불 25점 조사

뚝섬 불상 등 유사 불상 다수

불교 전래 초기부터 교류 추정

산둥지역 불상 소개 전시 계획

산둥박물관과 타이안시박물관에서는 부여 관북리 출토 금동광배와 같이 광배 외연에 ‘ㄷ’자 돌기가 있는 금동광배를 조사했다. ‘북위(北魏) 태화(太和) 18년(494)’과 ‘영안(永安) 2년(529)’의 기년이 있는 금동불상 2점은 매우 이른 시기인 북위 시대(477~499)부터 산둥성서 ‘ㄷ’자 돌기가 있는 금동광배가 유행했고 부여 관북리 출토 금동광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조사과정서 산둥박물관 소장 금동광배의 출토지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서 출토된 삼국시대 제작 추정 보살삼존상과 유사한 불상이 확인됐다. 산둥성 보싱현서 출토돼 보싱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관세음삼존보살입상’으로 수나라 시기에 제작됐다. 당시 발굴에는 주존이 보살인 삼존불상 7점이 함께 출토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보고서는 “고대 산둥 지역에서 보살형 삼존상이 크게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고서 출간을 계기로 향후 산둥성의 고대 불교미술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불선 근원 사상 학술적 조명한다

청화사상硏, 21일 학술대회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청화 스님이 주창했던 염불선의 정통 근원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오는 4월 21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염실상염불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0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염불선의 근원을 찾는 연구 성과들이 잇달아 발표된다. ‘정토염불과 실상염불선’을 발표하는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은 정토종의 정토염불과 금타·청화 스님의 염불선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공통점·차이점을 밝히며, 최종적으로 염불과 선은 하나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교수의 발표논문 ‘불조의 정통 정맥과 염불선’을 통해 인도불교부터 달마·혜능 등의 순선시대 이후 전개되는 불교 흐름을 살피고 주류불교의 순수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이후 토론자로는 안유숙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참여한다.

청화사상연구회는 “염불선의 보편성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도난됐던 운문사 칠성도 제자리 찾다

조계종 13일 성보 특별공개

국외로 유출됐던 청도 운문사 칠성도가 민관의 협조로 제자릴 찾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서 환수된 청도 운문사 칠성도를 공개했다.

환수된 운문사 칠성도는 7폭에 나누어 그려진 칠성도 중 1점이다. 화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화승 위상(偉相)과 봉전(奉典)이 조성하여 운문사에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129.5×74.3cm 크기의 칠성도는 세로가 다소 긴 화폭에는 상하 2단 구도로 나눠 상단에 병풍을 배경으로 결가부좌한 칠성여래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아랫 쪽에서 솟아오른 연꽃대 좌우로 권속을 배치한 구성이 돋보인다. 특히 5폭 병풍을 배경으로 천공에 베풀어진 주홍색 위의 구름문 구성은 위상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는 1868년의 운문사 관음전 ‘관음보살도’의 이중광배 주변에 표현된 구름문과 일치해 ‘운문사 칠성도’도 함께 조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수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2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경매시장에 출품된 한국문화재 모니터링 중 칠성도 1점을 발견해 종단과 공유했다. 종단은 발견된 칠성도의 원 봉안처가 운문사이며, 19세기 대표 수화승 위상의 작품임을 확인했다. 도난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한국의 혼란 시기였던 1950~60년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매를 통해 환수된 운문사 칠성도. 조계종과 운문사, 국외소재문화재단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19세기 대표 수화승 위상 작품

1950~60년대 혼란기에 유출

美 경매에서 매입 환수

특별 공개 후 운문사에 봉안

이후 조계종 문화부와 청도 운문사,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성보의 환지본처를 위해 매입환수를 결정했으며, 지난 3월 21일 미국 뉴욕서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받아 4월 11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운문사 칠성도는 환수 성보 특별공개 이후 제자리인 운문사에 봉안된다.

이번 환수에 대해 조계종은 “이번 환수는 원 봉안 사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축이 됐고,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종단, 사찰, 국외재단 등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조계종 문화부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외 유출 성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화성 당성, 사상사적 깊은 의미 가져”

윤명철 교수, 7일 화성불교유적 학술발표회서

원효 스님의 오도처로 추정되는 곳 중 하나인 화성 당항성이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4월 7일 ‘정신문화 유산으로서의 원효사상과 화성 당성’을 주제로 화성문화원이 주최한 제2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발표 논문 ‘원효의 오도처 화성 당성’에서 화성 일대의 지정학적 의미를 해양교류사적 관점에서 살피고 이를 통해 사상사적 의미를 추정했다.

윤 교수는 “화성 일대를 놓고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한 것은 경기만의 중심이면서 중국 교류에 꼭 필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며 “6세기 후반에는 신라가 일대를 장악하며 중국과 교류를 하며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불교 사상과 문화가 중국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하고 적지 않은 신라 유학승려들이 당나라로 건너갔음을 상기시킨 윤 교수는 “유학승려들이 신라 주도의 삼국통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당나라의 억압을 물리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신사상사에서 큰 역할을 한 신라불교는 화성 당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효의 오도처인 이 지역은 사상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오도처는 항구에 가까운 고구려식 무덤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IJBTC, 톰슨 로이터 DB 색인 수록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발행하는 국내 유일 불교학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사진, 이하 IJBTC)〉가 톰슨로이터의 새 데이터베이스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이하 ESCI)’에 색인 수록된다.

〈IJBTC〉가 등재된 ESCI는 톰슨 로이터에서 2015년 11월부터 적용한 새 데이터베이스 제도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 & Humanity Citation Index) 등이 동시에 등재돼 있다.

신성민 기자

치유명상 통한 전법 방법은?

불광연구원, 27일 연찬회

치유명상을 통한 불교 신행과 전법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치유명상을 통한 신행의 확장과 전법’을 주제로 제35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주연 중앙승가대 겸임교수의 ‘음악을 통한 명상과 치유’를 비롯해 미소선원장 혜림스님의 ‘트라이앵글 컬러 메디테이션’,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의 ‘전통사찰과 경관치유’, 서영심 동명북명상연구원장 ‘북을 활용한 명상과 치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진을 활용한 명상과 치유’가 각각 주제 발표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제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박재완의 PhotoEssay



소임

한 생은 한 소임
한 소임 놓는 날
부처를 볼 것인가

봄볕은 알아서 부풀고
바람은 여전히 신비로운 날에
잊지 못할 것이 있어 힘들고
잊어야 할 것이 있어 힘들고
그렇게 분주한 소임 사느라
불기엔 오늘도 쌀알만 가득하다



성낙윤의 불교매듭

⑧ 가락지매듭을 이용해 염주 만들기 〈끝〉

손수 엮은 염주로 정진을…







가락지매듭을 이용해 만든 단주와 108염주

염주(念珠) 염주는 보리수 열매나 연꽃열매, 다라수열매, 유리, 보석 등의 구슬을 꿰어 만든 불구의 하나로, 목이나 손목에 거는 것을 말한다. '염불의 횟수를 기억하는 구슬'이라는 뜻에서 시작된 염주는 염불할 때 그 횟수를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며, 불보살에게 예배를 하거나 서원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한다.

구슬의 수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염불을 하거나 다라니를 외울 때는 주로 108염주를 사용한다. 108염주의 '108'은 108번뇌를 상징한다. 구슬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넘기며 염불을 하면 번뇌를 하나씩 소멸시킨다는 생각에서 온 것이다. 그 외 1080, 54, 27, 15 등이 있는데, 짧은 염주를 단주, 합장주라고도 한다.

한편 54개로 된 것은 보살수행의 계위(階位)인 4선근(善根)·10신(信)·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10지(地)를 나타낸 것이며, 다시 그 절반 27개로 된 것은 소승(小乘)의 27현성(賢聖)을 나타내는 것이다.

염주가 언제부터 불교에서 쓰이게 되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다. 특히 남방불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중국과 한국 등 북방불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염주의 시초는 부처님의 설법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초기 경전인 〈목환자경〉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난국의 왕인 파우리가 부처에게 사신을 보내어 "해마다 도적과 병, 흉년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말이 아닌지라 저 또한 편할 날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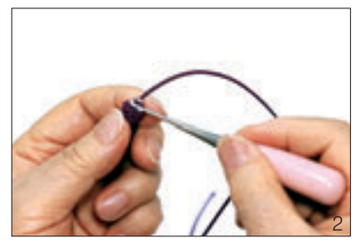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고 깊어서 저와 같이 일이 많은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 간편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부처는 무환나무(보리수) 열매 108개를 꿰어 항상 지니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씩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돌리라고 하였다. "몸과 마음에 산란함이 없이 20만 번을 채우면 훗날 염마천에 태어나고 의식이 저절로 갖춰져 언제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백만 번을 채우면 백팔번뇌가 끊어져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최상의 과보를 얻으리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손수 엮은 염주로 정진한다면 수행의 보람이 배가 될 것이다.

1. 준비한 80cm 실 끝을 스카치테이프로 감아 가락지매듭 한 알 한 알을 끼운다.
2. 종지에 접착제를 짜놓고 송곳 끝으로 가락지매듭 양쪽 끝에 나와 있는 실밥을 보이지 않게 정리한다.
3.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을 때 만들어 놓은 단주에 김을 쏘여 가며 양손으로 비벼서 매듭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고르게 정리한다.

4~5~6. 김을 쏘인 단주를 다시 빼서 새 실에 끼울 때 중앙에 색이 다른 3번 가락지매듭이나 굵은 구슬의 포인트를 끼우고 좌우로 나누어서 한쪽에 16~17개씩 끼운다.

7. 손목 굵기에 따라 염주 알 수를 정하고 두 가닥의 실을 모아 도래매듭을 해도 되고 또 다른 포인트를 함께 끼우고 난 다음 도래매듭으로 정리를 한다.
8. 남는 2가닥의 실은 한 가닥씩 끝에 작은 구슬을 끼워 포인트를 주고, 끝에 도래매듭을 두 번씩 해준다.(일반적인 방식으로 묶어도 된다.) 실 끝을 접착제로 풀어지지 않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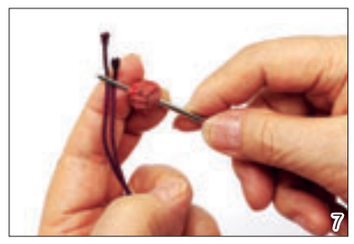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사 찰 증 축
사 찰 개 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 원 불 사

현대불교신문
구 독 문 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 溪 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